

시로 읽는 성보순례
연꽃 위에 불 밝히시니
국보 제103호 중흥산성쌍사자석등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애욕은 늪과 같고, 시퍼런 칼날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애욕에 얽매인다
애욕은 남도 해치고 자신도 해친다.
「법구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10월 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914호 2012년 11월 14일 수요일

수행 풍토 증진 기대 총림법 개정은 급선무

조계종 총림 8개로 확대, 그 의미와 과제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제14교구본사 범어사가 조계종 중앙종회 제192차 정기회에서 총림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조계종 총림은 해인총림 해인사, 조계총림 송광사, 영축총림 통도사, 덕숭총림 수덕사, 고불총림 백양사와 더불어 8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 같은 총림 지정 움직임은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법주사는 지난 10월 26일 총림 지정을 총무원에 신청했고, 3곳의 교구본사도 총림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 종회가 지나면 조계종 24개교구 본사 중 절반 가량이 총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계종 종헌과 총림법에 따르면 총림은 종합수행도량의 의미를 가진다. 선원, 강원(승가대학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율학전문대학원), 염불원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총림 지정 확대 움직임은 승가교육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특히 경학 연찬과 참법 · 염불 수행을 안거로 확대하겠다는 교육원의 정책과도 부합돼 상승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도 전망된다.

또한 교구본사 주지 선거로 빚어지는 내홍을 방지하고 방장 스님을 중심으로 대중이 화합할 수 있는 점도 총림이 가지는 장점 중 하나다.

실제 이번 정기회 종책질의에서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계정혜 삼학이라는 수행자의 본분을 교육하는 도량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승가교육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며 "방장 스님을 중심으로 위계질서에 따라 대중이 정진하는 종합수행도량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도 또 다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총림 지정 확대 움직임이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교계 안팎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현재 기존 5개 총림을 포함해 신규 지정된 3개의 총림 모두 '종합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가지는가'라는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조계종 총무부가 파악한 기존 5대 총림 운영현황에 따르면 이들 모두 염불원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덕숭총림 수덕사의 경우 율원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동화 · 쌍계 · 범어사
중앙종회서 총림 지정
총림 실사특위도 구성

본사 절반 가량 총림 추진
방장스님 권한 견제해야
임회 구성 재정립 필요

새로 지정된 3개 총림도 다르지 않다. 동화사는 현재 선원과 승가대학(강원)만 운영되고 있으며, 율원은 2010년 율학승가대학원 인가를 받았지만 인원이 모집되지 않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쌍계사는 선원과 승가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율원은 국사암에 율학승가대학원을, 염불원은 2013년 건립되는 범패전수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범어사 역시 선원과 승가대학은 운영하고 있지만, 염불원은 특정 산내암자를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중앙종회 의원 무애 스님은 "24개 교구본사가 모두 총림이 되도 좋다. 다만 종헌 종법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갖춘 후 총림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앙종회가 총림을 추가 지정하면서 8개 총림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총림실사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이 같은 우려에서다. 위원장에는 원학스님과 종회의원 장적, 성직, 혜림, 대오, 범해, 주경, 장명, 종민, 상화스님, 총무부장 지현스님, 기획실장 능도스님, 교육부장 법인스님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실사위는 총림의 요건이 미비할 경우 해제 신청을 할 계획이다.

또한, 방장 스님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총림 운영 권한에 대해서는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규정된 총림법은 방장은 총림을 대표하며 대중 수행을 지도 · 감독한다.

또한 수좌, 선원장, 율주, 염불원장 등 총림 주요 소임에 대한 추천과 임명권도 가진다. 대다수의 인사와 종무 행정 권한이 방장 스님에게 집중돼 있는 것이다.

인덕과 명망을 가진 인물이 방장 스님으로 주석할 경우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내부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 통도사에서는 주지 재임을 위해 방장 교체를 시도하기도 했으며, 최근 백양사는 방장 스님 입적 후 생긴 갈등으로 불교계 전체 명예를 실추한 사건도 발생했다.

방장 권한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총림법 개정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11월 7일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가 개최한 7차 야단법석에서 "총림의 방장이 주지 후보추천권을 가짐으로서 사중 내 이해관계에 얽혀버릴 우려가 크다"며 "방장이 이해관계에 얽히면 공부하는 스님을 모시지 못한다. 방장 권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총림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총림 지정 확대'라는 주사위는 이미 굴러졌다. 이제는 현대 사회에서 총림이 가지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종단적 논의와 이에 따른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공명한 18대 대통령 선거를 기원하며 7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9일 서울플라자호텔 4층에서 종교지도자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종교 지도자들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장면. 사진= 박재완 기자

"18대 대선 공명선거로 만듭시다"

7대 종교지도자들 9일 '공명선거 선언문' 발표

공명한 18대 대통령 선거를 기원하며 7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9일 서울플라자호텔 4층에서 종교지도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불교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종교지도자협의회 상임대표)을 비롯해 7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국민들에게 공명선거 동참을 촉구했다.

7대 종교 지도자 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한 자승 스님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중립을 지키며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민주정치 발전과 국민화합 위해 바르고 깨끗한 선거실현△국가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표 참여 △정당 후보자의 정책 공약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보기 △선거법 위반 행위 경계하고 지적하기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정당과 후보자에게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비방 흑색선전으로 국민 의사 왜곡하지 않기 △돈 선거 뿌리 뽑기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하기 등을 촉구했다.

선언문 낭독 후에는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를 통해 공명선거를 발원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홍재철 대표회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유교 최근덕 성균관장, 천도교 임운길 교령, 중앙선관위 김능환 위원장,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혜숙 기자**

조계종 내년도 예산 425억 원 확정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통과… 완결 사업에 중점 편성

불기2557(2012)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이 425억여 원으로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는 11월 7일 오전 10시 속개한 제192차 정기회에서 '불기 2557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오늘 확정된 종단 중앙종기기관 예산은 일반회계 227억 7천만여 원, 특별회계 197억 9천만여 원 등 총 425억여 원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10억여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올해 예산 기조에 대해 기획실장 능도 스님은 "33대 집행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쇄신과제 등 종결성이 있는 사업에 예산을 중점 배치했다"며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보조금과 인건비는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등회 등 종단 사업의 주무부서가 이관된 부분도 눈길을 끈다. 연등회는 총무부에서 문화부로, 종립 선원 지원은 교육원에서 총무부로, 군종교구는 총무부에서 포교원으로 주무부서가 이관됐다.

신중일 기자

"연등 철거 지시, 과도한 법 집행"

종평위, 경산시 등에 갓바위 연등 철거 비판 공문

경산시가 갓바위 부처님 옆 연등시설물을 불법으로 규정해 철거하라는 공문 지시를 내린 데 대해 불교계가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종평위)은 1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경상북도청, 경산시청에 비판 입장 공문을 전달했다.

종평위는 공문에서 "매년 설치해 왔던 연등 시설물을 돌연 불법으로 규정한 배경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관계기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종평위는 "상설구조물도 아닌 이 기둥을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법 해석이요, 행정조치"라며 "관계기관의 이런 결정과 조치는 국민의 자유로운 종교 행위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종평위는 "특정종교에 불리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다는 종교 편향 시비마저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부처님오신날 연등 설치까지 문제 삼는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신중일 기자

관련 기사 31면

914호 INDEX

종합 2·3
초기 경전 니까야 4부 완역
문화재관람료 신용카드 의무화
조계종 대선캠프에 정책 제안
목조문화재 방재 대책 해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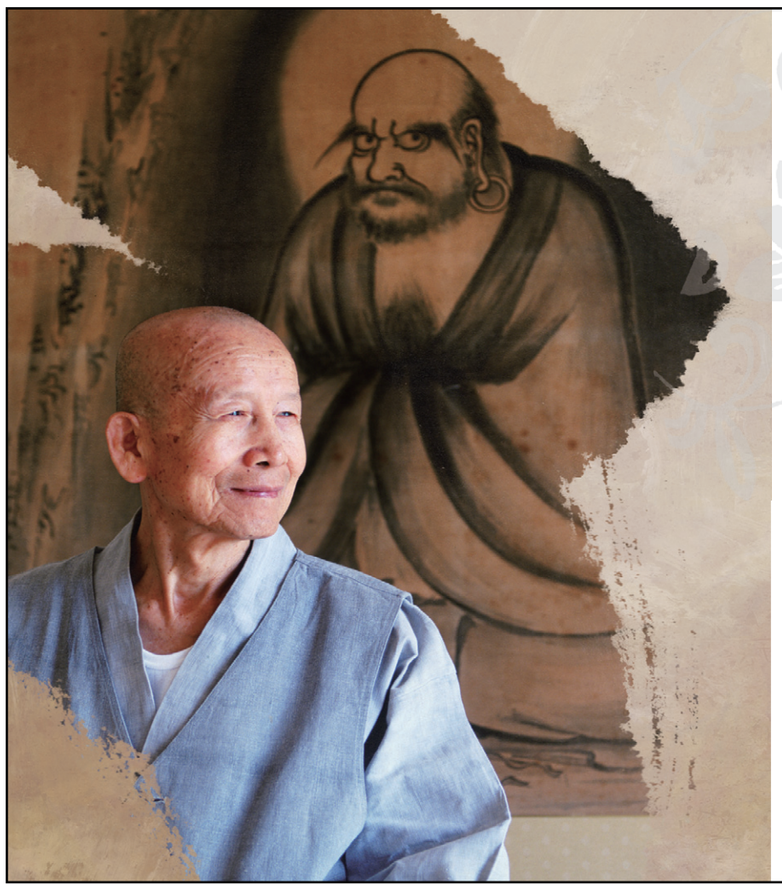
시방세계 5
정토회 만일결사 7700일 현장



나의 서원 나의 신행 16·17
명성 스님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서옹스님 탄신 100주년 참사람 결사법회

고불총림 백양사에서는 한국불교의 큰 어른이셨던
서옹큰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하여
참사람 결사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덕 큰스님들을 모시고
'참사람 운동'을 펼치셨던 서옹 큰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선(禪) 제일가람을 이어가고자 하는
백양사 대중들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행사에는 서옹스님의 유품과 사진을 전시하여,
큰스님의 수행자적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古佛叢林白羊寺 주지 진우

행사내용 : 서옹스님 탄신 100주년 참사람 결사법회
[서옹대종사 유품 및 사진전 - 백양사 우화루]

일 시 : 불기 2556(2012)년 11월 23일 오후 1시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양사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103호 중흥산성쌍사자석등



연꽃 위에 불 밝히시니

허 형 만

대자대비
중생의 어리석음이여
사바의 어둠이여 물러가라
그리하여 오직 부처님 광명만이
천상천하에 가득하여지이다
두 마리의 사자가
간절한 염원 합장하듯
서로 가슴을 맞대고 머리를 들어
연꽃위에 불 밝히시는구나
두 마리의 사자가
발뒤꿈치 치켜들고 까치발로
연꽃 위에 불 밝히시니
온 우주의 처음과 끝이여
대자대비
부처님 향기 꿈결 같구나
부처님 숨결 비단 같구나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허형만 시인은… 1945년 전남 순천 출생. 1973년 〈월간문학〉으로 등단. 시집 〈영혼의 눈〉, 〈첫차〉, 〈눈먼 사랑〉등.

초기경전 4부 니까야 한글 완역

초기불전硏, '맛지마 니까야' 마무리…18일 봉정법회

초기불전연구원(원장 대림)이 초기불교 경전인 〈맛지마 니까야〉를 한글 완역했다. 이번 완역으로 초기불전연구원은 부처님의 설법이 담긴 경장을 의미하는 4부 니까야를 전부 한글로 완역하게 됐다. 2002년부터 10년 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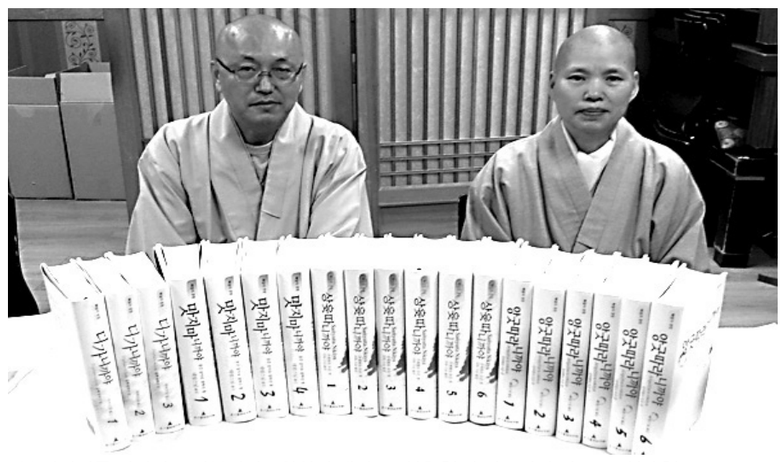
4부 니까야는 2011년 초기불교 경전 연구·번역자인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이 4부 니까야를 완역한 데 이은 두 번째다. 전재성 박사가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적인 해석을 가미한데 비해 초기불전연구원의 번역은 남방불교의 주석서를 모은 〈청정도론〉 번역 기준에 기반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맛지마 니까야〉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앙굿따라 니까야〉 번역을 완료한 대림 스님이 맡았으며 감수는 각묵 스님이 진행했다.

대림 스님은 11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맛지마 니까야〉는 수행에 대한 가르침이 많아 출가자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경 152개를 담고 있다. 수행에 관련된 만큼 자의 해석을 피하기 위해 많은 주석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맛지마 니까야〉에는 3100개의 주해가 달려있다. 이날 함께 자리한 각묵 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은 4부 니까야 완역에 대해 "범어원전에 대한 한국불교의 이해 수준을 전 세계적으로 드러낸 좋은 보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정도론' 기준 번역 특징
세밀한 주석…10년 걸려
한국불교 세계화 '기대'



4부 니까야를 완역한 초기불전연구원원장 대림 스님(우측)과 지도법사 각묵 스님(좌측)

각묵 스님은 〈디가 니까야〉(2006년)와 〈상윳따 니까야〉(2009년)를 완역한 바 있다.

초기불전연구원은 이번 완역을 기념해 11월 18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4부 니까야 완역 봉헌 법회'도 연다.

이날 법회에서 1부 행사에서는 각묵 스님이 '초기 불교는 한국 불교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하며 2부 행사에서는 도법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을 증명법사로 봉헌 의식이 봉행된다.

각묵 스님은 "초기 불교는 한국 불교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종손으로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불교 경전은 크게 생활규범을 담은 율장과 부처의 설법이 담긴 경장, 부처의 직계제자들이 설한 논장으로 나뉜다. 이중 경장은 '디가 니까야', '맛지마 니까야', '상윳따 니까야', '앙굿따라 니까야' 등으로 전해져 4부 니까야로 불린다.

초기불전연구원은 2017년까지 율장(위나야 삐따까)과 논장(아비담마 삐따까), 빠알리-한글 대사전·빠알리 술어 대사전 출간 작업 및 전자E북 편찬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 이모저모

문화재관람료 카드 결제 '의무화'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개정…호계원장 일면 스님 선출

앞으로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찰은 전자발권시스템과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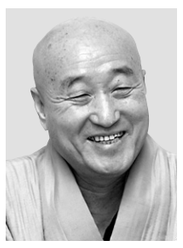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는 11월 6일 속개된 중앙종회에서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수정·의결했다.

쇄신 입법안인 사찰예산회계법 제25조 등의 내용을 반영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문화재구역입장권의 발행 및 관리는 총무원장이 인정하는 전자발권시스템을 이용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종무회의 의결로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 구역 입장료의 30% 예치금 사용 승인 심의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지난 10월 25일 법등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호계원장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선출됐다.

선출 직후 일면 스님〈사진〉은 "기분이 좋기도 하기만 한편으로는 많은 짐을 진 것 같다"며 "우리 종단에는 종정 스님을 비롯해 많은 원로가 계신다. 하루를 살아도 덤으로 살아간다는 입장이다. 아무런 욕심이 없다. 종단 안정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명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일면 스님은 1967년 10월 21일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제13대 중앙종회의원과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군종특별교구장 등 종단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

신중일 기자

변화하는 조계종 승가고시 정착 일로

1~4일 2, 3급 승가고시… 실천적 의제 반영

조계종 승가고시가 단순 지식에 대한 묻는 방식에서 불교의 현대적 구현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술하는 방식으로 출제 경향이 변화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1월 1일 2급 승가고시를, 11월 2~4일까지 3급 승가고시를 직지사에서 각각 개최했다.

교육원이 11월 8일 공개한 시행결과에 따르면 2급 승가고시에는 비구 56명, 비구니 54명 등 총 110명이 응시했으며, 이중 85명이 합격했다. 3급 승가고시에는 비구 388명, 비구니 214명 등 총 602명이 응시해 509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각각 77%와 85%로, 지난해보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고시의 대표적인 변화는 논술 문제다. 2급은 교학과 전법포교, 사찰운영 중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치러야 하나 이들의 출제 경향이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닌 현대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묻는 방식으로 변했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이제는 사회적 회향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만큼 불교관과 실천 의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문제 출제에 변화를 줬다"고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승불교 이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조계종, '대승불교' 주제 세미나

동아시아불교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 대승불교에 대한 교수 방안과 실천 방향을 점검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1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대승불교, 어떻게 가르치고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승불교 어떻게 가르치고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자성 과쇄신 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이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대승불교와 오늘의 승가교육'(前 교육부장), '대승경전이 선불교에 미친 영향'(이덕진 창원문성대학 교수), '현대사회에서 구현해야 할 대승불교의 모습'(조성택 고려대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중앙승가대 수행관장 승원 스님,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종호 스님, 前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이 참석한다.

교육원은 "선을 중심으로 제종을 포섭하는 조계종의 입장에서 대승불교와 선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 만든 자리"라며 "대승불교적 지향의 실천을 고민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대 한 불 교 원 효 종

규정원법일부개정

본종의 규정원법의 일부 규정이 종단의 현실에 부응하지 않고 종권분열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타 기관에 비하여 규정원에 너무 많은 권한이 배분되어 있으며, 불필요한 반복규정 및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 아울러 개정 규정원법과 관련되는 종헌 종법의 규정을 개정법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한 종헌 및 종법은 규정원법의 부칙으로 일괄 개정한다.
규정원을 규정부로 격하하고 규정부는 총무원의 부서로써 개정한다.
본 결의는 불기 2556년 9월 24일 2556년 제 2 차 중앙종회에서 결의되었음을 선포한다.

총무원장 향운
중앙종회의장 원봉 중앙종회법규위원장 지호 중앙종회법규위원 진산. 지상. 상경. 운영

원로원 구성

원 로 원 장 안상수(정광) 원로부원장 이영구(법진)
원 로 위 원 김영구(석붉) 원 로 위 원 지홍림(효산)
원 로 위 원 이동준(진덕) 원 로 위 원 김옥자(옥운)

원로원을 위와 같이 구성함

불기 2556(2012) 11월 1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김윤철(향운)

선 계 문

• 성 명 : 임 우 섭 법 명 : 성 암 승적번호: 1106-10926

상기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규정원법 제4장(징계)
제16조2항 총무원장 또는 중요교직자에 대하여 모욕적 행위가 있는자.
제16조4항 도당을 행하여 종단의 화합을 파하는자. 체탈도첩의 징계처벌의 조치에 처한다.

----- 징 계 사 유 -----
1. 규정대상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만 있을 뿐 징계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총무원장에게 일체 보고도 없이 규정대상자에게 징계를 결정함 징계의 결정권은 총무원장의 전권사항으로 총무원장이 아닌자가 총무원장의 권한을 행사함.
2. 징계조사를 할 때에는 규정대상자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조사도 아니하고 징계를 결정함.
3. 징계를 행하는것은 총무원장의 권한이나 이 규정을 위배하여 규정부장의 권한으로 징계결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종도들에게 발송함.
4. 종도를 임의로 규정대상자로 지정한 뒤, 조사절차도 거치지 않고 총무원장 에게 보고도 없이 불교신문에 종도에 대한 신상과 징계결정되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종도들에 대한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함.
5. 총무원장은 본 종단의 대표권자로서 종무집행에 대하여 총괄책임자로써, 규정부장이 종도들을 대상으로 무단징계행위등에 의해 그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직위해제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허위광고, 징계결정통보서 등을 발송하는 등 총무원장과 종단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 종단 최고 책임자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행위를 함.

불기 2556(2012)년 10월 23일
대 한 불 교 원 효 종
총무원장 김 윤 철(향 운)

• 성 명 : 김 경 암 법 명 : 행 길 승적번호: 1106-10955-1
• 성 명 : 최 영 화 법 명 : 마 명 승적번호 : 1905-10854
• 성 명 : 김 두 환 법 명 : 일 륜 승적번호: 1705-10641

상기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규정원법 제4장(징계)
제16조2항 총무원장 또는 중요교직자에 대하여 모욕적 행위가 있는자.
제16조4항 도당을 행하여 종단의 화합을 파하는자. 체탈도첩의 징계처벌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나, 위 조항으로 19조에 준하여 6개월의 종도 분한상의 일체권리를 정지하는 조치에 처한다.

----- 징 계 사 유 -----
1. 규정대상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만 있을 뿐 징계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총무원장에게 일체 보고도 없이 규정대상자에게 징계를 결정함 징계의 결정권은 총무원장의 전권사항으로 총무원장이 아닌자가 총무원장의 권한을 행사함.
2. 징계조사를 할 때에는 규정대상자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조사도 아니하고 징계를 결정함.
3. 징계를 행하는것은 총무원장의 권한이나 이 규정을 위배하여 규정부장의 권한으로 징계결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종도들에게 발송함.
4. 종도를 임의로 규정대상자로 지정한 뒤, 조사절차도 거치지 않고 총무원장에게 보고도 없이 불교신문에 종도에 대한 신상과 징계결정되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종도들에 대한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함.
5. 총무원장은 본 종단의 대표권자로서 종무집행에 대하여 총괄책임자로써, 규정부장이 종도들을 대상으로 무단징계행위등에 의해 그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직위해제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허위광고, 징계결정통보서 등을 발송하는 등 총무원장과 종단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 종단 최고 책임자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행위를 함.

불기 2556(2012)년 10월 23일
대 한 불 교 원 효 종
총무원장 김 윤 철(향 운)

• 성 명 : 이 훈 구 법 명 : 남 수 승적번호: 1509-11035

상기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규정원법 제4장(징계)
제16조2항 총무원장 또는 중요교직자에 대하여 모욕적 행위가 있는자.
제16조4항 도당을 행하여 종단의 화합을 파하는자. 체탈도첩의 징계처벌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나,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위 조항으로 20조에 준하여 6개월의 근신 조치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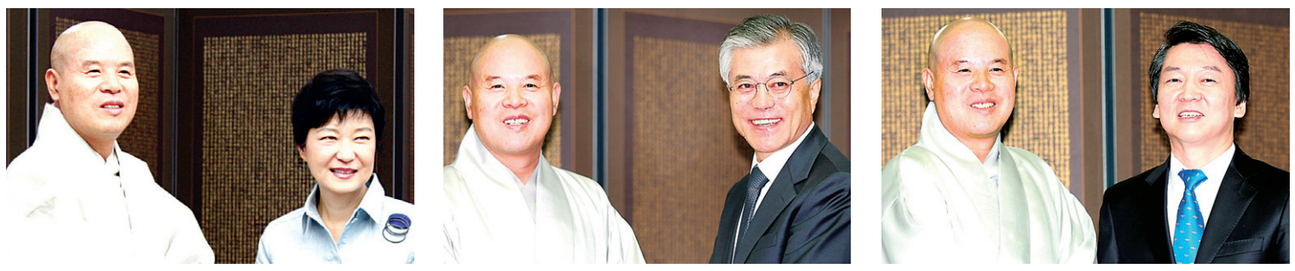
----- 징 계 사 유 -----
1. 규정대상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만 있을 뿐 징계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총무원장에게 일체 보고도 없이 규정대상자에게 징계를 결정함 징계의 결정권은 총무원장의 전권사항으로 총무원장이 아닌자가 총무원장의 권한을 행사함.
2. 징계조사를 할 때에는 규정대상자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조사도 아니하고 징계를 결정함.
3. 징계를 행하는것은 총무원장의 권한이나 이 규정을 위배하여 규정부장의 권한으로 징계결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종도들에게 발송함.
4. 종도를 임의로 규정대상자로 지정한 뒤, 조사절차도 거치지 않고 총무원장에게 보고도 없이 불교신문에 종도에 대한 신상과 징계결정되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종도들에 대한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함.
5. 총무원장은 본 종단의 대표권자로서 종무집행에 대하여 총괄책임자로써, 규정부장이 종도들을 대상으로 무단징계행위등에 의해 그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직위해제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허위광고, 징계결정통보서 등을 발송하는 등 총무원장과 종단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 종단 최고 책임자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행위를 함.

불기 2556(2012)년 10월 23일
대 한 불 교 원 효 종
총무원장 김 윤 철(향 운)

“전통사찰·역사 가치에 신경써달라”

조계종 총무원, 대선 8대 정책 제안

1. 전통사찰 종합 정책 수립
2.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가치 존중 정책
3. ‘10.27법난’ 관련 법 개정
4. 다종교, 사회적 약자 차별 방지법 제정
5. 조계사 주변 문화관광지구 조성
6. 남북 화해 협력과 지속적 남북불교 교류
7.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해소 정책 마련
8. 생태 보전, 생명평화 정책 시행



제18대 대통령선거를 한달여 앞둔 가운데 대선 유력 후보들의 불교계 예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가장 먼저 지난 9월 3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찾았으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1월 6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11월 1일 각각 예방했다.

전통문화 증진에 초점
약자 위한 법안 제정도
8개 정책 의제 제시해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전통문화 인식 개선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 제개정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서를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에 최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의 정책 제안서는 총 8개의 정책 의제가 제시됐다. 이 안에는 전통문화 인식 개선부터 사회적 약자, 생태 보전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불교계의 정책 의견이 담겨져 있다.

내장사 대웅전 전소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전통사찰 종합 정책에 대해 조계종은 전통사찰 전수 조사와 정책연구, 국립공원 내 사찰 소유 토지 사용 및 기여도 보상,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통합 보존하기 위한 전담 기구 신설 등을 세부 사업으로 내놨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전통사찰은 대부분 ‘보수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산발적인 정책 집행이 돼 왔다”며 “전통사찰 지정과 보존은 물론, 다양한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통문화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역사교육 강화, 불교문화재 보존센터 설립, 불교문화콘텐츠 포털 구축, 남한산성·북한산성 호국성역화, 융건릉 일대 효역사문화공원 조성 등을 제안했다.

10.27법난에 대해서는 시효 삭제, 피해 범위 확대 등을 법 개정에 다룰 것을 주장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증오범죄법과 종교평화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조계종은 “다종교사회에서 일부 종교인들이 이웃 종교를 폄훼하거나 공격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상식선에서 상호를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사 문화관광지구 조성’에 대해서는 주변 정비를 통한 서울 문화벨트 조성을 주장했다. 조계종은 “한국불교 총본산인 조계사는 전통사찰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최적의 위치에 있다”며 “문화관광지구 조성 시 서울 문화벨트 구축사업, 전통문화체험을 위한 정비와 편의 시설 구축 등 주변 지역 활성화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조계종은 △북한 불교문화재 전수조사 △금강산 4대 사찰 보수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회복지센터 운영 △불자 이주 노동자를 위한 복지센터 설립 △사회 통합을 위한 ‘(가칭)화해와 평화위원회’ 국가 기구 설치 △사찰 및 사하촌 에너지 현황 조사 △저탄소 에너지 자립형 녹색마을 만들기 참여 등을 각 분야 세부 정책으로 제시했다.

조계종은 “이번 정책 제안서는 말 그대로 제안으로 각 후보 캠프에서 불교와 전통문화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제작한 것”이라며 “이대로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신중일 기자**

18대 대선 캠프 불교 조직 결성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후보자들의 1000만 불심을 잡기 위한 조직 결성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조직을 구성한 곳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다. 새누리당은 10월25일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 불교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불교본부장에는 정치권 내 불교통으로 꼽히는 주호영 의원이 임명됐으며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정무위원장 김정훈, 행안위원장 김태환, 외통위원장 안홍준, 국방위원장 유승민 의원 등이 동참했다. 실무진에는 정병국, 백승진, 강태진, 김원곤 씨 등이 참여한다.

민주통합당은 11월 12일 불교특위 발대식을 열었다. 위원장에는 강창일 의원, 고문에는 선진규, 이용희 씨, 상임부위원장에는 장운 담쟁이도반 대표, 이상곤, 이남재 씨 등이 참여한다.

안철수 진심캠프는 불교조직인 미래불교포럼을 11월 8일 출범했다. 대표로는 임동주 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정웅정, 김관태, 김대실, 오정림, 황의수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日 목조문화재 방염관리는?

여수 향일암 전소에 이어 이번 내소사 화재는 목조문화재 방재관리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대부분의 문화재가 목재로 만들어져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목조문화재를 화재로부터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와 같이 목조문화재가 많은 일본은 1965년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해 사찰 내부에 방재시스템을 설치했다. 조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화재 감지 경보설비 및 소화전 설비 △방수총 △물분무소화설비 △화재대비 응급수,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특히 분수와 같은 스프링클러로 감싸거나 민감한 광센서를 장착해 화재발생과 동시에 소화활동을 하는 등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갖추고 있다.

2004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와카야마현 고야산 일대에 위치한 사원들은 건물의 크기에 따라 각기 다른 방재시설을 갖추고 있다.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인 ‘미네지(峰寺)’ 사원에는 물커튼 시스템이 마련돼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곳곳에 설치된 노즐이 물을 뿜어내 건물 건체를 에워싼다. 열 감지기만으로는 건물 외부에서 발생하는 화재에는 대처가 곤란하다고 판단, 광센서를 이용해 약 0.3㎡의 불꽃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 또 물대포로 직접 문화재로 쏠 경우 막대한 손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방수총을 방수 대상 건물에서 일정 거리 떨어져 설치하는 등 섬세한 예방책을 펼치고 있다.

물커튼 등 맞춤형 방재 시스템
해체보전 작업 통해 역량 강화

역시 일본 국보인 ‘부동당(不動堂)’에는 지붕에서 직접 물을 분사하는 시설을 장착했다. 또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건축 문화재인 어영당에는 건물 주변에 건물 형태를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특징은 각 건물 특성에 맞는 방재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강력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일본이지만 문화재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요 원인은 ‘방화’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도 프랑스 퐁피두센터처럼 목조건축물 지역에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품을 휴대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는 인적 역량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해체를 통해 목조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문화재의 경우 해체보전 작업은 시행 이후 시행자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는 해당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느냐로 귀결된다.

건물을 완전히 분리 해체한 뒤 보수 및 방염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처리 후 재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만약의 사태에 과거의 것과 같은 것을 만들어 낼 기술자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각 부재는 과거 수리한 목수들의 기명과 함께 부재 교체 날짜 등이 기입돼 있다.

윤명오 한국화재소방학회장(서울시립대 교수)은 “방재시스템과 함께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중요하다”며 “방염 처리, 문화재 보수 등에 승가에서도 전문가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일본 고야산 미네지는 땅속 노즐 수막 시스템을 통해 전각을 화마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1월 7일 쌍용차 농성장을 찾아 단식 농성 중인 김정우 지부장(사진 오른쪽)을 위로했다.

조계종, 쌍용차 문제 해결위한 행보 연이어

조계종이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1월 7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9일째 단식농성 중인 김정우 쌍용차 노조지부장을 위로하고 관계자들과 환담했다.

자승스님은 “의지 전달을 위한 단식도 좋지만 몸을 회복하셔서 다른 모습으로 항의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재가종무원들도 11월 8일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발원하며 108배 정진에 동참했다. **신중일 기자**

금강산 관광재개 범국민대회 열린다

11월 17일 강원도 고성군서

금강산관광재개범국민운동본부가 11월 17일 금강산관광재개 촉구를 위한 범국민 대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소속단체 회원 5백 여명이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강원도 고성군을 방문 관광재개를 촉구하고 주민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갖는다.

행사 일정은 오전 개막식, 고성군 남측 CIQ(남북출입사무소)와 통일 전망대 방문, 거진시장 둘러보기, 주민들과 함께하는 금강산 노래자랑 등으로 꾸며진다.

불교계에서는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지홍스님, 박재산 국장 등이 참여한다. 박재산 국장은 “이날 행사는 지난 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처음 시작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성군 인근의 주민들을 위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숙 기자**

정토회, 주간동아에 ‘손배소’

정토회(지도법사 법륜)가 주간동아를 대상으로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토회는 주간동아의 ‘믿기 힘든 법륜 스님의 행적’ 기사를 쓴 해당기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정정보도 및 판매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법원에 신청했다.

주간동아는 11월 5일 861호에 ‘법륜스님 믿기 힘든 행적’이라는 제목으로 5면에 걸쳐 법륜스님과 정토회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이에 대해 정토회는 “보도된 내용은 17년 전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이미 정정보도 결정을 받은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동트는 새벽처럼 진리의 등불을 환희 밝히는!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창립 제6주년 기념 및 회장 이·취임식

上求菩提下化衆生(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불교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중심인 부산지역 불교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이 창립 6주년 및 회장 이취임식을 맞아 불교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부대중을 모시고 기념행사를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일 시

* 일 시 : 2012년 11월 20일(화) 오후 6시
* 장 소 :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문 의_ 051)334-0108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512-3 정산빌딩 9층

• 특별고문 : 허남식, 안영욱
• 고 문 : 김재운, 김재진, 조효식, 최칠관, 설동근, 박수관, 이윤희, 허인구, 박민식, 김영주
• 자문위원 : 김석조, 김종해, 조성제, 박흥대, 박수곤, 이명관, 김기춘, 차승민, 심수화, 황성구, 김수병
• 상임고문 : 박수관((주)영창신기술 대표이사,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 직전회장 : 허인구(학교법인 동룡학원이사장,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 회 장 : 박순곤(부산불교방송 사장)
• 수석부회장 : 김종백((주)가보 대표이사,부산상공회의소 감사)
• 부 회 장 : 김수현, 신재철, 이상수, 이시영, 장남인, 장인화, 최삼섭, 김승영, 양재생, 장석준, 최성식, 김기재
• 감 사 : 노종헌, 박형주
• 사무총장 : 신상해
• 재무총장 : 박차수

• 총무이사 : 장병주 • 기획이사 : 안천일 • 친목이사 : 공정근
• 사업이사 : 정연식 • 조직이사 : 이현호 • 홍보이사 : 이현수
• 상임이사 : 강갑균 강선태 권기우 김동열 김상훈 김선오 김선일 김성규 김윤곤 김영한 김장현 김종한 박상호 박성봉 박효근 박홍근 배상진 배영호 손종현 안병호 윤선병 이상필 이재동 이종우 임정웅 장준업 정원종 조길제 최익두 최용태 하만경 하문원 허대영 허성하
• 일반이사 : 강인용 강수구 견성필 공영석 김민권 김승웅 김인석 김정선 박창근 배도정 성낙구 손태석 신영만 신태용 안경수 안덕우 안호광 이길문 이남현 이병준 이상락 이학우 임성준 우보현 전영일 정종원 정홍섭 조정현 차득근 최강수 최금식 최대경 최상곤 최주덕 황대성 황희성 정판희

불기 2556년 11월 좋은날

사단법인 부산불교지도자 포럼 회 장 허 인 구
신임회장 박 순 곤

일 주 문



미얀마 광명초교 개원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11월 8일 미얀마 '아난다미따 광명초등학교' 준공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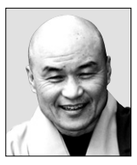
지장보살점안식

안양교도소 불교위원회 위원장 현성 스님(도선사 조실)은 10월 29일 안양교도소에 지장보살상 점안식을 열고 재소자 찬불독경대회를 개최했다.



성준 스님 추모다례제

속초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11월 7일 신흥사 설법전에서 성준 스님 35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했다.



봉은사 음력초하루 법회

순천 송광사 前주지 영조 스님은 11월 14일 음력 초하루를 맞아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법문한다.



조선왕실의궤 환국 1주년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은 11월 17일 서울 조계사에서 조선왕실의궤 환국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사랑의연탄배달 봉사활동

김희옥 동국참사람봉사단 단장(동국대 총장)은 11월 10일 중구일대에서 동국대 학생들과 사랑의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민주열사 천도재

우희종 정의평화불교연대 대표는 11월 16일 서울 달마사에서 민주열사 천도재를 봉행한다.

"정성을 다해 사회복지 귀감 될 것"

수덕사노인요양원 개원한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



"지역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년을 보살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사회복지에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수덕사(주지 지운)가 10월 31일 수덕사노인요양원을 개원하고 지역복지사업에 적극 뛰어들었다.

노인요양원을 설립한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이날 "가족이 있어도 여건상 어려움으로 모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노년을 따듯하게 보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적인 보살핌이 가능한 요양원 문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수덕사의 이번 노인요양원 개원은 노인복지에 대한 지역 수요가 급증하는데 따른 것이다. 수덕사는 이미 2006년부터 예산군이 설립한 예산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예산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3200명의 회원이 가입해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 저소득, 독거노인 등 600여 명의 지원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수덕사의 노인요양원 기공식은 부지 선정문제로 난항을 겪은 끝에 이뤄져 더욱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예산군 덕산 광천리에 자리한 수덕사 요양원은 2010년 12월 착공한 이래 총 2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부지 3641㎡, 연면적 1493㎡, 건축면적 720㎡, 지상 2층 규모로 완공됐다. 1층에는 사무실을 비롯해 물리치료실, 요양보호사실, 간호사실 등이 있으며 2층에는 생활실 11개와 휴게실 등이 마련돼있다. 60명 정원에 현재 43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지운 스님은 "수덕사의 복지활동 참여는 불교위상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요양원 개원을 비롯한 본격적인 복지사업 전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개원식에서 지운 스님은 수덕사와 각 말사에서 모금한 '나누면 복돼지' 저금통을 수덕사노인요양원에 전달했으며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청, 점심공양과 경로잔치를 베풀었다.

스님은 끝으로 "사명감을 갖고 사회복지에 귀감이 되는 요양원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현실 문제에 적극적인 불교 돼야"

손혁재 교수, '불교와 바른 정치' 강연서 강조



과연 불자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 불교 발전에 바람직한 것인가? 18대 대선에서 불교는 적극적성을 갖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재가연대 '참여불교 리더스 포럼'에서 '불교와 바른 정치-2012년 정치 대통령 선거 그리고 불교'를 주제로 강의했다.

손 교수는 "18대 대선은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는 주춧돌 선거다. 정치의 틀 자체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21세기를 이끌어갈 바른 지도자를 선택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손 교수는 불교가 정치를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소극적 입장에서 대선은 세속의 일이라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 입장은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이 결정되고 불교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손 씨는 하지만 불자 대통령이 탄생해야 한다든가 불교 공약이 훌륭한 후보를 무조건 지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손 교수는 이제 우리 불교가 산중 불교 혹은 권력과 결탁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교의 교리가 고통 속 중생을 구제하는데 있듯 사회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며 현실참여의 중요성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한마음으로 포교 원력 다짐"

제24회 포교대상 시상식 개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1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제24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장에서는 포교대상 수상자인 화성 신흥사 주지 성일 스님, 공로상 수상자인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 직지사 총무 장명 스님, 경주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 이윤희 범어사 신도회장 등 4인, 원력상 수상자인 대전 용화사 주지 영진 스님,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안직수 수원불교청년회장 등 11명과 500여 사부대중이 모여 포교원력을 다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포교대상 시상식을 계기로 한국불교 중흥 계기를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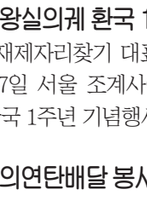
"자승 스님, 다람살라 방문해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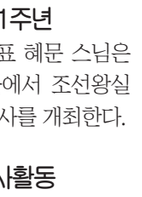
티베트 종교문화성 장관, 자승 스님에게 요청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망명정부 산하 종교문화성 빼마친조르(68) 장관이 11월 8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티베트 망명정부 인사로는 최초 방문이다. 전주에서 개최 중인 2012세계순례대회 참석 차 입국한 빼마친조르 장관은 자승 스님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자승 스님의 다람살라 방문을 요청했다. **노덕현 기자**

제2회 반야학술상 수상자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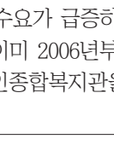

김명우 박사


구자상 박사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공동회장 곽만연·박문현 교수)와 반야학술운영위원회(위원장 지안 스님)는 11월 7일 제2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동아대 교양교육원 김명우 박사와 창원대 철학과 강사 구자상 박사를 선정했다. 김명우 박사는 유식불교 입문서인 '마음공부 첫걸음'을 출간해 저역상을, 구자상 박사는 논문 '정토론주에 나타난 신(信)의 의미 고찰'로 논문상을 받게 됐다. 시상식은 12월 2일 오전 10시 양산 통도사 반야암에서 열린다.

한편,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공동회장 곽만연·박문현)는 11월 24일 오후 1시 부산 안국선원에서 '동아시아 불교와 화엄사상'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노덕현 기자**

목정배 교수의 병상일기



나는 부처님처럼 '걸음' 멈출 수 없다

원로불교학자 미천 목정배 교수가 병마를 다스리고 있다. 지난 여름 위경련으로 응급실에 다녀왔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9월 경 허리가 많이 아파 척추전문의를 찾아 치료했고 침도 맞았다. 10월 2일 일어서지 못하자 종합병원에 입원, 각종 검사를 받았다. '신경성 내분비 종양'이란 병명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상계백병원 입원실을 '백원정사'라 이름한 목 교수는 간호사가 체크하러 오는 새벽 4시에 기상, 참선에 들었다. 평생 부처님 가르침 속에 불교학 연구와 발전에 기여한 목 교수는 투병이 아니라 자신의 병을 들여다보고 다스리고 있다.

목 교수는 그 느낌을 '법사회' 회원들과 트위터로 나누고 있다. 본지가 그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는 불자들의 마음공부를 돕고, 나아가 목 교수의 빠른 쾌유를 위해 마음을 모으자는 뜻이다. 목 교수는 11월 5일 퇴원, 자택 미천산방에서 통원 치료를 하고있다. **편집자 주**

10월 2일 | 가을하늘이 해맑게 드높다. 수정구슬이 비추이듯 훤하니, 우리 마음도 가없이 씻겨간다.

10월 3일 | 북한산이 보이네. 내가 누워 있는 침대에서, 푸르른 저 산 빛처럼 건강한 몸으로, 만장봉 굳은 바위가 내 마음이고 싶네.

10월 4일 | 긴 밤 자리에 누워 어둠이 짙어가는 공간에, 그냥 남아 있는 기도탑에, 연꽃 향을 올리고 절하고 싶다.

잠이 달갑게 오지 않는다. 허리 허벅지가 절리어 딩굴잠을 잤는지, 몸이 개운치 않다. 어떻게 병명이 밝혀져 치료가 시작되면 깊은 잠이 올가.

10월 6일 | 다녀가는 분도 많다. 고마운 마음이 가슴 깊이깊이 자리 하누나. 내 다시 나으면 그들 마음의 바라밀로, 살아가야 하리라.

상계 백병원 병상에서 법사회 회원들을 위해 서예를 하고 있는 목교수

내 일생에 있어서 세제불교가 참으로 헌신할 일이라, 믿고 쉬지 않고 달려 왔다. 몸이 아파도 이겨 극복해 헤쳐 나왔다. 그리고 일어나, 또 행진 행진이었다. 지금 머뭇거림이 있다 해도, 나는 부처님처럼 그 걸음을 멈출 수 없다.

제18대 대통령선거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바르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선거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후보자들 중 누가 더 적임자인지 선거를 통해 선택하는 것은 국가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선거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가 국민이 희망과 꿈을 갖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인 선거로 치러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중립을 지키며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국민께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

첫째, 민주정치 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 바르고 깨끗한 선거실현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둘째, 유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국가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합시다.

셋째, 올바른 선택을 위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보아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를 선택합시다.

넷째,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눈 감아 주지 말고 서로 경계하고 지적하여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서로 도와줍시다.

그리고 정당과 후보자는,

첫째,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비방·흑색선전으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합시다.

둘째, 선거 때마다 발생되고 있는 돈 선거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셋째,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여 유권자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합시다.

2012. 11. 9.

사)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공 동 대 표 홍 재 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공 동 대 표 김 희 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주교)
공 동 대 표 남 궁 성 (원불교 교정원장)
공 동 대 표 최 근 덕 (유교 성균관장)
공 동 대 표 임 운 길 (천도교 교령)
공 동 대 표 한 양 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정토회 만일결사가 7700일에 접어들었다. 정토회는 93년 10000일을 목표로 결사를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4일 원광대 체육관에서 열린 입재식 장면.


신규 입재자들이 법사들로부터 염주를 선물 받고 있다.


이번 만일결사 회향 및 입재식에는 2천 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홍보 부스를 관람하고 있는 참가자.

‘나’ 돌이켜 참회하면 세상도 밝아지죠

정토회 ‘만일결사’ 7700일 입재…4일 익산 원광대서

#배우 차종호 씨의 삶은 고달팠다. 오디션을 봐도 합격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극단 선배에게는 억울한 일로 누명을 쓰기도 했다. 그에게 세상은 온통 배신과 불신의 도가니였다. 그러던 어느날 차 씨는 불법을 알게 됐고 기도를 시작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고 108배 기도를 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단역 배우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는다. 작은 역할이라도 들어오면 감사히 기꺼이 최선을 다해 일한다. 또, 감독들에게 연락이 없어도 초조해하지 않는다. 마음 졸이며 에너지를 낭비하느니 그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며 잘 쓰이는 곳을 찾아다닌다. 이제 그는 단역 배우 차종호를 넘어 세상에 잘 쓰이는 사람 차종호가 되어 있었다.

#주부 김명희 씨(가명)는 권위적인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 가정 살림 하나하나에 참견하며 잔소리를 하는 남편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더 이상 그와는 살 수 없다며 이혼을 결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4년을 넘게 이어온 기도 덕분이다. 나를 낮추고 남편을 이해하니 세상이 달라졌다. 이제 남을 탓하고 원망하기 보다는 모든 문제를 나에게 돌이켜 참회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됐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남편도 함께 수행을 시작했다. 이제 둘은 도반이 되어 기도하고 봉사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정토회 만일결사 수행자 ‘정토행자’라는 점이다. 정토행자는 매일 아침 참회문 독송-108배기도-10분명상-경전읽기를 한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일 1선행 1000원 이상의 보시를 통해 세상의 나눔을 실천한다. 또 이 기도는 개인의 행복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세상에 회향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만일결사는 정토회를 이끄는 핵심 프로그램이다. 개인의 변화를 통해 사회를 이끌고자 하는 정토회 만일결사가 7천 7백일에 접어들었다. 10000일을 목표로 지난 93년 시작된 기도는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이후 만일을 1000일 단위로 나누고 다시 이를 100일로 쪼개서 입재와 회향을 한다. 중요한 것은 그 단위를 어떻게 나누든 간에 이 기도는 30년 10000일을 목표로 하며 하루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11월 4일 전북 익산 원광대 체육관에서 열린 만일결사 회향 및 입재식에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모인 2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비오는 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에서 모여든 정토행자들은 행사장 입구로 들어서며 도반들과 인사를 나누며 기쁜 표정을 지었다.

행사는 오전 회향식, 오후 입재식으로 크게 나뉜다. 100일마다 한번 씩 모여 수행을 점검하고 새로운 100일을 약속하는 자리가 바로 만일결사다.

회향식이 시작됐다. 천수경 봉독 후 전국 지역 법당에서 모인 도반들을 소개하고 지난 100일간 정토회 및 산하 단체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북한에 밀가루 500톤을 지원한 국제구호단체 JTS, 현재 300강을 목표로 즉문즉설을 진행중인 평화재단의 희망세상 만들기와 미주 12회 희망콘서트, 가을불교대 졸업식 등의 소식이 소개됐다.

이후 만일결사자의 수행담 발표가 이어졌다. 수행담 발표는 그동안 수행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변화를 발표하는 시간이다. 특히, 김영순 보살(가명)의 수행담은 감동적이었다. 그녀는 기도를 통해 남편과 딸을 이해하고 과거 부모님을 원망했던 자신, 아직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현재의 모습을 돌아봤다고 했다. 김보살이 수행담을 읽는 동안 참석자들은 눈물을 글썽였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르지만 그녀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는듯했고 그 애절한 기도가 남의 일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93년 만일 정진 발원하며 시작
100일마다 입재 회향 ‘수행점검’

이에 대해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우리는 윤회의 사슬에 엮여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부처님 법 만나서 스스로 돌아보고 부모를 원망한 시간을 뉘우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기도를 해서 천금을 받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부처님 법 만나 한 생각 일으키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그것이 곧 가피다”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회향법문을 통해 늘 기도 정진하며 자신을 돌아볼 것을 강조했다.

“어떤 사람이 황야에서 코끼리를 만났어요. 이를 피하려다 줄을 잡고 우물 안으로 들어가니 다행이다 싶었겠죠. 그런데 아래를 내려다보니 독사가 있고 위로는 흰쥐 검은 쥐가 자기가 잡은 줄을 긁어 먹고 있는 거예요.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위쪽에서 벌집이 있어 꿀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 달콤한 꿀이 입 안으로 들어가니 잠시 공포를 잊는 거죠. 우리네 삶도 이와 같습니다. 이 달콤함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눈을 탁 뜨면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누가 독사 쥐 코끼리 이런 거 잡아주기를 원하면 안 돼요. 꿈에서 깨어나면 돼요”

108배와 명상 등 정진 다짐
개인변화가 사회변화 이끌어

스님은 세상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없으며 스스로 수행정진해서 괴로움을 없애야 한다고 전한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어두운 길에 횃불을 본 것처럼 그렇게 법을 기준삼아 스스로 수행정진하면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매일 매일의 정진을 통해 내 인생의 희망이 되어 스스로 행복해야 되고 나의 행복에 그치지 말고 불법을 이웃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의 정신을 되살려 세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회향 법문이 끝나자 포살법회를 통해 100일 동안의 수행을 점검하며 오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12시 30분. 이제 각자 준비해 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오랜만에 본 도반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다.

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행사장 주변 입구는 정토회 산하 단체인 JTS, 정토수련원, 평화재단 등이 각자 자신들의 사업을 설명하는 부스를 마련했다. 비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소속 단체 봉사자들은 자신들의 활동 사항을 설명하며 동참을 구했다.

그렇게 오후 2시가 되자 215명의 신규 입재자가 새롭게 정진을 다짐하는 입재식을 가졌다. 입재자들은 매일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늘 이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한 후 법사들로부터 염주를 선물 받았다.

스님은 입재 법문을 통해 “지금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지나간 삶의 업, 카르마다. 내가 업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참자유를 얻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업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 매일 매일 기도 정진하자. 진정한 자유는 자기의 업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며 기도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통일을 염원하는 정토수련원 100일 출가 행자들의 노래 공연을 끝으로 일정은 마무리됐다. 정토행자들은 이제 다시 100일을 약속하며 각자 받은 수행일지와 경전 독송집을 안고 집으로 향했다.

4년째 수행중인 정여진 씨는 “일요일 새벽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오는 일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내일 출근이 두렵거나 피곤해서 (만일결사에) 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늘 여기에 오면 새로운 힘을 얻고 정진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에 된다. 나를 낮추는 참회 기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좀더 세상에 잘 쓰이는 삶을 발원한다. 수행도 발원도 모든 게 마음 먹은 대로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노력하는 삶을 살 수는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기도를 멈출 수 없다”며 소감을 전했다.

익산 원광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100일마다 새롭게 받는 정토회 수행일지와 경전. 수행은 매일 아침 새벽 5시 기상-참회문 낭독-108배-10분 명상-경전독송을 원칙으로 한다.

www.minjoksa.org

경전 강의시리즈 출간!

그동안 수많은 불자님들의 염원이었던 본격적인 강의 교재

경전강의시리즈는 다른 책과 다릅니다.
1. 대학승 · 대강백 스님들의 경전 강의 내용을 한 권의 책에 온전히 담아냈습니다.
2. 경전 원문과 그 독음, 번역, 강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어려운 한자를 골라내어, 그 독음과 뜻을 원문 바로 옆에 달았습니다.
4. 경전 강의를 들으며 직접 필기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충분합니다.
5. 한 권만 있으면 다른 보충 교재는 필요 없습니다.
6. 경전 강의를 하려는 선생님께, 경전 강의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 모두에게 교재용으로 적합합니다.
7. 실양장제책을 하여 360°로 짜악 펼칠 수 있습니다.

교재 01
금강경
깨지지 않는 법
472쪽 | 25,000원

대학승이신 성본스님의 금강경 강의!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파괴되지 않는 견고한 반야의 지혜로 일체의 중생심을 끊어버리고 타파하는 경전이다. 성본스님은 절망과 무기력에 지친 현대인의 괴로움을 달래줄 긍정의 힘을 금강경에서 찾고 있다.

교재 02
유마경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624쪽 | 28,000원

대강백이신 무비스님의 유마경 강의!
유마경은 출가 중심의 편협하고 왜곡된 불교를 철저하게 비판하여 대승불교의 참다운 뜻을 밝히고 있다. 무비스님은 갖가지 고민과 불행 속에서 헤엄치는 현대인의 아픔을 보듬어 공감하는 힘을 유마경에서 찾고 있다.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 2404 Fax. 02)739-7565 이메일. minjoksa@cho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왕초보 한문 박사 되다
김형중 지음 | 288쪽 | 12,000원

불교 한문 초보자를 위한 맞춤 도서
1. 최초의 불교 한문 공부 교재
2. 해석 방법과 문법 소개
3. 경전에서 예문을 발췌하여 소개함
4. 복잡한 그림처럼 보이는 한문, 이제 글자로 보인다!

영어와 불교 함께 배워 일석이조

영어로 불교배우는 불교강좌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중 하나인 영어 교육. 이 열풍이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명상과 불교교리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는 불교영어강좌가 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전까지는 일반사찰과 단체에서 특별강좌 및 법회 형식으로 진행 했다면 최근에는 영어전문기관에서 정기적인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2011년 9월 설립된 동국대 국제선센터는 이름에 걸맞게 국·내외인들에게 간화선 실참을 비롯해 불교교리, 스트레스와 각종 병리현상을 치유하는 명상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불교영어도서관, 국제포교사회가 정기적으로 영어교리 강좌, 명상수행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봉은사와 지하철 풍경소리도 외부강사를 초청해 영어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동국대 국제선센터(원장 수불)는 불교기초와 불교응용 등 수준별로 들을 수 있는 'Hello Dharma'를 개설했다. 초급영어 수준이면 들을 수 있는 불교기초반은 회화중심 수업으로 불교세계관, 삼보, 사성제, 팔정도, 불교와 서구사회 등의 주제들을 다룬다. 중급이상의 실력이 듣는 과정인 불교응용반은 부처님의 일생과 주요행적을 살피고 틱낫한 스님의 마음명상 내용을 일상에서 적용하는 방법 등을 토론형식으로 공유하고 있다. 강사진은 동국대 국제어학원 교수이면서 신심깊은 불자인 미쉘 프랑 포르트, 조쉬 맥니콜 교수로 구성됐다.

또한 매주 토요일 대각전 법당에서 명법·대봉·무진·청안 스님 등 외국인 스님과 세릭슨·믹맥켄지 교수들을 초청해 △현대사회에서의 선수행 △자기실현법 △나를 바로 알기 등 다양한 주제의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02)2260-3891

불교영어도서관(관장 현정)은 매월 △전문강좌 △참선 △그룹스터디 △개방 등으로 나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강좌부분에는 헝가리 출신 청안 스님의 참선실수, 요가수행자 린다에머슨의 아유르베다 요가 등이 있으며 참선부분에는 수원나 스님의 위빠사나 명상, 용수 스님의 티베트 명상 제니 울리치의 관음선종 참선실수반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그룹스터디에서는 소규모 그룹이 교재로 수업을 진행한다. 니까야 경전, 참선과 불교영어 교리(희봉 스님 진행), 죽어야 나를 보리라(청고 스님 진행) 등이 마련됐다. 이밖에 도서관은 티베트어 강좌도 개설했다. www.bels.kr (02)730-0173


지하철 풍경소리(대표 혜자)는 '나를 찾는 학교'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티베트 출신의 용수 스님이 지도법사로 매주 금요일 영어 명상교실을 진행한다.

불교 영어 강좌를 진행하는 곳

기관명	강좌내용	연락처
동국대 국제선센터	불교기초·불교응용, 수준별 강좌 진행, 토론형식	(02)2260-3891
불교영어도서관	영어참선·요가·티베트명상·위빠사나명상, 소그룹 영어스터디	(02)730-0173, www.bels.kr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기초불교영어강좌, 생활영어, 불교문화, 부처님 생애·교리	(02)722-2206, www.idia.or.kr
지하철 풍경소리	어린이·청소년 영어 담마스쿨, 영어 참선수행, 수준별 영어법회	(02)6012-1731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	티베트 용수 스님 영어명상교실 진행	(02)736-5583, www.pgsori.net
서울 봉은사	부처님 일생 및 교리, 오온과 연기법 등 영어로 진행	(02)3218-4800
오산 대각사	헬로달마스쿨 암송대회, 영어 읽기·쓰기·말하기·듣기 수업진행	(031)334-5702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배광식)는 매년 기초불교영어강좌를 열고 있다. 27회를 맞는 이번 강좌는 불교용어와 생활영어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 강의는 부처님 생애와 교리, 불교문화 등 전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www.idia.or.kr, 02-722-2206)

지하철 풍경소리(대표 혜자)는 '나를 찾는 학교'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티베트 출신의 용수 스님이 지도법사로 매주 금요일 영어 명상교실을 진행한다. 오직 영어로만수업을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안주명상, 자비심을 키우는 자비명상, 삶과 자아의 실체를 알아보는 통찰명상 등을 배울 수 있다. (www.pgsori.net, 02-736-5583)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는 매주 화요일 봉은사 수련원에서 불교영어강좌를 열고 있다. 부처님의 일생,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발전과 형태, 오온과 연기법, 한국의 불교 및 각 국의 불교 등 불교 입문 단계의 강좌가 영어로 진행한다. (02)3218-4800

이 밖에 불교적 가르침을 영어로 전달하며 어린이들의 외국어 학습 욕구도 함께 채우는 어린이 영어법회들도 다양하다. 특히 오산 대각사와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은 체계적인 어린이 영어 법회를 통해 그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다.

오산 대각사(주지 정호)는 자체적으로 영어법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고 매주 일요일 한국어로 부처님 교리를 가르치고 동일한 내용을 영어 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조계종 포교원에서 제작한 헬로달마스쿨 암송대회를 격월로 실시하고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읽기·쓰기·말하기·듣기 수업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031)334-5702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자우)는 어린이·청소년 영어 담마스쿨로 유명하다. 6년 전부터 영어로 참선을 배우는 담마스쿨을 개설해 매주 토요일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영어와 참선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방학에는 집중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02)6012-1731 **이나은 기자**

외국인들 한국불교 퀴즈로 만나다

관음종 묘각사 템플스테이 10주년 특별 템플스테이

한국불교를 퀴즈로 만나는 특별한 외국인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관음종 낙산 묘각사(주지 홍파)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템플스테이 10주년을 맞아 외국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범종을 울려라(Ring the temple bell)'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3주간 페이스북 홍보로 모집됐으며, 대부분 교환학생과 원어민 교사들이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한국전통문화와 불교에 대한 이해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양한 체험행사도 함께 이뤄졌다. 외국인 참가자들 역시 독특한 프로그램에 적지 않은 관심을 보였다.

경희대 교환학생 아나스타샤(러시아)는 "많은 한국인들의 겸손함이 불교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었다"며 "템플스테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파울라 바렛(영국)은 "108배와 참선은 최고의 프로그램"이라며 "인내라는 행복을 알 수 있는 소중한 계기였다"고 감동을 전했다.


외국인 참가자들은 한국전통문화와 불교에 대한 이해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9개월 간의 공사 끝에 템플스테이 전용 공간을 정비한 묘각사는 매주 토, 일요일에 상시로 외국인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천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것으로 보인다. **신중일 기자**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 돕는데 써달라"

정릉 영각사 홍진 스님, 동국대에 5000만원 기부



서울시내 작은 사찰인 정릉 영각사의 홍진 스님이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5000만원을 기부했다.

홍진 스님<사진 위>은 11월 8일 김희옥 동국대 총장을 찾아 제2건학기금 5000만원을 전달하고 종립대학으로써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홍진 스님은 "어릴 적 가난했던 환경 탓에 진학을 포기했던 것이 아직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금을 기부한 홍진 스님은 해인사 약수암에서 출가해 동학사 강원을 졸업했다.

홍진 스님은 출가하기 전 가난했던 환경 탓에 야학을 다니며 귀동냥으로 글을 깨쳤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하고 싶었던 공부를 어렵게 했던 탓에 출가 후에도 누구보다 수행과 공부에 힘을 쏟았다.

스님은 1980년 중반부터 서울에서 포교활동을 시작한 이래 꾸준한 장학사업을 펼쳐왔다.

하지만, 스님의 장학사업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아무런 기반 없이 전셋집에서 시작한 작은 포교당 살림이 넉넉할 리 없었던 것이다. 스님은 뜻을 함께하는 신도들과 기도와 수행,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보시행을 통해 조금씩 사찰을 키워갔다. 그리고 사찰의 살림이 나아지는 만큼 주변의 이웃과 함께 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도 만들어 보내고, 쌀도 모아 보탰다. 신도들도 스님의 뜻에 흔쾌히 동참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장학금도 늘려갔다. 서울 북부지역의 비구니 스님들과 함께 의정부 광동고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후원했다.

특히 1998년에는 운영해오던 장학회를 법인으로 전환해 이름을 자비장학회로 정하고 장학사업을 확대해 지역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스님은 동국대에 장학금 5000만원을 내놓은 것과 함께 조계종을 찾아 스님들의 노후 복지를 위해 써달라며 5000만원 기부했다. 낙후된 스님들의 복지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홍진 스님은 "학생이든 스님이든 어려울 때는 나누고 돕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큰 일도 아닌 데 부끄럽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승만보살 10대원 1000일 정진 눈앞

22일 회향 수계식 및 포럼 개최

승만보살 10대원 정진이 곧 1000일을 맞는다.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 산하 승만경연구회는 11월 22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승만보살 10대원 정진 1000일 회향 수계식 및 승만포럼'을 개최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2010년 2월부터 〈승만경〉을 대중화해 여성불자의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승만보살 10대원 정진'을 진행해왔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수계법회를 통해 회원이 된 여성불자들에게 승만보살 10대원 카드를 나눠주고 매일 10대원을 독송하고 수행일지를 체크하게 했다.

또한 매주 1회 모임을 만들어 서로 수행담을 공유할 수 있게 하고 100일마다 회향법회를 통해 수행을 점검하며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1000일 정진 회향식에서는 혜경 스님(승만경 강설 저자), 이인혜 연구위원(승만경연구회), 안승중 동국대 강사가 '승만경의 가르침과 불자의 신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며 1000일간 정진하면서 겪은 체험담 발표시간도 마련된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계사로 나서 승만보살 10대원을 계로 수지하는 수계식도 봉행된다. **이나은 기자**

대불, 2012 대불장학생 선발

25명에 3500만원 지원, 접수 15일까지

사단법인 대불(이사장 윤제철)이 2012년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장학금규모는 3500만원으로 25명 내외를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장학금, 단체장학금, 시곡장학금 등 3개 분야로 지원된다. 성적이 우수하고 불교활동을 성실하게 한 대학생에게 일반장학금을 100만원을, 활동이 우수한 대불련 또는 지회에는 단체장학금 100만원을, 신심이 깊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에 300만원 씩 1년간 2회 지원할 계획이다.

대불련 총동문회 중진회원들이 결성한 단체로 2009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고(故) 한정희 여사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시곡장학금을 마련해 엘리트 불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신행과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했다.

장학금 신청기간은 11월 15일까지이며,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 또는 단체는 소정의 신청서와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대불(http://www.daebul.or.kr)과 대불련 (http://www.kbuf.org)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02)720-1963

이나은 기자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길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자비로 버무려진 김치 이웃과 나눠요”

기업·자원봉사자·소외계층 함께 나눔행사 참여


전국 각지의 불교계 복지시설들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나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2010년 조계사 앞마당에서 열린 SK그룹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행복나눔김장행사.

늦가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춥고 힘든 계절이다.

전국 각지의 불교계 복지시설들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나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올 겨울에는 기업과 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홀로사는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가정 및 새터민을 위한 김장나눔에 참여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11월 13일 서울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SK그룹과 복지재단을 비롯한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의 3개 중앙 회원(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성공회푸드뱅크,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이 함께하는 ‘SK 행복나눔 김장행사’에 참여했다.

행사에는 먹거리나누기훈동협의회 공동대표 들과 SK그룹 김신배 부회장을 비롯한 SK그룹 임직원 800여 명과 각 단체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여해 김치 7만 5000포기를 직접 담구며 나눔실천에 적극 동참했다. 10㎏단위의 김치 13500통은 전국 사회복지시설과 무료급식소, 소외가정에 전달될 계획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올해 17번째 행사를 개최하는 SK그룹은 물가상승으로 김장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소외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에 보다 많은 김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보다 25톤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서울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11월 21일 자양동 유수지 체육공원에서 KT&G 복지재단과 사랑의 김장 나눔 릴레이를 진행한다. 광진구 지역 내 사회복지지관 7곳과 연합해 실시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김장김치를 광진구 저소득 독거 어르신 1200세대에 지원한다.

관장 화평 스님은 “지역사회 내 경제·건강상 문제로 영양섭취가 부족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KT&G 복지재단의 후원으로 김장김치를 준비했다”며 “광진구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이 연합해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11월 9일 성동구청 앞마당에서 성동구지역 내 기관과 함께 김장김치 2000포기(4000㎏ 분량)를 만들어 저소득가정과 독거어르신 400가구에 전달했다.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11월 14일 KT&G 복지재단과 은평구 내 복지시설과 김장담그기 행사를 실시해 200세대에 전달하며, 21일에는 복지관 자체 김장나눔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천군노인복지센터는 11월 7일 KT&G 복지재단과 함께 복지센터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마련했다. KT&G복지재단이 김장재료를 후원하고 연천군 내 복지시설 8곳이 동참한 행사에서 만든 김치가 지역 내 독거어르신 200여 세대에 전달됐다.

강원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은 11월 14~15일 복지관에서 ‘2012년 사랑나눔 행복더하기’ 김장나눔행사를 열고 복지관 이용자 250명과 지역 소외계층 재가대상자 50~100가구에 2000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속초시노인복지관은 11월 22~23일 지역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거동불편한 어르신 및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300가구에 200포기를 지원한다.

승가원자비복지타운은 11월 14~16일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연다. 시설 내 실습농지에서 재배한 배추 7000포기를 원각사보현회, 하이닉스 자원봉사팀, 상승대 군인 등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승가원식구들이 겨울동안 먹을 김치를 담글 계획이다. 또한 승가원 산하 시설인 한솔종합사회복지관도 11월 20~23일 김치 8000㎏을 담그고 800세대에 10㎏씩 포장해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한다.

부산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12월 6~8일 자원봉사자 및 새터민 30여 명과 함께 김장행사에 참여해 김치 2000㎏를 저소득층과 새터민 등 300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우산종합사회복지관은 12월 1일 김치 600포기를 만들어 저소득가정 200~300세대에 전달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아름다운동행, 지원 사업 공모

저소득가정 5천만원 지원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자비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NGO단체를 대상으로 2013년 ‘저소득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2013년 공모내용은 저소득가정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사회문화 체험활동 및 교육활동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 자격은 사회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NGO단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2월 14일까지 이메일(thenanum@hanmail.net) 및 방문, 우편 등으로 접수받는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관 2곳은 1000만원, 6곳은 500만원 등 5천만원을 지원하며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사업을 진행한다. 아름다운동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활동하는 NGO단체들의 사업 활성화와 저소득가정 지원의 다각화를 위해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며 “많은 단체들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름다운동행 공모사업은 2010년 시작돼 올해 4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시설 및 NGO 단체의 발전을 위해 매월 자비나눔 시설방문으로 시설운영비 등을 적극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www.thenanum.org)에서 확인 할 수 있다. (02)737-9595 **정혜숙 기자**

“간 기증한 새어머니께 효도하고파”

생명나눔, 11월 선정환자 박상훈 씨


생명나눔 11월 선정환자 박상훈(남·36, 간경화)씨

박상훈(남·36) 씨는 외롭고 힘든 사춘기를 겪었다. 고등학생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훈 씨 홀로 남겨진 것. 학교 갔다 오면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있다는 것은 상훈 씨에게 큰 고통이었다.

그래서 상훈 씨의 소원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 열심히 살다보면 언젠가는 외롭게 산 날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묵묵히 견뎌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곳저곳 취직해 성실하게 일했지만 몸이 약한 탓에 자리잡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을 찾았고 월급을 모아 미래를 준비해 나갔다. 사랑하는 사람도 생겨 2002년 결혼도 했고 두 사람에게는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기운이 없고 힘이 들어 병원을 찾은 상훈 씨는 상세불명의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 몸이 약해 술도 못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재혼 후 맞이한 새어머니에게 간이식도 받았다. 재혼 순간부터 새어머니는 상훈 씨를 친아들처럼 여기며 꼭 살리겠다고 나선 것.

상훈 씨도 새어머니에게 효도하겠다며 재활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걸림돌은 치료비. 수술과 입원 때문에 3000만 원의 빚이 생겼다.

앞으로도 받을 치료 비용은 1000만원이 넘는데 이제는 빌릴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이다. 학원강사로 월 100만 원 벌던 부인은 남편의 간병으로 소득이 절반으로 줄었다. 50만 원으로는 생활비도, 치료비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02)734-8050

조계종 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세미나

현재 불교사회복지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전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2012 경기도 종교계복지포럼에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을 대표해 ‘2012 경기도 불교사회복지 세미나’를 11월 22일 오후 1시 한국경기소리보존회에서 개최한다.

경기도의 후원을 받아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하는 이날 세미나는 ‘불교사회복지의 성공사례 및 향후 전망’이란 주제로 김민정 부관장(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 연꽃마을을, 류동춘 팀이 석왕사 룸비니를, 김명분 실장(여성장애인통합보호시설 소빛)이 여성장애인통합보호시설 소빛의 성공사례 및 전망을 발표한다. (02)723-5101

복지단신

성북장애인복지관, ‘천원의 행복 나눔 바자회’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은 11월 2일 성북동 하월곡동에서 ‘천원의 행복, 행복나눔바자회’를 개최했다.

바자회에는 동아에코빌아파트 부녀회와 컴누리봉사단, 성북구여성의용소방대 등이 봉사자로 참여했다. 의류, 생활용품, 문구류 등의 물품판매와 다양한 먹거리 코너가 운영되고 장애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삼행시 짓기 등 참여의 장도 열렸다. 복지관은 바자회 판매 수익금 전액을 장애인 복지사업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관 스님은 “이번 바자회가 지역 내 행사 활성화를 통한 비장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의 창이 되고, 저렴한 물건구매의 기회를 제공하여 간접적인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2)915-9200

강북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경진대회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진화)은 11월 2일 관내에서 ‘제7회 장애인정보화기능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정보화 마인드와 정보검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타자, 워드활용, 정보검색 3가지 부문에 67명이 참가했다. 복지관은 금·은·동상을 각 1명씩 선정해 9명에게 시상했다.

복지관은 “컴퓨터 조작능력과 인터넷활용능력을 측정해 배움의 성취감과 삶의 새로운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참가자들은 정보화 능력을 가늠해 보고 자기계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지역사회 및 장애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컴퓨터 활용에서 어려움이 없이 활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2)989-4214

노년기 우울예방 세미나 개최
어르신상담센터, 26일 국제회의장서

노년기 우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울증 예방의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센터장 청원)는 11월 26일 오후 2시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노년기 우울예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안준희 교수(호서대 노인복지학과)가 ‘노인 우울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며 이명희 부관장(서울노인복지센터)이 ‘노년기 상실경험 극복을 위한 우울 예방’을 박한욱 대리(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가 ‘노인우울 개입사례발표-노인우울예방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유승호 팀장(연세대 가양4종합복지관)이 ‘우울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을, 정현주 대리(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가 ‘독거노인의 노년기 우울관리를 위한 사례발표’를 주제로 발표한다. (02)723-1885

대치노인복지센터, 13일 1주년 개관행사

대치노인복지센터(센터장 손화정)는 11월 13일 지역사회 어르신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노년의 완성, 대치노인복지센터 개관1주년 기념 채움·비움·이움 대축제’를 개최했다.

대치노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봉은이 강남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로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을 통합·운영하는 지역밀착형 노인복지전문기관이다.

이날 행사는 대치노인복지센터의 그동안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1년 동안 채워온 역량의 발현과 의미 있는 비움과 이음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대치노인복지센터로 도약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아카펠라와 함께하는 감성채움 ‘더 솔리스츠’의 축하공연과 개관1주년 기념 특강 ‘품격 있는 노년을 말하다’, 어르신 작품발표회, ‘건강나들이’ 등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도 진행됐다.

www.dongsanbud.net
동산 창립 (1982. 11. 13) 30 주년
불교교육 전법도량
DONGSAN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법주 대종사 무진장대종사
이 사 장 이상우 명예이사장 안동일
이 사 이종현 전연화 이호득 김상호 구본설
김형곤 정은용 문종순 임선학
전국염불만일회장 안동일 동산신도회장 이종현
동산불교대총동문회장 이호득 동산법사단장 임원호
동산포교사단장 김동훈 동산로터스회장 정은용
동산불교대총학생회장 박상영 동산가족일동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우정로 45-11(46-20번지) | ☎ 02)732-1206 | 전송 732-1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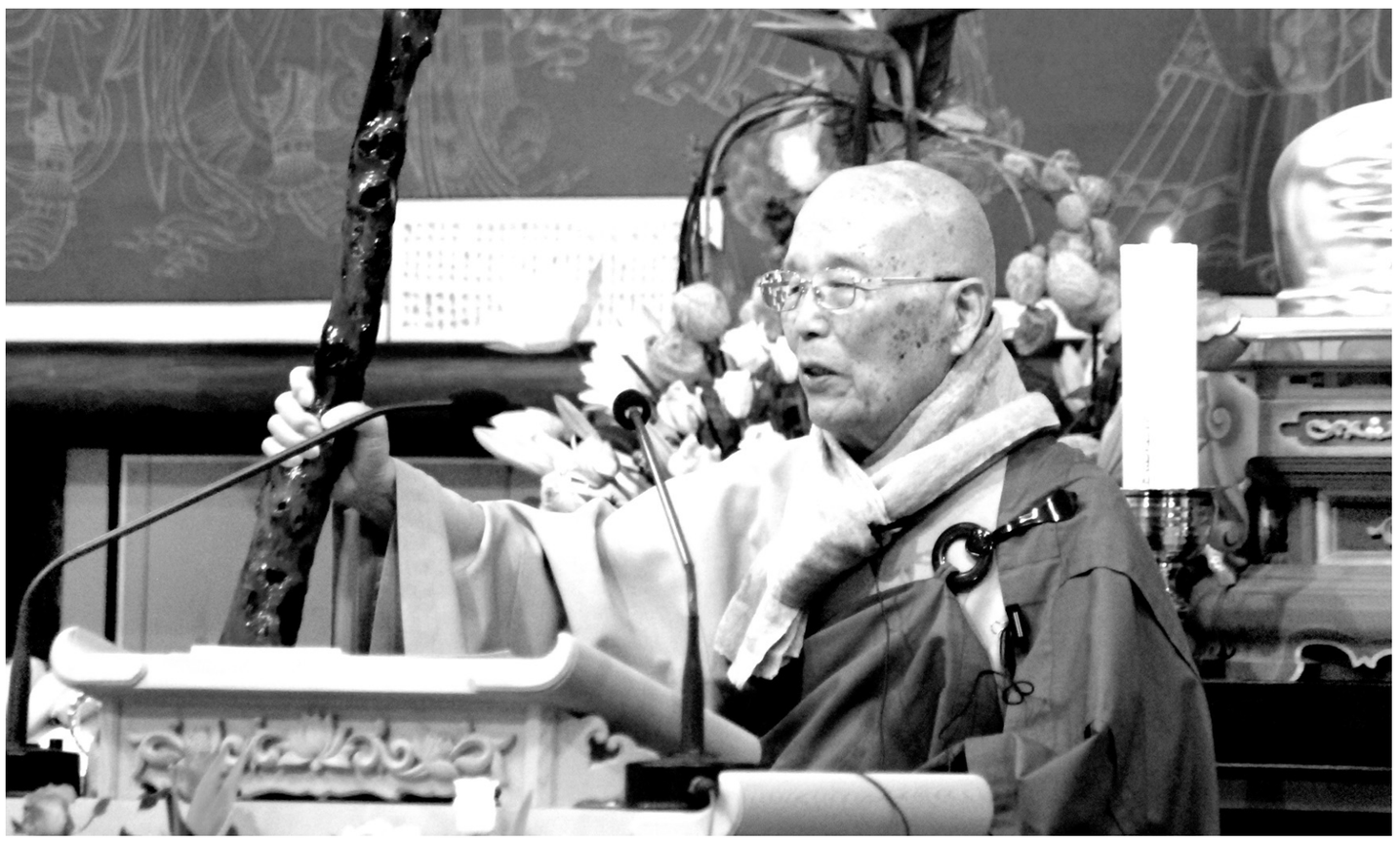
제4회 원효학술상 공모
元 曉 學 術 賞
(재)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에서는 “세계 속의 한국철학, 한국철학 속의 세계”라는 슬로건 아래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주도할 학자를 격려하고 인재를 육성하여 한국철학이 국제사회에서 세계 철학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효학술상 공모를 실시합니다.
■ 공모 주제
-.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부문
-. 서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연구 부문
-.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 연구 부문
(상기 부문 중 자유선택, 1인 1편 응모)
■ 시상 부문 및 상금
-. 교수(전임강사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 저술상 : 1,000만원 혹은 논문상 : 700만원
-. 박사과정 후 비(非)전임교수 1인, 논문상(저서 포함) : 500만원
-. 석·박사과정 학생 3인 이내 : 금상(300만원), 은상(250만원), 동상(200만원)
(모든 부문 공통 : 국내 및 재외국인, 외국인 포함/ 영어에 한함)
■ 제출서류
1) 지원서 1부 (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서 2부, 논문(별쇄본) 3부
① 학생 논문의 경우 교수(전임강사 및 그에 준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것.
② 심사 대상작품은 최근 5년 이내(2008년 1월 1일~2012년 12월 30일까지)에 발표된 것에 한함 (저서는 ISBN 등록본).
3) 재외국인, 외국인의 경우 영어에 한하며, 한국어본 초록(A4 3매 내외)을 제출해야 함.
■ 접수
1) 접수 기간 : 2013년 1월 2일(수) - 2013년 2월 28일(목) 오후 5시까지
2)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당일자 소인 유효)
3) 접수처 : 주소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원효학술상 담당자
전화 (02) 719-2606
■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1)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2013년 4월 중(선정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 부문 또는 상금 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음.
2) 시상식 : 2013년 5월(추후 공지)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 www.kbpf.org, 문의: 02-719-2606

제8회 금강산림대법회

보성 스님 (조계총림 방장)

“남의 것 말고 ‘자기 금강경’ 공부하세요”

일체 선한 법을 닦되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이 닦아야 위없는 부처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금강경〉. 승보종찰 순천 송광사는 매년 금강산림대법회를 열고 〈금강경〉에 기반을 둔 수행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11월 1일 제8회 금강산림대법회에서는 첫 법사로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이 나서 금강경의 서원에 대해 강연했다. 이날 스님은 대중들에게 타인의 〈금강경〉을 공부하지 말고 스스로의 〈금강경〉을 공부하라고 설했다.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보성 스님은 … 1945년 해인사에서 구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1950년 해인사에서 상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거쳐 송광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특히 달라이라마, 틱닛한, 대만 성운 대사 등 세계적인 고승과 깊은 교분을 쌓은 것으로 유명하다. 조계종 전계대화상을 역임했으며, 현재 승보종찰 송광사 조계총림 방장으로 있다. 송광사 산내암자 삼일암에 주석하고 있다.

이 자리에 앉으니 이미 〈금강경〉은 대중과 더불어 다 설해 마쳤습니다.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이 높아지면 탐진치(貪瞋痴) 삼독이 더욱 깊어지더라’는 것을 설파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금강경〉의 대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자리에는 얼마 전 태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불안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 여덟 번째 금강산림이 어렵겠구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찰 종무원들을 비롯한 여러 대중들의 노력으로 무난히 오늘 이렇게 법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렵다 생각하면 그 어려움은 한정이 없습니다. 항상 하면 된다는 실천 정신을 갖고 임하면 그 일은 이뤄집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고 또 법문을 듣더라도 실천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불교는 〈금강경〉과 밀접한 관계입니다. 〈금강경〉을 독송하는 사람도 많고 〈금강경〉을 사경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금강경〉과 인연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금강경〉 수행은 어떻습니까.

〈금강경〉 법회를 하는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아 행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드뭅니다.

우리는 〈금강경〉을 훌륭하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 금강경은 나의 〈금강경〉이 아닙니다. 〈금강경〉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깊은 뜻에 사무치지 않는다면 진전이 없습니다.

둘이 아닌 〈금강경〉을 받들어 모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상 인상 수자상을 너무 다 투어 말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탐진치 삼독만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금강산림은 이 자리를 통해 어느 정도 각자가 얻어 가는지 그릇을 점검해보고자 함입니다.

큰 바다가 있습니다. 바닷물을 그릇에 담습니다. 큰 그릇이라면 바닷물을 많이 담을 수 있지만 작은 그릇이라면 몇 그릇에 담아도 조금 밖에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나이가 좀 들었다고 강연이라는 행위가 참 힘이 듭니다. 미안한 말로 여기 모두는 저보다 젊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젊었을 때 치열해야 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하는 생각이 제일 몹쓸 생각입니다. 〈금강경〉을 보고 듣는 시간에는 그 것부터 내 버려야 합니다.

〈금강경〉의 공덕은 여러 군데서도 나옵니다.

25년 전 일입니다. 스님세계에서 환갑잔치를 한다고 해서 피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연찮게 인연이 닿아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잔치를 피해서 갔는데 미국에 가니 아는 사람이 있어 1주일을 얻어먹게 됐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온 한 신도를 만났습니다.

그 보살이 〈금강경〉을 읽으며 얻은 공덕을 털어놨습니다. 그 보살이 한국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이웃집에서 저녁 10시 경에 난데없이 경찰들이 한 사나이를 묶어서 왔습니다. 살인강도의 현장검증을 위해 부득이 집을 찾았다는 겁니다. 함께 온 경찰이 묶여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입니까.”

“이 집이 맞습니다.”

집 주인인 보살에게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 시간에 무엇 하셨습니까.”

“사생활입니다. 밝히기 어렵습니다.”

“사생활이지만 현장검증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보살은 경찰에게 답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을 먹고 오전 8시부터 집안일을 한 다음 정리를 하고 독경을 합니다.”

“相이 높아지면 삼독이 깊어집니다”

자기 금강경과 부처님 금강경 하나되면 마음 비우기 성공

경찰이 물었습니다.

“무슨 독경을 합니까.”

“〈금강경〉을 독경합니다.”

경찰이 묶여온 사나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시 왜 이 집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옆집으로 담을 타서 넘어갔습니까.”

그 사나이가 답한 말입니다.

“안에서 아주머니가 독경을 하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문으로 들어가려 하니 아주 기운이 센 젊은이가 나타나 이놈 들어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사나이는 담을 넘어 이웃집으로가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보살의 집은 오전에 독경하고 오후에는 시장을 보는데 문을 열어놓고 다닌다고 합니다. 〈금강경〉을 독경하고부터 욕심이 없어지고 마음이 비워지니 무애자재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 보살이 욕심도 없어지고 〈금강경〉 정신으로 살 수 있는 뜻이 생겼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 내 마음을 다비우고 〈금강경〉을 독송하면 내 〈금강경〉과 부처님 〈금강경〉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성공이라는 길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여러분들도 남의 〈금강경〉 그만 이루고 내 〈금강경〉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비우는 것은 어떻게 비워야 됩니까.

또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인근에 운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한 비구니가 있는데 남동생과 함께 출가를 했습니다. 그 친정어머니가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어머니는 동네 모든 상담을 도맡아 하는 분이였습니다.

하루는 이웃집에 부부싸움이 났습니다. 싸우다보니 집안에서 오물을 뿌렸습니다. 이웃들이 너무 냄새가 고약해했습니다. 그때 그 비구니 스님의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그 어머니는 싸우는 곳으로 가 말없이 방바닥을 살살 닦았습니다. 옆에서 싸우든 말든 냄새가 나지 않도록 부지런히 닦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물만 닦아내고 말이 없으니 싸우던 부부가 자연스럽게 싸움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싸움을 멈춰도 그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걸레질만 할뿐이었습니다. 일이 다 마친 후 그 어머니가 ‘이제 다 싸웠습니까’ 라고 한마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넘어서서 다른 이들에게도 평정심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아시겠습니까. 싸우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그저 부지런히 닦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방만 닦는 것입니다. 네가 잘했니 못했니, 충돌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닦는 것입니다.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서울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식에서 카메라가 92세인 반 총장의 어머니를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어떤 힘을 기울여 아들을 키웠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참 신실한 불자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돈 잘 벌고 무엇 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저 좋은 어머니가 되겠다고 원을 세워 아들에게 모범이 됐을 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아들이 절로 자신도 원을 세워 열심히 정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돈 많이 벌어오라, 술 마시면 빨리 들어오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원은 절 앞의 저 물에 갖다 버리세요.

오물만 제거하는 그 보살처럼 스스로를 닦는 그 모습을 보이면 그 것이 바로 일등가는 부자입니다. 그 것이 바로 더 이상 없는 하심의 경지입니다.

어정어정하다보면 시간은 금방 갑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어머니처럼 그런 원을 세우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저의 〈금강경〉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이 법회에 왔는데 다 늙어 얼굴도 찌그러져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제 〈금강경〉도 설하려하니 다 찌그려져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금강경〉 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큰 원력을 세우면 그에 따른 힘이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1월 1일 송광사 설법전에서 열린 금강산림대법회에는 500여 대중이 운집해 방장 보성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2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11월 18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11월 19일 (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심인불교대학 제2기 신입생모집

▶ 밀교사상과 수행 (密教思想·修行) ◀

과 정 : 2012년 10월 ~ 2013년 10월 (1년과정)
대 상 : 일반불자, 승려〈비구, 비구니〉 법사
강 의 : 매주 일요일 12시 ~ 1시 30분 〈점심공양〉
준비물 : 간편한 복장〈법복착용〉, 필기도구는 제공
등록금 : 100,000원 / 교재비 : 30,000원

▶ 공부할 과목 ◀ 지도법사 : 법운(法雲)스님

- 근본불교 : 비밀불교의 기본사상 (秘密佛教의 基本思想)
- 밀 교 란 : 밀교(密教)란 무엇인가?
- 밀교의 삼대사상 : 1 육대(六大) = 체(體) : 地, 水, 火, 風, 空, 識
  2 사만(四曼) = 상(相) : ① 대만다라(大曼荼羅) ② 법만다라(法曼荼羅) ③ 삼매야만다라(三昧耶曼荼羅) ④ 갈마만다라(羯磨曼荼羅)
  3 삼밀(三密) = 용(用) : 심밀(身密), 구밀(口密), 의밀(意密)
- 밀교의 만다라 : ①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 ②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
- 밀교의 삼륜신 : ① 자성륜신(自性輪身) ② 정법륜신(正法輪身) ③ 교령륜신(教令輪身)
- 현교의 삼신불 : ① 법신(法身)〈비로자나〉 ② 보신(報身)〈노사나〉 ③ 화신(化身)〈석가모니불〉
- 위빠사나 수행법. 탄트라와 명상법
- 육자진언염송 〈옴마니반메훔〉
- 현교와 밀교성불론의 차이점

무애정사 〈심인불교대학〉 031)692-3653, 011-9356-3653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5-3번지 송화빌딩 2층

재가자 역할 확대될 때 불교발전 가능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와 세계불교의 대화' 주제로 학술대회

남방 상좌부 불교 국가에서 재가불자들의 역할과 한국불교에서 재가불자들의 역할을 비교 고찰한 논문이 눈길을 끈다.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1월 9일 부산 동명대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가 개최한 추계 전국학술대회에서 '상좌부불교와 한국불교의 재가불자 역할 비교' 발표를 통해 한국과 스리랑카, 미얀마 등의 불자들의 활동을 비교하고 한국불자들의 새 역할을 주문했다.

정 교수는 이날 "현재 한국불교에서 재가불자들의 보시는 점차 줄고 있는 추세"라며 "사찰은 보시로만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을 천도재, 생전예수재와 같은 재(齋)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보시 형태에서 찾았다. 정 교수는 "한국에서 보시는 주로 금전이나 기부형태로 진행되는 등 의무적인 요소가 약하다. 반면 상좌부불교에서는 음식, 가사, 울력 등 의무적으로 보시해야 하는 역할이 보다 많다"고 비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상좌부불교에서는 재보시와 동시에 법보시가 이뤄지는데 반해 한국불교에서는 재보시와 법보시가 별개로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문화로 인한 부족한 보시와 재정의 악순환이 한국불교를 기복적으로 만드는 요인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밖에 상좌부불교와 한국불교의 재가자 수행방법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상좌부불교의 재가수행은 대부분이 출가자의 수행방법과 같다. 특히 자력으로 진행하는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중심으로 행주좌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 교수는 "반면 한국 재가불자는 염불, 절, 간경, 사경, 독경, 화두참구 등을 수행하며, 출가자의 수행과 분리되거나 타력에 의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상좌부전통의 수행법이 서구사회에 전달돼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활용되는 부분을 들며 수행에서 출재가의 수

상좌부불교서 보시 의무만큼 법보시
부족한 보시 사찰 기복 치중 요인
상좌부 출·재가 수행법 서구에 영향

행법이 공유됨은 불교의 사회 적용에도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상좌부불교 중 재정투명화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불교가 배울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상좌부불교의 재가불자들은 사찰운영에 직접 관여하며 오히려 출가자 참여를 제한하는 반면 한국의 재가불자들은 대다수가 사찰운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최근 꾸준히 제기되는 한국불교 개혁 방안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재가불자의 사찰운영 참여"라며 "하지만 지속적인 요구에도 관철되지 않는 이유는 그 권한이 출가에 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한국불교 자체가 출가자의 역할에만 기대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5년 8월 동화사 계율수행대법회에서 출재가가 함께 공부하는 모습

정 교수는 그 극복을 재가자 스스로의 변화와 역할 확대에서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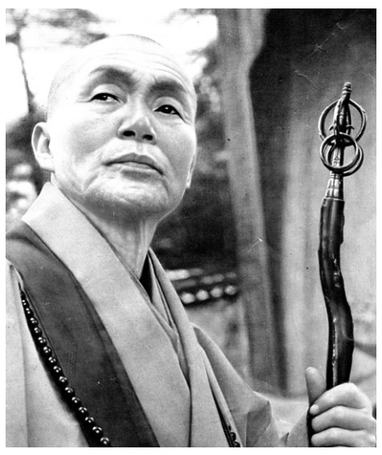
정 교수는 "재가자는 출가자 없이도 불자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며 "재가자 스스로 수행과 전법의 의무를 다할 때 불교의 진정한 변화는 찾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 차상엽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 교수는 '티벳문헌에 나타난 정중 무상에 대한 연구' 발표에서 8세기 후반 티베트 삼예사 논쟁에서 마하연 선사가 전한 돈오선법에 정중 무상 선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바셰(sBa bzhed)〉를 중심으로 한 티베트 사료들과 둔황에서 출토된 펠리오 티베트 사본 No.116을 근거로 정중 무상선이 티베트에도 전해졌음을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청담 스님, 지계로 시대회통한 정화보살"

청담사상연구소 학술세미나서 지계정신 고취 목소리 모아져


철저한 지계정신을 강조한 청담 스님.

한국 근·현대 불교의 대표적인 선지식으로 계율에 근거한 정법불교를 정화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청담 스님의 지계사상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청담사상연구소(소장 서익구)는 11월 9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제11회 청담사상 학술세미나를 열고 '청담조사의 지계사상'을 중점 점검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한국불교의 계율전통에서 본 청담조사의 지계사상' 발표에서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먼저 청담 스님의 지계사상은 의상과 용성, 석전 스님 등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엄격한 계율전통을 잇는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원효와 경허의 무애행으로 상징되는 한국불교의 계율전통과 의상과 용성, 석전 등의 엄격한 지계로 상징되는 계율전통 사이의 긴장은 우리 불교가 통불교적 성격을 지니면서 피할 수 없는 논쟁점"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일제에 의해 무너진 계율을 중심에 두고 불교 개혁과 불교 대중화에 온 몸을 바쳤던 청담 스님의 지계정신은 계율전통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계를 넘어 무애행까지도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우리는 출가자의 계율문제에는 엄격하면서도 재가자 계율문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며 "민주자본주의 시대흐름과 계율이 어떻게 조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흐름을 어떻게 하면 부처님 정신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청담조사의 계율관' 발표에서 청담 스님의 계율관과 지계사상의 의미에 대해 고찰한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는 계율정신의 강화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청담 스님은 계(戒)·정(定)·혜(慧) 삼학의 균수를 통해 시대문제를 회통한 정화보살"이라고 평하며 "정법의 대중화를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그 서원의 삶을 현재 불교인들은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와 최성렬 조선대 교수도 청담 스님의 정화운동의 핵심은 계율의 확립임을 들며 대중들의 지계정신 고취를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고려 선불교 확산에 茶가 한 몫

日, 동아시아차문화심포지엄서 박동춘 소장 밝혀



신라 말 선종 대당유학승들 전래
잠 깨우는 효능 수행에 활용돼
고려 지도층에 영향, 수륙재에 사용

9세기 신라에 전래돼 고려시대에 전성기를 맞은 차문화 확산이 선불교 교세확장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소장〈사진〉은 11월 12일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열린 제7회 동아시아차문화 심포지엄에서 한국대표로 참가해 고려시대 차문화 확산에 대해 조명했다.

박 소장은 '당대 다법이 고려에 미친영향'을 주제로 신라시대 차문화 전래가 선종계열의 입당구법승들에 의한 것이었으며, 구산선문 개창과 영향력 확산으로 차의 효능을 이해하고 마시는 계층이 크게 늘어났음을 주장했다.

박 소장은 "신라 말, 유학 선승들이 귀국하며 수행생활에 필요한 차를 가져온 이후, 신라왕실과 승려들에게 당의 다법이 알려졌으며 왕실과 귀족층들은 차를 매우 귀하게 여겨 선진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12세기 고려시대를 다법이 가장 발달한 시기로 꼽았다. 불교를 숭상했던 고려왕실에서는 팔관회나 수륙제에서 왕이 직접 차를 가는 등, 차를 가장 귀중한 공양물로 부처님께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왕이 공신들에게 용봉단이나 대차를 하사했던 것으로 보아, 중국차 뿐만 아니라 토산차가 생산됐음도 알 수 있다. 박 소장은 이런 한국차의 시원을 도의 스님 등 구법승들이 주로 활동했던 중국 강서 지역의 다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다법이 당시 격조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불교수행을 비롯해 당시 차문화에 담긴 정신문화가 있기 때문"이라며 "박제화 된 문화재로서의 차가 아닌 현대인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차문화 발달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진흥원, 제4회 원효학술상 공모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는 제4회 원효학술상을 공모한다.

공모주제는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서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연구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 연구 등이다.

공모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0일까지 발표된 것이다. 접수기간은 2013년 1월 2일~2월 29일까지다. (02)719-2606

노덕현 기자

불광연구원 광덕 스님 대학생 전법 연찬회

광덕 스님의 종단활동과 대학생 전법에 대해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11월 17일 오후 2시 잠실 불광사 교육원 강당에서 제16차 불광연구원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광덕 스님의 종단 활동과 대학생 전법'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가 '광덕스님의 종단활동과 조계종'을, 한상길 동국대 연구교수가 '광덕스님의 대학생 전법과 대불련'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또 김재영 동방불교대 교수, 이종수 동국대 연구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연구회 추계 학술대회

불교학연구회(회장 박경준)는 1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경제에 대한 불교적 조명과 재해석'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박경준 동국대 교수가 '불교의 경제관'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이자랑 동국대 연구교수의 '불교에서 본 소유와 분배', 윤성식 고려대 교수의 '연기자본주의와 시장 자본주의', 이도흠 한양대 교수의 '코피티션 이론 비판과 화쟁경제학', 남찬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의 '사찰 및 재(財)공양 법(法)보시의 경영학적 분석'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단 70만원에 법당의 오래된 앰프를 웅장하고, 맑은 소리로 바꾸어 드립니다

➔ 방법 : 앰프와 마이크 또는 스피커와 마이크 등 좋지않은 장비를 고급 신형 제품으로 교체 해 장엄한 소리를 보시하겠습니다.

● 보완 보시기간 : 2012년 10월 – 11월 30일까지 (예약 순으로 일주일에 2곳만 설치 해 드립니다)
● 해당지역 : 서울, 경기, 일부지역 (이외 지역은 출장비 일부가 추가됩니다)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高性能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삐-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 무선 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일반 마이크 V-620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불교의식 학인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 7기생)

팔공불교대학에서 초심자라도 불교의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드립니다.

◈ 개강일시 : **2012년 11월 26일**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5시, 7시 ~ 10시)
◈ 모집대상 : 승려, 재가불자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접 수 : 2012년 11월 25일 (일요일) 까지

1 교 육 과 정 (내용)
도량석, 종송, 향수해재, 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각단불공

2 재의 시식편
천도재, 시달림, 방생의식, 관음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범음범패와 의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3 사 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신청문의 및 접수처 : 대구시 동구 도동 44번지 (팔공 IC 5분거리)
☎ 053)986-1080, 010-9361-5566

팔 공 불 교 대 학 학장 일관 합장

불교 종립중학교 최초 야구부 창단

나주 세지중, 김성한 前 기아감독 총감독으로



세지중 야구부원들이 창단을 맞아 우승의지를 다지고 있다.

종립 중등학교에 최초의 야구부가 창단돼 지역 스포츠계에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전남 나주에 위치한 세지중학교(이사장 원일)는 11월 2일 교내 벽상관에서 야구부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야구부 창단은 전남지역 중학교 중 4번째이자 불교계 중학교로는 최초다.

창단식에는 이사장 원일 스님(나주 미륵사 주지)을 비롯해 장성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 임성훈 나주시장, 신기평 나주교육장, 한상욱 전남야구협회장, 김성한 세지중학교야구부 총감독 등 지자체와 야구협회 관계자,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원일 스님은 치사를 통해 "야구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길러주고 우정과 협동을 배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며 "야구부 학생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 훌륭한 선수로 거듭날 수 있

전남지역 4번째 창단

나주야구협 지원 밝혀

김태원 전 LG투수 감독

17명 부원 우승의지 다져

도록 아낌없는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창단 의미를 설명했다.

세지중 야구부는 현 한화이글스 수석코치로 임명된 김성한 전 기아감독의 노력과 나주야구협회의 노력으로 창단됐다. 김성한 감독은 4월 '나주지역 중학교에 야구부를 창단하고 싶다'는 의사를 원일 스님에게 전해왔고, 원일 스님은 학교 의견을 수립해 8월 20일 나주시 야구협회와 창단에 관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세지중학교 야구부는 현재 김성한 총감독을 비롯해 김태원(전 LG 투수)감독, 장승욱 코치, 김인권 코치 등 프로야구 선수 출신들의 지도 하에 전체 17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김성한 총감독은 인사말에서 "세지중학교 야구부를 통해 나주시가 야구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를 맡게 된 김태원 감독은 "인성교육으로 선수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지덕체를 겸비한 선수들을 배출하겠다"며 "세지중학교가 한국을 대표하는 학생야구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교육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김 감독은 매일 정상수업 이후 야구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지중학교 야구부는 현재 2013년 열리는 KBO총재배 전국유소년 야구대회와 2015년 KBO총재배 전국 중등부 야구대회에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1차 목표로 잡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세계 순례대회, 전북일원에서 개최

"종교간의 화합과 자비 사랑으로 평화로운 세상 만들자"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의 4대종단 지도자들과 신도들이 각 종교의 문화유산과 지역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순례하는 세계순례대회가 전주, 완주, 익산. 김제 일원에서 개최됐다.

11월 1일~10일까지 9박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세계순례대회는 '아름다운 순례, 홀로 또 함께'라는 주제로 김제 금산사, 완주 송광사, 익산 미륵사지, 나바위 성당등의 종교문화 유적지 240Km를 10일간에 걸쳐 순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지자체 목조 문화재 안전관리 점검

정읍 내장사 대웅전 화재를 계기로 전북 각 지자체와 소방서, 경찰서등 관련 기관이 지역내 목조문화재 긴급 안전관리 점검에 나섰다.

정읍소방서(서장 제태환)는 11월 5~7일 정읍소방서 관내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 32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정읍시청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된 소방특별조사는 보물 제289호 피향정 등 화재위험성이 큰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해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경보설비 및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각종 소방시설과 전기 안전시설을 중점 점검했다. 또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했다.

완주경찰서(서장 강황수)는 전통사찰·중요문화재 일대에서 특별방범활동을 벌였다. 관내 송광사 등 60개소(문화재 포함)에 대해 사찰 및 문화재 진입로, 문화재 보관장소 등에 방범시설 유무, 미비점 개선 보안등 특별방범진단을 실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쌍계루의 추야몽' 성황

산사음악회, 영산대재 등 500여 대중 만끽

예쁜 아기 손을 닮았다하여 애기단풍이라 불리는 백양사 단풍은 백암산 백학봉과 백양사와 어울려 예로부터 조선팔경 중 하나 꼽혔다.

전국적으로 단풍이 절정을 이룬 11월, 장성 백양사에서 단풍문화축제가 열렸다. 백양사 단풍문화축제는 올해로 16회를 맞는 지역대표 행사다.

장성 백양사(주지 진우)는 11월 3~4일 백양사 경내에서 '2012 백암산 야단법석 쌍계루의 추야몽'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3일 야단법석과 4일 산사음악회로 진행됐다. 산사음악회가 열린 4일에는 전통공예작품 전시회, 국화전시, 전통염색, 단주만들기 등의 체험부스도 마련됐다.

3일 대웅전 앞뜰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는 영산대재와 전통국악공연으로 야단법석이 진행됐다.

특히 지난 3년간 공개되지 않았던 극락보전 괘불을 모시고 시작된 영산대재는 바라춤, 나비춤 등 화려한 춤사위가 선보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한국의 모듬북과 일본의 다이코, 현대악기인 드럼의 조화를 이룬 하늘다래의 공연이 이어져 대중들에게 한국과 일


11월 3일 열린 하늘다래 공연 모습

본의 조화된 선율을 선사했다.

4일 산사음악회에는 비가 오는 와중에도 500여 대중이 운집했다.

타종과 스님들의 법고 시범으로 시작된 음악회는 인기가수 박현빈, 바닥프로젝트, 성악, 홍원빈, 이예주, 양은지 등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해 가을 정취를 대중에 선사했다. 산사음악회 후에는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노래자랑도 함께 열려 흥겨움을 더했다.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백양사가 지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단풍축제를 기해 사세확장에 나설 것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김제 금산사 1413주년 개산대재 봉행

11월 3일 2000여 대중 운집

전북의 대표적인 명찰 금산사(주지 원행)가 개산 1413주년을 맞아 불보살의 자비와 보살행의 실천을 다짐하고 진표율사 정신의 계승을 발원했다.

11월 3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개산대재에는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통도사 원산 스님, 대흥사 범각 스님을 비롯해 금산사 본말사 대중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최규성국회의원, 박성일 전북 행정부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이건식 김제시장 등 2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개산대재는 조사전과 부도전에서의 역대 조사들에 대한 헌공다례가 진행됐으며 명종, 육법공양, 연혁보고, 대회사, 법어, 축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그동안 군포교에 공로가 큰 임실 탄약창 서유원 거사에게 공로표창이 수여됐다.

원행 스님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려다가 금산사와 운명을 함께하신 처영뇌묵대사와 의승병들을 위령하는 처영뇌묵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할 줄 아는 자비가 성숙된 아름다운 세상이 정토세상"이라며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보살행을 통해 가까운 이웃들


금산사 1413주년 개산대재 모습

에게 실천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설했다.

이날 개산대재에 이어 오후에는 보살계 수계법회와 관등 법회가 봉행됐다.

한편, 김제 금산사는 599년 백제 법왕이 왕실의 자복사찰로 금산사를 창건한 이래 통일신라 때 진표율사가 미륵제일도량으로 중창하고, 고려 혜덕왕사께서 82전각과 43개 암자를 거느린 대가람으로 조성해 법상종의 대표사찰로 명성을 이어왔다.

임진왜란 때는 뇌묵 처영 대사가 이끄는 의승병 활동으로 호국도량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정유재란 당시 불타버린 금산사를 조선 인조 때 수문대사가 복원하여 오늘날의 금산사로 이어져 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명나눔 무등산 옛길 걷기대회 열려

"아픈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기원하는 걷기에 나서요"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11월 4일 무등산 일대에서 '제4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무등산 옛길 희망걷기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현지 스님, 일명 스님(금선사 주지), 보혜 스님(비전사 주지)을 비롯해 김진여성 후원회장, 이금지 운영위원장(맑고향기롭게 광주지부)등 300여 자원봉사자, 시민들이 참여했다.

난치성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희망걷기대회는 무등산 청풍쉼터에서 원효사에 이르는 5.35km를 걷는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현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산행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걷기를 통해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완주 송광사 '송패밀리' 찬불가 경연 대상

3代 10명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족중창단이 10월 21일 처음으로 개최된 '2012 전국 가족 찬불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지역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완주 송광사 가족중창단 '송 패밀리'로 최연장자인 송영효(63세, 전 바라밀 합창단장) 씨의 형제, 자녀 그리고 5살 최신우군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국 5개 권역에서 예심을 거쳐 29개팀이 참가한 대회에서 해금, 피아노, 기타를 직접 연주하며 '연꽃 피어 오르리'를 불러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송영호 씨는 "참가기회를 주신 도영 스님께 감사하다"며 "어린 조카들에게 불심을 심어준 계기가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천도비법전수

일반적인 천도제가 아닌 신도가 보고 체험하는 확실한 영가천도 방법. 환자와 가족분이 확인 가능

1. 환자몸에 영가는 있는데 확인해줄수 없는 스님. 법사. 기공사. 치유자
2. 조상령, 객영혼, 애기령, 지박령, **영가확인 천도제**
3. 최면이 안되는 환자와의 소통과 교류(최면과는 차원이 다름)
4. **일반병, 정신병, 영가장애질환**의 구분확인**(질병의 원인파악)**
5. **난치병과 불치병뒤에 숨은 영가**를 확인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확인
6. **인체전기장을 통한 사람의 속마음 감정, 의지, 정신의 사용유형 파악으로 삶의 현재 문제점을 진단 질병, 심리, 영가확인 몸에 숨은 영가**
7. **스님들의 영가장애 천도, 불자분들의 영가장애 확인 천도**
8. 파동교감법, 영혼과의 대화법, 자율신경계통제법, 오장육부진동교감법을 통한 난치병과 불치병의 치유
9. 중풍, 치매, 당뇨, 디스크, 심장병, 화병, 빙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정신이상, 환청, 환시, 무속병, 무속인 대물림의 단절,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원인 규명이 안되는 질환
10. **영가의 수준 확인 저급영가-한과집착질병호소=무속신앙 / 중급영가-진리를 찾아 방황과 혼돈=도 닦다죽은 영가=다양한 종교, 철학, 신비함 추구 / 고급영가-전생, 깨달음에 대한 갈망 종교를 초월한 영성**
11. **죽은 영혼이 거치는 사후세계의 3단계변화의 의식과정 이해**
12. **영가들이 천도되면서 보는 빛의 다양한 차원의 세계**
13. **내가 이세상에 온 목적과 이유 영혼의 목적이해=현재의 삶의 고통 속 에서 깨우쳐야 할 부분을 이해함**
14. **수행에 진전이 없는분, 깨달음의 지름길을 가고 싶은분, 내안에 길 찾고 싶은 분**

◆10회과정 스님, 법사, 포교원, 불자님중에 영가천도와 기도법 잠재능력, 퇴마천도능력전수생모집◆

· **교육은 화.목요일 오후 2시와 주말 토.일 오후 2시에 선택**
· 교육과정은 스님의 형편에 따라 조정가능, 사찰 출장지도합니다.
· 확인이 안된 영가질환은 치유안합니다. 본인 확인 과정 꼭 거침니다.
· **그동안 교육받은 스님들의 생생한 증언과 동영상을 통한 교육** **인체전기 파동의학**

인체전氣파동의학원 043)296-5258 / 010-9242-525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21 바우빌딩 5층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apm.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보건복지부 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KOREA PROMOTION ASSOCIATION OF HEALTH MEDICINE

“장난감 이제 빌려 쓰세요”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마곡 충남 최초 장난감도서관 개관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마곡은 11월 9일 아산시청 앞에 위치한 행복무지개 장난감도서관 & 북카페 개관식을 가졌다.

충남 최초 장난감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마곡(대표이사 원혜 스님)은 11월 9일 아산시청 앞에서 위치한 행복무지개 장난감도서관 & 북카페 개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사회복지법인 마곡 대표이사 원혜 스님, 복기왕 아산시장을 비롯해 김응규 시의회의장, 이명수 국회의원, 관내 보육시설장 및 사회복지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상 2층 건물은 426.65㎡ 규모로 1층에는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북카페 2층은 장난감도서관으로 구성돼 있다. 장난감 대여는 물론 놀이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또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열린다. 장난감 도서관은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장난감놀이를 통한 심리치료는 물론 각종 상담 프로그램도 병행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법인 마곡 박재용 사무국장은 “현재 아산시에는 478개 어린이집에 약 15000여명의 원아들이 있다. 평일 주간에는 주로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말에는 맞벌이 부부가정 등 개별적 이용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장난감도서관에는 장난감과 교구 300여점이 비치돼 있으며 어린이들의 호응도와 교육적인 효과를 고려해 장난감 및 교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장난감 대여는 회원으로 가입해 사전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

장난감 300점 대여 가능
1층 북카페 휴식공간 제공
젊은 부부들에게 호응 기대

연회비는 3만원이며 장난감은 가격에 따라 1000~5000원의 이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회원은 1회 2점을 14일 동안 대여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대여기간을 7일 연장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목요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하며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다. 단 일요일 및 공휴일과 월요일은 휴관한다.

사회복지법인 마곡 대표이사 원혜 스님은 “장난감도서관 개관을 통해 10세미만 어린이 약 4만 명이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를 계기로 각 가정의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건강한 가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취지를 전했다. (041)534-6224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거제 어르신들 무병장수 하세요”

어르신 초청 나눔 한마당 공연 · 의료봉사 등 펼쳐



거제 불교는 어르신 1천 여 명을 초청 10월 28일 거제시종합 사회복지관에서 나눔 한마당을 펼쳤다.

거제불교는 어르신과 함께 ‘나눔 한마당’을 열었다. 거제불교사원연합회(회장 호석스님)와 거제시재가불자연합회(회장 김만성)는 10월 28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일대에서 지역 어르신을 모시고 행사를 펼쳤다.

거제불교사원연합회는 공연, 의료봉사, 발마사지, 네일아트, 이미용봉사, 장수촬영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 이어 어르신들은 노래방, 물리치료실, 운동시설 등을 이용하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나눔한마당은 1천여명의 어르신께 만수공양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대강당에서 공연을 펼쳤다.

또한 거제시자원봉사센터 발맛사지봉사단과 선우봉사단을 통해 200여명의 어르신께 손발톱 봉사를 실시했다. 이밖에도 대우병원, 마하병원, 설동인한의원, 고현치과 등에서 의료진들이 무료의료봉사를 펼쳤으며, 사진속 아이들 사진관에서는 어르신 사진 촬영을 실시했다.

행사를 주최한 거제불교사원연합회 회장 호석 스님(총명사 주지)은 “어르신들이 언제나 건강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길 바라며 나눔한마당 행사가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세계 평화에 동아시아 불교가 기여하길

한일 불교교류대회 화엄사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가 제19교구본사 화엄사 등지에서 ‘제8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를 10월 31일부터 11월3일까지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의 여성불자간의 우호증진과 불교 발전을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부산 삼광사 산사음악회 관람을 시작으로 범어사, 화엄사, 구례 천은사, 광주 미륵사 등지를 성지순례했다.

특히 화엄사에서는 발우공양과 참선, 예불, 단주만들기, 차담 등 1박2일 동안의 템플스테이를 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삼광사 산사음악회를 통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즐겼다.

백명숙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회장은 지난 2일 열린 환영만찬 인사말에서 “이렇게 한일 불교교류대회를 열게 돼 기쁘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양국 여성불자들이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노자와 유키 스님은 “수면 위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이 원을 그리며 넓게 퍼져 나가듯이 한 · 일 불자들의 만남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한국불자들의 따뜻한 접대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정산 스님과 부회장 홍파 스님, 사무총장 송정 스님, 백명숙 여성부회장 등 한국불교대표단과 일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니시오까 스님, 사무총장 노자와 스님, 다까노 여성부 회장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사하촌 환경 정비 시급하다

사하촌은 사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특한 형식의 마을이었다. 이 마을은 불교국가에서 사찰의 존재와 더불어 형성된 집단공동체인데, 사찰과 사하촌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며 존재해왔다. 사하촌 사람들은 스님들이나 절집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주를 책임졌고, 사찰에서는 이들에게 소정의 사례를 지불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왔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교통수단이 좋아지고 생활권이 광역화되는 바람에 사하촌이라는 개념은 이미 없어져 버린 지 오래되었다. 그래도 공간적으로는 절 아랫마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곳은 예전처럼 사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상생적 구조가 아니라 사찰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변화되었다.

사찰이 위치한 곳이 산자수명한 곳이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양한 유흥업소가 생겨난 것이라고 위안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들 유흥업소들로 인해서 사찰의 수행환경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찰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상인들의 호객행위요, 고기 굽는 냄새에다 술 냄새까지 진동을 하니 마음먹고 사찰을 찾는 사람들의 신심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는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보면 지난날 사하촌에서 이루어지던 것들로, 불교 의식구(儀式具), 불교서적, 불교서화 및 사진, 불교공예품 등 불교문화와 관련된 상품과 사찰에서 생산하는 토산품의 판매, 전통한지, 전통문양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 및 전통다원의 운영, 신도의 수행, 교육, 포교, 복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운영 등이다.

이렇게 수행과 신앙생활 및 포교 그리고 불교문화의 선양에 필요한 업종들과 마음을 내려놓고 휴식할 수 있는 행위를 담을 수 있는 업종들이 사찰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불자들은 사찰 가는 길에서부터 부처님의 미소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사찰주변의 청정함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사찰환경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아닐 수 없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강원도 ㅊ사찰 올라가는 길목에 늘어선 상점들은 수행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비가 시급하다.

성지순례는 미암사로, 방생은 백마강으로

세계최대 와불, 의자왕 출가한 곳, 소원성취 쌀바위, 진신사리증과, 인체에 효험약수 (점심공양, 입장료 무료, 단체 및 개인 성지순례 불자님을 환영합니다)

미암사의 연혁

미암사는 부여에서 서쪽 보령 방향으로 16km쯤 되는데, 부여에서 15분쯤 가다가 구룡천을 따라 40번 국도로 4km정도 올라가면 왼쪽으로 금북정맥 계향산이라는 아름다운 명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백제시대 침류왕때 쌀바위에 유씨 부인이 공을 들여 쌀도 나오고, 자손도얻어 소원도 성취했다 하여 큰 영험이 있으므로 쌀바위(충남도지방 문화재 제371호) 이름을 따서 무왕께서 쌀미(米), 바위암(岩), 미암사(米岩寺)라 하였다. 사촌마을을 미암부락이라고 했다.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응용 평가센터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원적외선이 92.1% 방출 됨으로 노화방지, 성인병 제거, 중금속제거, 곰팡이 번식방지, 신진대사 촉진,혈액순환 등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미암사 만청스님은 그 후 몇차례 전소되어 일부 복원 하고 있으며, 지금은 다시 전통사찰 양식으로 고증받아 복원 불사 중에 있다. 또한 1998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던 바, 2004년 납월 친견당시 자연적으로 3과로 자리를 옮겨 증과된 신비한 기적을 일으켰으며 2010년 9월 10일 진신사리 1과를 부여 백제 재현단지 능사에 기증 하였다.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백제권 불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부동정심의 대원력을 세워 국운융창, 국민화합을 위한 대자대비하신 삼계의 도사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부처님 세계최대열반상을 2005년 4월 17일 미암사 도량에 전국사부대중의 동참으로 원만성취 조성을 회향하게 되어 점안식을 봉행하게되었다.
소원성취기도도량 불교성지 미암사에 오셔서 악업은 소멸하고, 무량공덕 쌓으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요. 적멸보궁 세계최대열반상 불교성지 미암사는 성지순례코스로 가장 적당하며, 찾아오시는 불자님들께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암사 TV. 라디오방영 사례

mbc 드라마계백 / kbs2 전설의고향 / mbc 라디오 전설따라삼천리 / sbs 생방송투데이 / kbs1 쾌지나칭칭 / kbs2 생생정보통 / mbc 공감특별한세상 / kbs, vj특공대 / mbc TV특종놀라운세상 / sbs 출발모닝와이드 / kbs2 굿모닝 대한민국 / kbs2 생생정보통 / 불교tv / cmb생방송뉴스 / 실버TV만청문화행사 / tjb 특집프로


▷와불국화축제


▷진신사리 증과


▷만사형통 문수동자


▷쌀바위(운수대통)


▷ 장엄노천불 공원



▷10년만의 자손득남


▷33층 석탑 진신사리 점안식


▷효험 산신불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 / 팩스 041)832-1187

스님은 갈 곳 없는 길을 가고 길엔 온통 낙엽뿐이다



둘레길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보광사는 1788년 원담 스님이 창건한 신원사가 시초다.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도량을 1979년 정일 스님이 중창했다. 법당 마당으로 소나무 그림자 하나가 지나간다.

⑮ 북한산 순례길 그리고 보광사

"가을이 우리를 사랑하는 기다란 잎새 위에 / 보릿단 속 생쥐 위에도 머뭅니다 / 머리 위 마가목 잎이 노랗게 물들고 / 이슬 젖은 산딸기 잎새도 노랗습니다. / 사랑이 이울어 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 슬픈 우리 영혼은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 헤어집시다. 정열의 계절이 우리를 잊기 전에 / 그대 숙인 이마에 입맞춤과 눈물을 남기며" 북한산 둘레길 2구간 '순례길'에 들어서면 작은 안내판에 예이츠의 시 '낙엽은 떨어지고'가 쓰여 있다. 그리고 길은 '낙엽' 뿐이다. 11월 7일 그 길을 걸었다.

북한산 둘레길 2구간 '순례길'은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솔밭근린공원에서 시작해서 이준 열사 묘역 입구까지 걷는 2.3km의 길로, 모두 걷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이다. 순례길은 일제강점기에서 우리나라의 독립과 해방 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얼이 서려 있는 공간이다. 이준 열사의 묘역과 17위의 광복군 합동 묘소가 있고, 12기의 독립유공자 묘역, 그리고 국립 4.19 민주묘지가 있다. 시작 지점인 솔밭근린공원은 덕성여자대학 길 건너에 자리한 소나무 숲 공원이다. 공원에서 둘레길 안내판과 보광사 가는 길 안내판을 따라 약 200쯤 걸으면 '순례길' 간판이 나오고, 보광사 가는 길과 나누어진다. 순례길에는 보광사가 있다. 순례길 간판을 따라 길을 시작하면 보광사 가는 길과 나란히 걷게 된다. 꼬불꼬불한 길이 많아서 길이 지루하지 않고, 경사가 급한 곳은 별로 없어서 걷기 좋다.

바람이 숲을 쓸고 지나간다. 바람에 꺾인 잎새들이 다시 숲에 내려와 쌓인다. 온통 낙엽이다. 잎은 거기, 바람은 거기, 숲은 거기. 천년이나 한 철이나 한 장 낙엽이기는 마찬가지. 기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간. 쌓이는 낙엽을 밟으며 길을 시작했다. 밟히는 낙엽마다 시가 적혔고, 밟힌 시들은 가슴에 와 쌓인다. 이 길을 걷지 않았다면 가을은 끝나지 않았으리. 이 낙엽을 밟지 않았다면 예이츠는 없었으리. 길의 이름은 '순례'다.

약 300m 쯤 걸으면 국립 4.19민주묘지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대가 나타난다. 묘역이 한눈에 들어왔다. 차가운 역사인가. 뜨거운 역사인가. 뜨거운 영혼들이 차가운 땅에 누워있다. '희생당한 290명의 영령들'이 잠들어 있다고 안내판에 적고 있다. 그리고 1995년 4월 18일 '국립묘지'로 승격됐다고도 적고 있다.

전망대에서 약 200m 쯤 걸었을 때쯤 목탁소리와 독경소리가 들려왔다. 보광사다. 둘레길에서 바로 보광사로 들어갈 수 있다. 보광사는 1788년(정조 12)에 금강산에서 수도한 원담 스님이 창건한 신원사가 시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소실된 도량은 남은 당우 몇 채만으로 법등을 이어오다 1979년 남산당 정일 스님이 포교의 원을 세우고 주석하면서 불사를 시작했다. 1980년 보광사로 절 이름을 바꾸고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대승경전산림법회와 참선법회를 열어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법을 전하고 있다. 산문을 다시 열었던 정일 스님은 2004년 열반에 들었다. "이제 갈 곳 없는 길을 가야 한다." 제자가 물었다. "어디로 가신단 말씀입니까?" 스님이 마지막 육신의 입으로 말했다. "창문을 열고 자세히 살펴보아라." 기자는 스님의 다비가 있던 날 스님을 처음 뵈었다. 작은 비가 왔었다. 서산 대사의 〈선가귀감〉을 읽고 불가에 귀의한 스님은 그 날 그렇게 비에 젖은 길을 걸어서 갈 곳 없는 길을 갔다.

법당으로 오르는 길목엔 철모르는 꽃봉오리를 물고 목련이 하나 서있고,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백구 한 마리가 법당 앞에 앉아 있다. 도량을 안은 산기슭은 단풍이 들었다. 법당 마당으로는 소나무 그림자 하나 지나간다. 고요하다. 법당의 문소리도 없고, 길에서 들었던 목탁소리도 사라졌다. 먼 숲에서 산 새소리만 건너온다. 도량을 나와 다시 둘레길을 걷는다. 다시 '순례'다. 신숙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을 지난다. 밝혀야 할 역사인가. 숨겨야 할 역사인가. 자랑스럽게 살다간 그들의 생몰연대 속에 부끄러운 역사가 들어 있음을 아는 한 그들과 역사의 대비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일 것이다.

길이 거의 끝나갈 때 쯤 다시 작은 안내판에 예이츠의 '낙엽은 떨어지고'가 쓰여 있다. "헤어집시다. 정열의 계절이 우리를 잊기 전에…" 예이츠는 헤어지자고 말했고, 스님은 갈 곳 없는 길을 간다고 했다. 예이츠는 정열의 계절이 잊기 전에 헤어졌을까. 스님은 어느 길에 있을까. 오늘 '순례'라는 길을 걸었다. 스님은 갈 곳 없는 길을 간다고 했었다. 길엔 온통 낙엽뿐이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순례길에서는 국립 4 · 19묘지가 한눈에 보인다.



예이츠의 시가 길목을 열어주는 순례길에는 온통 낙엽이다.



〈북한산 둘레길 '순례길'〉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희담석 稀潭石 www.jawonet.com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전자파 걱정 없는 희담석 온열매트로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희담석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온열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
●1인용 : 58만원 ●2인용 : 85만원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볼 (희담석 60% + 제오라이트 40%)
• 열 선 : 실리콘 테프론 무자계 열선
(전자기장으로부터 안전한 열선으로 고가의 침대에서만 사용하는 열선)
2인용
1인용
●크기
1인용 : 100㎝ × 200㎝
2인용 : 150㎝ × 200㎝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희담석 방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고급신형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450mm)
※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의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정 가 66,000원
↓
할인가 56,000원
합장주 35,000원 → 할인가 30,400원
염주목걸이+합장주 SET → 84,000원
숙면으로 이끄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사용방법
베개 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려 놓은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합니다.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등
●25,000원
(황토색)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 3, 5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

생태사회와 불교

사찰의 생태적 전통과 지혜 (1)

풍요로운 산림…불교 중흥과 연결

젊은 싯다르타의 고뇌 : 모두 행복할 수 없을까

싯다르타 태자는 아버지 정반왕 (숫도다나왕)을 따라 들로 나가 농부들의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제(農耕祭)에 참여한다. 이때 태자는 뙤약볕에서 땀을 흘리며 쟁기질하는 농부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 농부의 채찍을 맞으며 힘들게 밭을 가는 소를 보았고, 또한 그 소의 쟁기 끝에 파헤쳐진 꿈틀거리는 작은 벌레들을 보게 된다. 그 순간 새들이 날와 그 벌레를 쪼아 물고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나무 아래 홀로 앉아 방금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되새기면서 "아아 가엾어라, 어찌하여 살아 있는 것들을 서로 죽이기를 거듭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생명은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여 오랫동안 깊은 명상에 잠겼다. 예민한 싯다르타 태자의 고민은 결국 왕위를 버리고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고,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처럼, '모든 생명이 더불어 행복하기 위한' 생명에 대한 고뇌에서 시작된 것이다.

신라의 혜통스님은 출가하기 전 집 근처의 수달한 마리를 잡아 고기를 끓여먹고 그 뼈를 마당가에 버렸다가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 그 뼈는 보이지 않고 핏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를 따라가보니 전날 수달이 잡았던 그 근처 보금자리에 수달의 뼈가 고스란이 형체를 이루고 새끼 다섯 마리를 안고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스님은 그 감동과 죄책감으로 뒤에 출가를 하였다고 한다.

신라의 진표율사는 출가전 전북완주의 집에서 살면서 사냥을 나갔다가 개구리를 잡아 버들가지에 꿰어 물에 담가두고는 그것 잊고 집에 돌아왔다. 이듬해 다시 그곳으로 사냥을 가서 그때까지 버들가지에 꽂힌 채 발버둥치며 살아 울고 있는 개구리를 보고, 죄책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뇌하다가 결국 출가를 하셨다 깨달음의 세계는 결국 모든 생명이 어떻게 함께 행복할 수 있는가를 찾는 길인 것이다.

나무와 숲의 종교인 불교

불교는 숲과 나무의 종교이다. 부처님은 룸비니 숲의 무우수(無憂樹 아쇼카나무) 나무아래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보리수(菩提樹-피팔라나무) 아래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리고 녹야원(鹿野苑 사르나트)숲에서 최초로 설법을 하셨고, 쿠시나가라 숲속 두 그루의 사라수(沙羅樹)아래서 열반에 드셨다.

그리고 부처님은 빔비사라왕이 제공한 왕사성의 죽림정사라는 숲에서 제자들과 머물며 수행을 하셨다. 수행자들이 머무는 숲을 훼손하는 것은 삼보를 훼손하는 것과 같고, 초목, 숲, 산림, 강과 연못 (川澤)을 파괴하지 말라고 (니건자경)에 말씀하셨다. 또한 부처님은 기회가 있을때 마다 왕과 장자들에게 숲을 가꾸라고 권유하셨다. 한 신이 부처님에게 '누가 좋은 공덕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부처님은 '과일나무, 그늘나무, 꽃피는 나무를 심고, 공원(숲)을 만들고, 사원을 짓는 사람' 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불교의 계율을 적어놓은 사분율에는 '땅을 파지 말라. 살아있는 나무를 꺾지 말라' 는 부처님의 당부가 실려있다.

산속에서 산을 지켜온 사찰

산중에는 반드시 사찰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토의 65%가 산인 이유도 있고, 산악신앙이 강했던 이유도 있었으며, 선불교가 들어와 구산선문을 열면서, 속세와 떨어진 산중에 수행처를 만들려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정책으로 불교가 혹독한 탄압을 받아 스님들은 한양의 성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평지사찰은 문을 닫고 결국 산중사찰만 남게 되었고, 결국 절은 산속으로 내 쫓기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스님들은 북한산성이나, 남한산성, 위봉산성등 산성을 짓는데 동원되었고, 이를 지키고 유지하게 하는 역할로도 산중에 사찰이 있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신라말 도입된 풍수지리설의 산천비보설(山川裨補說)이라 하여 산은 국가의 존망성쇄와 직접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름난 산에 사찰을 지어 산의 기를 지키고 허한 곳을 보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쇠약하고 탁한 곳에 절을 세워 인위적으로 그 결함을 보강하기 위해 산에 많은 절을 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금강산, 비로봉, 반야봉, 문수봉 등, 우리나라의 산이름 모두 부처님과 보살의 이름

깨달음은 모든 생명 행복 찾는일
불교는 숲과 나무의 종교
내셔날 트러스트 통해 산림지켜
총림… 숲속에 모인 수행자 지칭

이 아닌 봉우리와 산이 없을 정도로 불교와 산과 숲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절이 없는 숲과 산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숲이 없는 절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일찍이 사찰이 벌려온 내셔널트러스트운동

1895년 영국에서 시작된 내셔널트러스트운동(National Trust Movement)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모금을 통해 보존할 만한 자연과 문화유산을 아예 사들여 영구보존하는 운동이다. 영국은 국토의 1.5%, 그리고 해안선의 17%를 내셔널트러스트운동으로 보호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아주 뜻있는 환경운동이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그중 많은 부분은 사찰의 소유의 토지이다. 근대에 들어 도심근처의 사찰부지는 이미 정부나 기업에 매각되어 개발되었지만, 산업화 이후에도 국립공원이 이렇게나마 잘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넓은 사찰림과 주변의 숲과 나무, 산을 소유하고, 이를 깨달음과 수행의 도량으로 지키고 가꿔온 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바로 불교는 이미 실질적인 내셔날 트러스트운동을 통해 산림을 지켜온 것이다. 특별한 예로는 속리산의 오리숲은 법주사가 지켜내었고, 오대산 전나무숲은 월정사와 상원사가 아니었더라면 그야말로 무주공산(주인없는 빈산)이 되어 땔감으로 없어지거나, 일제때 전쟁물자로 무지막지한 벌목을 막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사찰은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는 금산(禁山)과 특정한 용도의 임산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사찰이 특별 관리하는 산인 봉산(封山)의 책임을 맡겨졌다. 그래서 원주 치악산 구룡사는 왕실의 건축재와 목관재료인 금강송을 내는 황장봉산 관리를, 통영의 벽방산 안정사는 다식과 약재의 원료인 송화가루를 내는 송화봉산 관리를, 하동의 지리산 연곡사는 신주목으로 쓰이는 밤나무를 내는 율목봉산의 관리를 맡았다.

숲을 지키고 가꾸는 숲 전문가 수행자들

속세를 버리고 불교에 귀의하는 것을 출가(出家))라고도 하지만, 입산(入山)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선원, 강원, 율원이 모두 있는 큰 절을 총림(叢林)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해인사의 해인총림, 송광사의 조계총림, 통도사의 영축총림, 수덕사의 덕숭총림, 백양사의 고불총림 등 '숲속에 모인 수행자 집단'을 일컫는 말이되었다.

신라의 의상대사가 심었다는 경북 울진 성류굴의 96호 천연기념물 굴참나무, 지나가던 큰 스님이 샘에 목을 축인 뒤에 짚고 다니던 은행나무 지팡이를 꽂아둔 것이 자라 지금 1천년에 이른 원주 문막읍 반계리의 은행나무, 이천의 반룡송, 정선 정암사의 주목, 영주 부석사의 선비화, 승주 송광사 천자암 쌍향수, 청도 적천사 은행나무 등은 바로 나무와 숲과 어우러 함께 해온 숲의 역사이자 불교의 역사인 것이다.

옛날 지나가던 어떤 눈맑은 스님의 가르침으로 조성되었다는 남원 서어나무숲은 지금도 찬 북풍을 막아주고 홍수로부터 마을을 보호해 주는 풍수비보숲이며, 청주 병암리 개울가에 소복의 원귀가 해마다 젊은이들을 데려가자 한 스님이 나타나 그 개울가에 버드나무를 심으라고 가르쳐주어, 나무를 심은 뒤부터 다시 평안을 찾게 되었고, 이 숲은 지금도 홍수로 마을사람을 지켜준 제방림이 된 것이다. 그리고 백양사의 비자나무숲은 천연기념물 153호로 비자나무가 구충선분이 있어 1970년까지 스님들이 열매를 거둬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한다. 또한 고성의 벽방산 안정사 소나무숲은 당시 세도가가 이 숲을 빼앗으려하다가, 주지스님이 8년간 한양을 오르내리며 결국 고종황제로부터 금송패 3개를 받아 이 소나무를 지켜냈다. 이뿐 아니라 다솔사 소나무숲은 이곳이 장군혈 명당임을 알고 빼앗으려는 세도가로부터 온갖 노력을 통해 결국 지켜낸 일화가 있으며, 구례 화엄사 올벚나무 군락,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군락, 백양사 극락보전 뒤 야생차와 비자나무 군락, 고창 선운사와 구례 화엄사의 동백나무 숲 등은 절집의 불이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공적으로 스님들이 조성한 방화림이었다.

그리고 절에는 산감(山監)이라는 산림감시원을 두어 산의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고, 산짐승들을 보호하는 등, 산과 숲을 관리 감독하는 소임을 대중스님들이 돌아가면서 맡았다. 그래서 땔감이 없던 시절 무분별한 화목과 벌채를 막고, 산판(山坂)으로부터 산과 숲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환경을 지켜내었던 것이다.

다산 정약용의 시에는 산림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들을 한 스님들의 행장을 보여주고 있다.

"…산에 솔 기르기 그 얼마나 애 썼던가
스님 상좌 할 것없이 성심 성의 가꿨어라
땔나무 아끼느라 찬밥으로 끼니하고
골골마다 순찰돌며 새벽종을 울리었네
고을 성안 초부들도 감히 얼씬이나 하였으랴
시골 농민 도끼야 얼씬이나 하였으랴…"

비자나무숲은 스님들이 심고 가꾼 것이 많아, 조선시대들어 왕실에서 사찰에 비자나무 공출이 심했고, 관리들의 수탈도 심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실린 '승발송행(僧拔松行)' 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오늘 아침 관의 공문으로 비자나무를 바치라 하니 이 나무까지도 뽑아 버리고 절문을 닫아야지요"라고 하였을 정도이다.

그리고 용성스님이 망월사에서 1925년 만일참선결사를 시작한뒤 대중들이 점차 늘어나자 식량걱정보다 땔감이 걱정이었다. 그래서 산중임해(山中林海)에 살면서 함부로 나무를 베어쓸수 없다하고는 대중을 거느리고 통도사 내원암으로 내려가셨다. 지금 도봉산의 많은 노송들은 용성큰스님의 큰 자비심의 은덕으로 살아남은 나무들인 것이다. 불교의 중흥은 산림의 중흥과 맞닿아 있다. 뒤집어 말해 풍요로운 산림은 불교의 중흥과 연결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불교는 숲과 나무의 종교이다. 그래서 불교의 중흥은 산림의 중흥과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진은 2005년 아스팔트 길을 깨고 흙길로 만들어 더욱 아름다워진 월정사 전나무 숲길을 스님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108인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선정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 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500인 선정 발기 협의회
1차 108인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선정

(종사, 대종사 급만 동참 가능)

법하께서도 추진위원회 발기인으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심사후 우선 세계불교와 한국 불교 승가 정화 차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출가 의식을 초발심의 행자로 돌아가
1주일간 종단불문, 법납, 속납까지 불문하여 남방불교의 종정 및 부종정 스님들의 지도하에 종정스님의 사찰에
입소하여 단기수행을 완료한 스님 중에 우선 108명의 원로 및 증진 비구를 모시게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보십시오.
한평생 부처님의 은덕으로 수행해온 큰스님들께서 앞당겨 후학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신다면
한국 불교사에 새로운 역사와 기운이 샘솟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만이
추대위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고승 및 증진 스님들께서 500인 추대위원을 심사 위촉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 2012년 12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

출발일시 : 2013년 2월 28일(음력 정월 19일) 6박 7일간 소승불교 체험 수련 정진
법납, 속납 일체 불문하고 대우 및 예우 일체 없음

미얀마 연방 승가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 木鐸 慧恩
전화 : 02-733-5665.5670 011-229-6061 팩스 733-5671

불교 승단 품수 의식 공고

귀의 삼보하옵고,
불교 정법 수호의 깊은 의지로 지탄과 격려를 받으며 희생할 각오로 소승 목탁 글월 드리립니다.
한국 불교계에는 300여 종단이 있습니다. 종정스님 그리고 총무원장 스님 각 원장들 그분들의
명칭이 하나같이 대종사, 종사입니다. 아니 어찌보면 모두가 대종사요. 너도나도 대종사 종사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불교계에서는 거의 대부분 별 위식과 고시가 없이 종헌 종법에 의거하여
품수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우리들에게도 정리가 되고 조금은 걸러서 그래도
부처님 전에 부끄럽지는 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동안 종단을 불문하고 스님들께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 및 부종정 스님들을 3증 칠사와 은 계사로 모시고 500여 스님들의 축하속에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에
따라 떳떳하고 자랑스런 구족계 의식을 봉행하여 왔습니다. 생각의외로 좋은 반응을 받고 있기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미얀마 연방 승가회와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에서는 2013년 2월 28일 ~ 3월 7일에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속에 봉행되는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좋은 인연을 맺어 부처님의 가피 속에 정진하는 출가승으로 다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大僧正 목탁 혜은 합장

국제 포교사 자격 고시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구족계 자격자
1. 구족계 자격 : 한국의 모든 종단 소속 비구 스님
2. 법납이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출가승에 한함
3. 30명 한정 선착순 접수

종사 대종사 품수식
1. 법납 25년 이상 : 종사 2. 법납 30년 이상 : 대종사
※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2차 : 심의의원회
최종심사 스님들께 품수 인증서 및 패 세계 불교 지도자들이
수여하는 국제 불교 지도자 포교 공로 훈장 수여

구족계 수계자 전원 부종정 스님 사찰에 입소
수행 결사 (위빠사나, 발우공양 예불의식) 체험 후
구족계 봉행 남방불교 전통의 불명 수여

일시 : 2013년 2월 28일~3월 7일까지 (1주일간)
봉행 행사 이후 한국에서 재 추대행사 계획

2013년 4월 16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룸 의식 봉행 및 연예인 축하 공연

전화 : 02-733-5665.5670 011-229-6061 팩스 733-5671

부처님 발자국 없는 고국 땅에 불법 심어

⑦ 논의제일(論議第一) 가전연 존자

〈하〉쉼없는 전법



〈거조암 가전연 나한상〉



그림 · 김홍인

대중들 "모르면 가전연에게 묻자"
고국 아반티국의 왕부터 교화
설법에 감동한 국왕 불법에 귀의
'염부나제금광여래' 수기 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은 점점 많은 곳으로 전파되어 갔다. 당시 인도를 구성하고 있던 강대국들이 불법을 받아들였고, 부처님과 십대제자를 포함한 제자들의 노력으로 전법의 미래는 밝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없는 것. 교단의 중심이었던 사리불과 목련이 열반하고, 곧이어 부처님의 열반이 있으면서 교단 내부의 변화와 흔들림은 불가피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가전연의 존재는 대단히 중요했다.

'논의'의 창시

가전연의 설법은 '새로움'이었다. 그 새로움을 바탕으로 한 가전연의 전법은 눈부신 불사였다. 가전연이 부처님과 함께 사위성 남쪽 타포타정사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사밋디라는 비구에게 천인이 찾아와 '한밤 현자의 게송'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게송을 알지 못했던 사밋디는 바로 부처님을 찾아갔다. 부처님께서 게송을 읊으셨다. 잡아함경(131 · 일야현자경 一夜賢者經)에서 전한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떠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현재는 일어나는 현상들(法)을 바로 거기서 통찰한다. 정복당할 수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것을 지혜 있는 자 증장시킬지라. 오늘 정진하라. 내일 죽을지 누가 알리오. 죽음의 무리와 더불어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노력하여 밤낮으로 성성하게 머물면, 그를 일러 '지복한 하룻밤을 보내는 고요한 현자'라 하리." 사밋디는 부처님의 게송을 외우고 또 외웠다. 하지만 게송의 깊은 뜻을 잘 알 수 없었다. 사밋디는 다른 비구들과 함께 가전연을 찾아간다. '일야현자'란 '위빠사나를 증장시키는 수행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가전연이 사밋다와 대중에게 설한다. "도반들이여, 어떻게 과거를 돌아봅니까? '과거의 나의 눈은 이러했고 형색들은 이러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의식은 열망과 욕망에 묶이고 의식이 열망과 욕망에 묶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길 때 과거를 돌아봅니다." 가전연은 게송의 문장 하나하나를 설명해 나갔다. "과거와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처해 있는 순간을 잘 관찰하고 집중하는 것이 현자의 길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가전연의 설법을 듣고 난 사밋디와 비구들은 기뻐하며 돌아갔다.

귀향

가전연 존자가 국왕의 명으로 부처님을 뵈러 갈 당시, 아반티국 안에서는 부처님을 모시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컸다. 이미 바라문의 나라인 마가다국과 코살라국에서 부처님의 교단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역시 바라문의 나라였던 아반티국의 바라문들은 부처님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아반티 국왕은 국가의 중심이었던 바라문들의 반대를 무릅 쓰고 가전연을 기원정사로 보내기로 했고, 가전연 역시 목숨을 건 길을 떠났던 것이었다. 아반티국 왕이 자신의 나라가 바라문의 나라임을 알면서도 부처님을 모시고자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바라문이 무너지고 부처님 교단의 세력이 커지기 시작한 마가다국, 코살라국과의 관계 등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치적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부처님을 모시겠다는 국왕의 결정과 그 명을 따라야 했던 가전연의 길은 당시로서는 쉽지 않았던 일이었다. '논의'라는 새로운 설법체계를 창시한 가전연의 명성은 하루하루 높아갔다. 어느 때부터인가 가전연은 아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고국의 백성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불교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코살라국의 상황과 불법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가전연으로서는 아직 미망 속에 있는 고국의 백성들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가전연은 고국으로 돌아간다.

부처님의 열반을 기다렸던 것인지에 대해선 알 수 없지만 가전연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부처님이 열반에 든 이후로 가늠된다. 결국 아반티 국왕은 부처님을 친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인도 전역을 걸으며 전법을 펼쳤던 부처님이었지만 아반티 땅엔 인연이 없었다. 짐작컨대 가전연은 안타까웠을 것이다. 고국 아반티에 부처님의 발자국이 없다는 것이.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전연의 발걸음은 남다르고, 가슴 속에 품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절한 것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가전연은 고향으로 향했다.

국왕의 귀의

고국으로 돌아온 가전연의 입지는 고국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쉽지 않았다. 더구나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돌아온 가전연으로서는 고국 땅을 밟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일이었다. 가전연은 국왕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 당시 아반티국의 왕은 빳쪼따였다. 가전연은 국왕에게 필요한 법을 골라 설한다.

"백성들에게 악행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악행을 하게 한 사람은 그 과보를 받습니다. 모든 중생은 자기가 지은 업에 얽매여 있습니다. 남의 말에 의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의 말에 의해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전연은 왕에게 악행과 그 과보를 먼저 설했다. 스스로 저지르는 악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 또한 크나큰 악업이 된다는 것을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이 되거나 성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언행을 살필 것을 설하고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밝게 깨닫는 이는 더 이상 죽이고 빼앗는 싸움에 연루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설사 재물을 잃더라도 홀로 살 수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참되게 살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대비시켜 무상함을 깨우치고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그리고 지혜로운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했다. "대왕이여, 장님이 보듯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듯이 들으며, 이미 알고 있어도 벙어리처럼 침묵할 수 있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약자처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짓 없는 선행을 쌓게 되고 그 복을 잃지 않고 간직하게 됩니다." 가전연의 설법은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일국의 국왕이라면 현상을 신중하고 냉철하게 볼 뿐만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고통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국민의 소리를 신중하게 들을 뿐 아니라 들리지 않는 고통의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권력을 행사할 때는 국민의 입장으로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설했다. "폭군이 나타나면 국민은 전쟁이나 폭력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어리석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백성은 빈곤과 불안함에서 허덕여야 하며, 자애롭고 지혜로운 국왕이 쌓는 복덕이 바로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전연의 고국에서의 첫 전법은 '국왕의 교화'였다. 가전연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된 국왕은 설법에 감동한다. 그리고 국왕이 가전연에게 귀의하겠다고 하자 가전연은 "국왕이시여, 제가 아니라 부처님께 귀의하십시오."라고 말한다. 가전연 존자가 고국으로 돌아온 시기는 이미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뒤였던 시기다. 이 시기는 부처님의 열반으로 인해 법이 산실되고, 계율이 무너지고, 교권이 불안해지는 등 교단의 흔들림이 있던 시기였다. 그로 말미암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어 자신의 무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국왕의 귀의처가 부처님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가전연의 모습은 십대제자로서의 본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반티 국왕은 비록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으나 가전연을 통해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

쉼 없는 전법

가전연은 고국에서 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에서 논리 정연한 설법으로 전법을 펼쳤다. 다른 십대제자와 마찬가지로 가전연 역시 포교에 대한 원력은 당연했다. 그는 모든 이가 꺼리던 마두라국까지 불법을 전한다. 가전연이 마두라국 군다 숲에 있었다. 마두라의 국왕 아반티뽓다는 아반티국 빳쪼따왕의 외손자였다. 아반티뽓다는 가전연 존자가 군다 숲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익히 가전연의 명성을 알고 있었던 국왕은 곧바로 그를 찾아간다. 잡아함경(548. 마투라경)에서 전한다. "가전연 존자여, 바라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문들만이 최상의 계급이다.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 바라문들만이 밝고 다른 계급은 어둡다. 바라문들만이 청정하고 다른 계급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바라문들만이 범천의 아들들이고 적출들이다.〈후략〉' 이에 대해 가전연 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두라 국왕의 이 물음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부처님의 출현으로 인해 기존의 가치관들이 '증명'을 받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도대체 불법은 무엇이고 그 법이 그토록 훌륭하다면 지금까지 따랐던 바라문의 가치관과 가르침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는 것이다. 바라문 나라의 국왕으로서는 가장 절실한 물음이엇던 것이다. "국왕이여, 그것은 모두 업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왕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가전연이 설했다. "이제 국왕께 내가 묻겠습니다. 국왕은 바라문 출신의 왕입니다. 당신은 당신 나라의 모든 계급의 사람들을 왕의 힘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그런 당신의 다스림을 따릅니다. 그럼 바라문이 아닌 다른 계급의 사람이 만약 왕이 되어 왕의 힘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면 그 역시 백성들은 그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백성에게 왕의 힘이란 어느 계급의 사람이건 다 똑 같은 것입니다. 바라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이 가진 '힘'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라문이 도둑질을 한다면 왕은 그에게 벌을 줄 것이며, 바라문이라도 그는 '도둑'이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급의 사람들을 구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문이 제일이고 청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모두 업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인도를 지배했던 사성(四姓)계급, 카스트제도의 뿌리를 흔드는 질문이고 대답이었던 것으로, 역시 가전연의 논리체계와 탁월한 설법이 잘 나타나 있는 대목이다.

상수 없는 교단의 빈곳 채워

부처님의 법을 듣고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대중들은 그 때마다 "가전연 존자에게 물어봅시다."고 했다. 그 때마다 가전연은 부처님께서 약설한 법을 다시 설해주었고, 부처님으로부터 논의제일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부처님의 십대제자 가운데 이름이 가장 낯선 인물이 아마도 가전연 존자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경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법화경 수기품에서 부처님은 가전연 존자에게 수기를 내린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알리니 가전연 비구는 8천만 억 부처님들을 공경, 공양하며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 여래께서 열반에 드실 때, 한 분 한 분을 위해 높이가 천 요자나에 주위가 50요자나나 되는 금, 은, 유리, 수정, 빨간 진주, 마노, 호박의 칠보로 된 탑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탑을 꽃, 훈향, 향수, 화만, 도향, 분향, 옷, 우산, 깃발로 공양할 것이다. 그는 인간으로 윤회하는 마지막 몸으로, 이 세상에서 '염부나제금광(閻浮那提金光)'이라는 이름의 존경 받는 여래가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since1973
2013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반야동자(12절)
3,000부 이상 @ 8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보리심(한지)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 × 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행복한하루(탁상)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cm × 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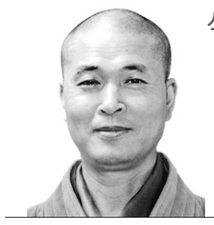


선(수첩)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cm × 13.4cm • 매수 : 18장



연꽃향기(미니)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
• 규격 : 8.9cm × 9.5cm
• 매수 : 16장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소중한 것을 버려라

학승이 물었다.
"밝은 달이 중천에 걸려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아직 계단 밑에 있는 사람이네."
학승이 말했다.
"원컨대 스님께서 계단 위로 끌어 올려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달이 지고 난 다음 오너라."

問 朗月當空時如何 師云 猶是階下漢 云請師接上階 師云 月落了來相見

낭월당공(朗月當空)은 화두가 보름달처럼 선명하게 들리는 것을 말한다. 이 경지는 수행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고급 단계이다. 그러나 이 단계도 마지막 단계는 아니다. 여기서도 한 단계 더 넘어서야 한다. 그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낭월당공을 던져버릴 때 알 수 있다. 명심하라. 이 공부는 바보가 되기 위한 공부가 아니다. 소중한 것을 버려야 진정한 불지에 오른다.

조주 스님이 어느 때 대중에게 이야기했다.
"내가 처음 약산에 왔을 때에 1구를 얻은 이후로 쭉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배가 불러 아무런 허기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

師有時示衆云 老僧初到藥山時得一句子 直至如今 飽飽地飽

이 일은 원래 한번 배가 부르면 평생 배가 부른다.

조주 스님이 거실에서 좌선하고 있을 때 주사(主事)가 알렸다.
"대왕께서 오셨습니다."
대왕이 예배를 하고 나자 근시(近侍)의 신하가 물었다.
"일국의 주인인 왕이 오셨는데 어찌하여 선상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내가 있는 이곳에서는 하급 사람이 오면 3문까지 마중 나가서 응접하고, 중급의 사람이 오면 선상에 내려서 응접하며, 상급 사람이 오면 선상에 앉은 채 응접하는 거요. 대왕을 중급이나 하급 사람처럼 취급할 수는 없어요. 대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대왕은 기뻐서 스님을 재삼 배청(拜聽)하고 공양 올렸다.

師因在室坐禪次 主事報 大王來禮拜 大王禮拜了 左右問 土王來爲什麽不起 師云 你不會老僧者裡 下等人來 出三門接 中等人來 下禪床接 上等人來禪床上接 不可喚大王作中等下等人也 恐屈大王 大王歡喜 再三請入內供養

최소한 총림의 방장이라면 임금을 상급 대접을 해야지 하급 대접을 해서는 안 된다. 조주 선사는 임금을 상급 대접했다. 그런데 스스로 상급인인줄 아는 임금이 요즘에 있을까?

조주 스님이 주원외(周員外)에게 물었다.
"자네 아직도 임제(臨濟)의 꿈을 꾸는가?"
원외가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을 보고 스님은 또 물었다.
"어느 쪽에서 보는가?"
원외가 말했다. "이쪽에서 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어디에서 임제를 보는가?"
원외는 대답이 없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주원외는 어디에서 왔는가?"
원외가 말했다. "온 것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까마귀도 아니면서 날아왔다 날아갔다 하는군."

師因問周員外 你還夢見臨濟也無 員外豎起拳 師云 那邊見 外云 者邊見 師云 什麽處見臨濟 員外無對 師問周員外 什麽處來 云非來非去 師云 不是老鴉飛來飛去

임제가 준 화두를 든다면 그것이 임제의 꿈이다. 어느 쪽에서 보는가 물었을 때 3번을 때려야 하고, 어디에서 보는가 물었을 때는 문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에 대하여 반박할 자가 있는가?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면 옳은 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말하면 본전도 찾지 못한다. "주원외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고 물었을 때 자신의 공부를 다 내놔야 한다. 만일 나에게 묻는다면 "백두상설(白頭常雪)"이라고 대답하겠다. 천하의 납자들이여! 나의 이 대답이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알겠는가?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㊹

이익과 존경과 명성과 공덕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이티붓타카(如是語經)〉

어느 해 겨울 우리 가족들은 김용(金庸, 1924~)의 소설을 읽느라 밤잠을 잊었던 적이 있다. 그의 소설을 한마디로 무협소설이라 하지만, 무협소설의 역사에서 신기원을 이루었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리라 본다. 그의 소설을 한 권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소설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많은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졌다. 소설을 먼저 읽은 사람에게는,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은 대개 재미가 없게 마련이다. 책을 읽을 때 상상했던 그 광활한 세계를 영화가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용의 작품 중 〈천룡팔부〉 역시 그런 예에 속하리라 본다. 영화로 만든 〈천룡팔부〉는 그다지 잘 만든 것 같지도 않고, 재미도 없다. 그러나 단 한 장면으로 인하여, 나는 오래도록 이 영화를 기억하고 있다.

무협소설이나 무협영화는 '장르의 관습'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틀에 박힌 상황이 나오는, 뻔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악한이 있고, 악한의 무도(無道)함을 견디다 못한 정파(正派)의 사람들이 뭉쳐서 그 악한을 다시 무찌른다는 이야기. 우리 고대소설의 주제인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세계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불교도의 입장에서, 그래도 늘 자랑스러운 것은 소림사(少林寺)의 존재감이다. 소림사는 늘 정파의 마지막 의지처가 된다. 민중들에게 불교가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고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그런데 〈천룡팔부〉에서는 이 소림사마저 힘을 못 쓴다. 새롭게 등장한 악의 세력 앞에, 가을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신세가 따로 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적들이 쳐들어오기 무섭게 담 넘고 산 넘어 삼십육계 줄행랑을 치는 스님들의 뒷모습이다. 부처님은 누가 지키고, 도량은 누가 지킬 것인가.

소림사의 최고 고승, 방장스님은 절을 지키고 있다. 도량을 여기저기 살펴본다. 누가 아직 도망 안 가고 지키고 있나 싶어서이다.

장경각에 이르니, 한 행자가 책정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절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젊은 행자다.

"왜 너는 도망을 가지 않느냐? 스님들도 다 도망을 갔는데…."

"장경각에서 책정리 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서요. 아직 정리할 책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난 판에, 절이 불타는 와중에 책정리라니…. 한가로운 소리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성실성이 있다.

"밖에 나가봐라. 적들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와"라는 방장 스님의 말에 돌아온 행자의 대답은 "새까맣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였다.

여기에 방장 스님은 "그렇지 않다. 언제나 적은 단 둘밖에 없다. 하나는 명예고, 다른 하나는 이익이다" 라고 말한 뒤 갑자기 행자를 돌려 앉히고서는 등에 장풍으로 그림 하나를 그려준다. 무술도보(武術圖譜)이다. 그리고서는 도망가라 말씀하신다. 무사히 도망한 이 행자가 십여 년이 흐른 뒤, 다시 소림사를



그림 · 박구원

되찾고 정의를 가져왔음은 물론이다.

명리(名利),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우리의 가장 큰 적이다. 범행(梵行), 즉 청정한 행을 실천하는 것조차 남에게 존경을 받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한 불도수행이라 말할 수 없다. "또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알려야 겠다'는 의도에서 범행을 실천하는 것도 아니다."(이미령 옮김, 〈기쁨의 언어, 진리의 언어〉, 민족사, pp.202)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스님께서 정혜결사를 일으킨 것도 바로 명리에 빠져있는 교단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명리를 떠나자, 그것이야말로 결사정신이고 출가정신이다. '결사'나 '출가'가 나의 연구주제가 되어 있는 까닭이다. '명리 떠나기' 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38〉

중생의 번뇌가 많으므로 번뇌 이름도 다양

번뇌-③ 번뇌의 다른 명칭들

불교에서 인간의 삶이란 괴로움[苦]의 세계이다. 그 괴로움의 근원에는 번뇌가 있다. 그러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괴로움의 근원인 번뇌에 대해 명확히 자각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대해 알아 채지조차 못하고 그 근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고로부터의 해탈'이라고 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번뇌(煩惱)는 '극심한 고통' '분노' '무지' '탐욕' '집착' 등을 의미하는 범어 '끌레샤(kleśa)'의 한역이다. 인간의 모든 행위가 번뇌의 근원인 것이다. 예컨대 살인, 도둑질, 사음의 세 가지 몸의 번뇌, 거짓말, 비방, 욕설, 궤변의 네 가지 말의 번뇌, 탐욕, 분노[원한], 회의[의심]의 세 가지 마음의 번뇌 등이 모두 끌레샤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번뇌와 완전히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수면(隨眠)이다. 수면은 번뇌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하지만 굳이 수면이라고 한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우선 수면은 범어 '아누샤야(anuśaya)'를 뜻풀이 한 것으로 본래는 나쁜 방향으로 향해가는 '경향', '성향'의 의미이다. 이를테면 인간의 심신을 옭아매어 자유를 빼앗고 그로 인해 괴로움에 끌려 다니는 인간이 점점 고통에 빠져 혼미해 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즉 번뇌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말한다. 또한 번뇌의 종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번뇌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채 인간인식의 가장 깊은 곳에 해당하는 제8알라야식에 잠자듯이 잠재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잠재돼 있을 뿐 조건에 따라 표면의식에 일어나기 때문에 번뇌의 종자라는 의미로 수면이라고 한다.

번뇌와 수면과 같은 대표적인 번뇌이외에도 수많은 번뇌의 별칭들이 있다. 우선 번뇌의 옭아매는 성질을 강조한 전(纏)이 있다. 전은 범어의 '빠리아바스따나(paryavasthāna)'의 의역으로 분노나 욕망에 의해 소유된 상태를 말한다. 즉 분노와 탐욕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시 말해 번뇌가 인간의 몸과 마음의 자유를 빼앗은 상태다. 다음으로 인간의 선한 마음을 덮고 방해한다는 의미의 번뇌가 개(蓋)이다. 개는 범어의 '니바라나(nivaraṇa)'의 의역으로 '방해하는 것' '간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마음을 덮어 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한다. 또한 번뇌의 속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결사(結使)이다. 결사는 범어 '쌈요자나(saṃyojana)'의 의역으로 함께 묶는 것을 뜻한다. 번뇌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옭아매서 고뇌의 세계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한문의 사(使)는 번뇌가 인간을 고뇌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해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몸과 마음을 옭아매어 자유를 빼앗는다는 점에서는 계(繫)도 박(縛)도 동일한 번뇌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전, 개, 결사, 계, 박 은 번뇌가 인간의 삶의 모든 면에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스스로 속박되어 가는 것을 강조한 번뇌로는 취(取)와 액(軛)이 있다. 취는 탐욕으로 인해 대상에 대해 집착하는 것이다. 액은 소를 수레에 메는 멍에를 말하는 것으로 소가 멍에로 인해 수레를 끄는 괴로움에 처해 있듯이 인간이 여러 가지 고뇌에 얽매이도록 하는 것을 비유로서 표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번뇌는 본래 환상과 같아서 그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번뇌는 닦아낼 수 있는 더러움과 같으므로 구(垢)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더러움이 외부로부터 덧붙여진 경우의 번뇌를 객진(客塵)이라고 한다. 번뇌는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불어 들어온 먼지와 같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번뇌는 바르고 선한 것을 휩쓸어 없애 버리므로 사납게 흐르는 폭포에 비유되어 폭류(暴流)라고도 한다. 번뇌를 일컫는 말이 이토록 다양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들의 번뇌가 그 만큼 많기 때문일 것이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불교전문강원 학인 모집

각 종단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불교강원을 개설합니다.

경전과목
◆ 사집반
◆ 초발심자경문(원효스님 발심장 부문)
◆ 치문, 도서, 선요
※ 특강 : 선문 촬요, 금강경

대 상 각종 종교단체 스님 또는 스님이 되고자 하는 분으로 성별에 제한없이 누구나 수강 가능

강 사 도열스님
(통도사 강원, 월정사 강원, 마곡사 강원, 강주 역임. 범어사 중강 역임)

불교의식 예불, 대령관욕, 관음시식, 다비식 등

강의시간 매주 화, 목, 일에 강의

※ 스님이 되셨으나 한문으로 된 불교경전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스님들을 위하여 종단을 초월한 교육원으로써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 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금정산 금륜사 불교전문 강원
문의 055)383-5830, 055)383-7009 / 011-556-5830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1036-1번지

극 락 사
템플스테이 안내

1. 초급 중급 고급 기도 법 배우기
2. 자비명상, 마음치유명상, 행복명상,성격개조 명상, 임종명상, 걷기명상
3. 위파사나 : 사념처 관법, 五정심 관법
4. 간화선 = 선정삼매와 간화선 수행
5. 단전호흡, 도인체조, 향공 , 오금희, 육단금 ..대안기공, 태극권 등...
6. 단기 출가(2박 3일~ 6박 7일까지)

수월스님의 BTN 불교 TV 강좌 안내
1. 월요일 17:00 2. 금요일 08:00 3. 일요일 23:00



02)434-1717
서울 중랑구 망우 본동 73-10번지 극락사

설법 · 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종 합 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연수안내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8시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강사소개
[설법연수원 회장 우불 김 철 회 박사]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최면시술사
40년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인 우불 김철회 박사 특별지도
[설법연수원 원장 처 명(선광)]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동방불교대학 졸업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한 국 설 법 연 수 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

나의 서원 나의 신행 〈20〉

비구니 교육 강단 50여년

비구니 교육의 역사 명성 스님 운문승가대학원장



법계명성(法界明星)스님은 … 1931년 경북 상주 출생, 1952년 해인사 국일암에서 선행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58년 선암사에서 성능 스님에게 전강을 받고, 선암사 강원 강사 3년, 서울 청룡사 강원 강사로 10여 년간 후학을 지도하였다. 1970년 운문사 승가학원 강사로 취임, 1977년부터는 운문사 주지 겸 학장으로 재임하면서 1,700여 명이 넘는 졸업생과 13명의 전강제자를 배출하는 등 비구니 교육에 헌신하였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3, 4, 5, 8, 9대) 역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동대학원에서 석 ·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 비구니 최고 품계인 명사 법계를 품수 받았다. 전국 비구니회 회장(8, 9대)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운문승가대학원장, 운문사 회주로 운문사 죽림원에서 주석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가을 단풍이 봄꽃보다 아름답다더니, 만추의 운문사는 황홀 그 자체다. 운문사로 향하는 기나긴 차량 행렬, 불쑥 불덩이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한없이 뿌듯하기만 하다. 수많은 참배객들과 관광객들의 마음이 나와 비슷하리라는 생각 덕분.

운문사에 들면 도량이 설법한다는 말이 실감난다. 비뚤어진 데도 없고 모난 데도 없이 정갈하고 편안한 도량, 비구니스님들의 맑은 모습을 뵙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청정해지고 지난 삶을 성찰하게 된다. 명성 스님이 계셔서 더욱 푸근한 고향 같은 도량이다.

명성 스님은 전통과 현대 학문을 섭렵한 대강백으로 한국 비구니교육사의 역사요, 산증인으로 불린다. 40년 넘게 운문사에 주석하면서 운문사를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도량, 아니 세계 제일의 비구니 도량으로 일구고, 운문승가대학에서 1,700여 제자들을 길러낸 명성 스님 덕분에 오늘의 운문사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량의 나무 한 그루, 들꽃 한 송이에도 스님의 정성이 깃들어 있는 듯해 감동받는 운문사 죽림원에서 스님을 뵈었다.

세상에서 제일 큰 힘, 원력

동국대 교수 임용 제의를 뿌리치고, 1970년 운문강원 강주로 운문사에 오신 명성 스님. 학인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던 스님은 1977년부터 1998년까지 20년 3개월 동안 운문승가대학 학장과 운문사 주지소임을 겸임하면서 정말 많은 불사를 하셨다. 스님은 10여 동에 불과한데다 말할 수 없이 쇠락했던 운문사를 40여 동의 전각이 자리한 대가람으로 환골탈태시키고, 250여 대중이 수학하는 비구니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켰다.

"나는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나는 눈썹 역할밖에 한 게 없어요. 다 삼직스님들, 사부대중이 한 것이고 부처님 가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스님을 일러 신라시대의 선화자 비구니 이후에 처음 나온, 500년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스님이라 다들 칭송하는데, 정작 당신은 그 공덕을 모두 다 사부대중에게 회향한다. 스님의 눈썹 이야기가 마치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설하셨으면서도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신 얘기와 겹쳐진다.

"세상에 여러 가지 힘이 있지요. 그 중 세상에서 제일 큰 힘이 원력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원을 세우면 뜻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서는 운문사와 사리암의 불가사의한 건축불사, 그보다 더 찬란한 운문승가대학 교육불사와 장학불사, 8대와 9대 전국비구니회장으로 한국 비구니회 발전을 위한 샤카디타 대회 유치와 국제세미나 등 수없이 다양한 불사를 성취할 수 있었던 힘이 서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보통사람들은 크든 작든 대부분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불보살님들은 서원으로 살아갑니다. 아미타불 48대원, 약사여래 12대원, 여래십대발원, 사홍서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요?"

그렇다. 스님은 불보살님들처럼 초발심시절부터 지금까지 60여 년을 한결 같이 서원으로 살아오셨다.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문수기도와 관음기도를 하면서 스님은 일구월심 여래십대발원문을 체득했다. 특히 과거 무량겁부터 몸과 입과 뜻으로 알게 모르게 익혀온 죄업을 멸하여 학인들 모두 장애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인들이 서원의 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원하고 또 서원하고 있다.

"원을 세우는 것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트듯이 원을 세우면 그대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 있다 해도 치지 않으면 종소리가 안 나듯이, 원을 세우는 것은 종을 치는 것과 같아서 크게 종을 치면 종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와 같이 원을 철저하게 세우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중생은 딴전을 피운다. "서원을 세운다고 해서 스님처럼 다 이루실 수는 없을 것 같다"며 특별한 비결을 자꾸 여쭈었다. 스님은 "될까 말까 의심하지 말고 철저하게 원을 세우면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단박 역설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뜻하는 바가 있어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님이 뜻하는 일마다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서원의 힘, 원력과 기도에 있었다. 스님의 삶 자체가 서원과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 많은 불사를 원만 성취하고, 운문사의 사부대중이 각자 모양새대로 아무런 장애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불교 발전 위해서 교육 필요"
운문사를 비구니 교육 도량으로
길러낸 후학들 일선서 맹활약

원을 철저히 세우면 반드시 성취
문수·관음기도, 사경, 참선 등 일과

"부처님처럼 되어 지이다"

"스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관음보살의 자비와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원력을 두루 갖추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허물을 내세워 내치라는 사람도 관세음보살님처럼 안아 주시고 믿어주시는 분이세요. 또 매사에 문수보살의 지혜를 쓰시고, 일을 추진하실 때는 열정적이고 부지런하시고, 보현보살의 행원을 실천하시고, 참고 견디며 기다려주시는 인내심, 인욕행에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상좌스님의 말씀을 빌지 않더라도 스님을 뵈면 전생부터 닦아온 수행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일찍이 스님이 법기임을 간파하신 관응 큰스님의 특별한 교육을 받으신 덕분인가? 아니면 전생인연이 훈습되어서인가?

스님은 어릴 때부터 〈성현전〉을 많이 읽으면서 "성현처럼 부처님처럼 되어 지이다" 하고 서원을 세웠다. 또한 '관세음보살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하며 살아왔기에 아무리 어려운 일에 맞닥뜨려도 속상하다거나 힘들지 않았다. 남다른 체험도 전생부터 이어진 출가 인연을 예시해주는 것은 아닐까?

"관응 스님께서 〈생명의 실상〉을 여러 번 읽으라고 하셨는데, 그 책을 읽을 때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개울가에서 책을 읽다가 뱀이 기어가는 것을 보았다. 징그럽다거나 무섭다기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더 컸다. '축생의 몸을 해탈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뱀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책을 읽었다. 그런데 신이하게도 그 자리에서 뱀이 굳어갔다. 그때 우연의 일치로 죽었는지, 뱀의 이고득락(離苦得樂)을 기원한 공덕으로 몸을 바꾸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때 그 일은 지금까지 생생하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해인사 국일암(선원)의 선행(善行) 스님을 은사로 발심 출가했다. 행자시절 공양주 소임을 살면서 치문과 초발심자경문을 뗐고, 일구월심 공부길이 열리기를 발원했다. 6 · 25전쟁 중이었는지라 총성과 포격소리가 산중을 흔들어대도 두렵지 않았다. 불보살님을 의지하며 공부에 장애 없기만을 서원하였다. 뜻대로 공부길이 열렸다. 스님은 당대의 대강백이셨던 관응 스님(사집), 경봉 스님(동학사, 원각경), 운허 스님(능엄경), 만우 스님, 탄허 스님, 성능 스님(선암사)을 모시고 경전공부에 매진하였다. 마침내 성능 스님 회상에서 대교를 마쳤다.

"어느 날 노장님께서 좌복을 쓰윽 밀어주시면서 전강을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출가한 지 5년 만에 파격적으로 전강을 받은 것이다. 더군다나 비구니 스님에게 전강을 주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뿐만 아니다. 스님은 스물여덟의 나이에 조계사 법당에서 신도들에게 법화경을 설하였다. 그때 마침 종회를 마치시고 동산 스님, 청담 스님, 일타 스님 등 당대 최고의 어른스님들이 스님의 법문을 들으러 왔다. 명성 스님은 어른 스님들이 앉아계셔서 오히려 더 힘이 되고 든든해서 여법하게 법화경의 회통법문을 할 수 있었다고 술회한다. 그 일, 그러한 마음가짐이 어찌 이생만의 일이겠는가? 출가도 공부도 불사도 다 다겁생의 인연의 소치일 것이다.

학인들이 모두 인천의 스승되길

"강원에서 경전을 가르치면서 내전과 외전을 다 겸해야만 한다는 생각, 이 시대사조에 부응해서 현대인들을 이해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해주고, 한국불교의 발전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져서 동국대학교에 들어갔지요."

선암사 강원에서 꼬박 3년간 강의를 하면서 스님은 종단 교육의 현실을 절감하였다. 서울에 올라와 청룡사 강원에서 10년간 후학을 가르치는 한편 동국대학교에서 학문연찬에 힘썼다(스님은 불교학에서도 어려운 유식학으로 석사 · 박사 학위를 받으셨다).

당시 김동화 박사님이 "시골에서 하는 공부는 서울에서 낮잠 자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까지 동국대학교 강단에 남아주기를 원했는데 운문사로 내려왔다. 그리고 평생을 비구니 후학 양성에 바쳤다. 이는 스님의 남다른 원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수레의 양 바퀴처럼, 새의 양 날개처럼 비구 스님들과 비구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원목 영가 사진들 위패

▣ 티벳 만다라 그림
(크기별 3종류)







▣ 16나한상 (높이 30cm)



▣ 원목 부처님 좌대(2자 반 기준)

* 티벳 스님들이 직접 그린 만다라

주문문의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 야 상담 합니다

“학인들 ‘시대의 스승’ 되길…”



2004년 6월 28일 열린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참가자들이 당시 대회장이었던 명성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운문사를 참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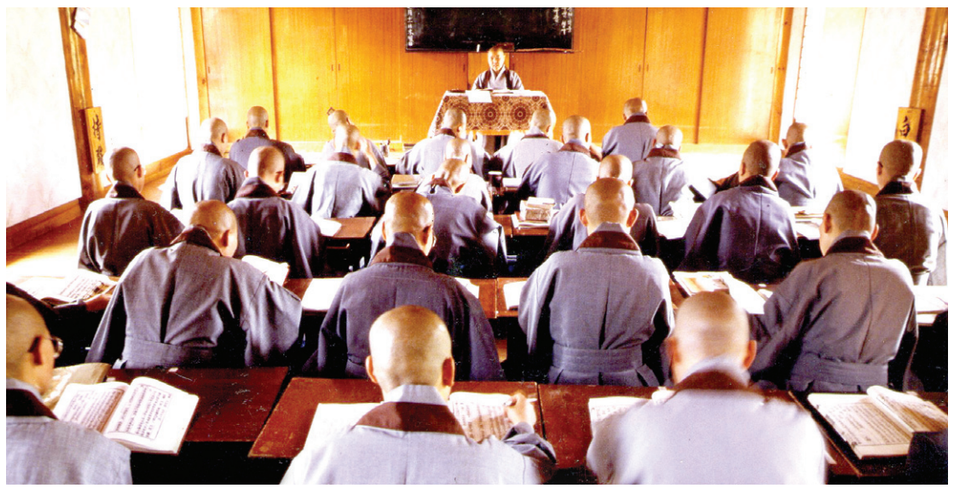
니 스님들이 힘을 합쳐 부처님 법을 전해야 한다는 것. 일찍이 비구니 스님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면 한국불교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때 스님을 따르던 청룡사 학인들까지 운문사로 따라내려 왔다. 스님이 운문사에서 강을 하니 전국에서 학인들이 몰려들었다. 학인들이 공부할 장소가 모자라 불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오늘의 대가람 운문사가 된 단초였다.

스님은 운문승가대학의 교과과정을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개편했다. 당신 스스로 피아노를 치면서 학인들에게 노래를 가르쳤다. 심지어 강원에 들어오기 전 기초학문이 부족한 스님들에게는 따로 국어, 수학, 영어 등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했다. 외국어 교육을 시켜 지속적인 학문 연구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인문사회과학 전공교수님들을 초빙, 특강을 통해 사회를 읽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운문승가대학이 전인적 인격완성과 불법교화에 필요한 다양한 교과과정과 특별활동 프로그램 · 교육시설 · 도서실 · 시청각교육실 · 컴퓨터실 등 최고의 환경을 갖춘 교육전당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비구니 강원 최초로 승가대학원과 율원을 개설한 것도 다 스님의 “비구니스님들이 한국불교에 대한 책임과 지도력을 가지고 각계각층에서 불교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겠다”는 원력에서 왔다.

스님은 지금도 “학인들이 장애 없이 공부해 인천의 스승이 되게 하여 지이다”라는 서원과 기도로 하루를 열고 닫는다. 스님의 간절한 서원과 기도 덕분에 운문승가대학을 나오신 스님들의 활약상이 대단하다. 운문사관학교라 칭하는 운문 출신 스님들은 활발발한 기개로 오늘날 포교현장, 선방, 강원, 대학 강단 등에서 한국불교발전의 주춧돌을 놓고 있다.

“개개인의 몫을 원만하게 발휘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신 명성 학장스님께 늘 감사드린다”는 찬사를 드리는 운문승가대학 졸업생 스님들, 요즘과 같은 스승 부재의 시절에 스승에 대한 스님들의 고마움과 그리움이 참으로 부럽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학인들을 가르치는 모습. 명성 스님의 운문사 승가대학은 전통강원 교육 이외에도 외국어, 원력이 담긴 인문학 등 학인들이 시대의 스승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담겨 있다.

내생에도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

“예전에 김우중 씨가 쓴 책 제목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였는데, 이 나이 되고 보니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짧네요.”

세수 83세, 스님은 나이를 잊고 살았다. 1998년 뒤늦은 박사학위를 받는 날, 30년을 소급해서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스님은 늘 청년의 열정으로 사셨다. 가장 훌륭한 스승은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했던가. 일상 생활 그대로가 수행이었다. 스님의 올곧은 신심, 기도와 원력으로 사는 삶, 최선을 다해 매사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그대로 후학의 귀감이 됐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운문의 가풍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런데 스님께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짧다는 말을 들으니, 하루라도 빨리 정진하라는 자비로운 경책으로 들렸다.

“중국에 갔을 때 낙산의 부처님을 참례한 적이 있어요. 부처님 발에 몇 사람이 설 수 있을 정도로 큰 부처님이셨어요. 낙산이 매우 가파라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이었는데, 그때 미륵불을 염하면서 ‘미래세 미륵부처님의 회상에도 태어나 출가 수행해 부처님 법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원을 세웠지요.”

후학들에게 많은 부분을 위임한 스님은 요즘 새롭게 출가한 듯 새로운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다. 정해진 시간에 문수기도와 관음기도, 만불 사경, 참선 수행, 독서, 포행을 하고 찾아오는 불자들에게 법문도 해 주면서 평생동안 세웠던 원을 다시 한번 다지고 있다.

“중생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내생에도 부처님 법을 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원력으로 수행으로 살아가는 명성 스님, “원은 종자와 같기 때문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트는 것처럼 원을 세우면 반드시 이뤄집니다. 누구든지 원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수행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는 것이 수행입니다”라는 스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파고든다.

가을햇살을 받은 운문사가 빛난다. 스님이 있어 더욱 충만한 운문사다. 스님께서 선물로 주신 합장주를 돌린다. “스님, 스님처럼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라는 원을 세우고 나의 신행을 다잡는다.

사기순(불교시대사 기획편집위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잉 걸 불



동국대 명예교수

누구나 그렇듯 나 또한 다를 바 없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세수하여 몸을 정하게 하고 마음도 가다듬는다. 아침에 허둥대는 일이란 별반 없다.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될 일이니까. 젊어서는 해인사 관음전을 쓸 때 도량석 목탁이 내리기 전에 일어나 조용히 앉아 있다가 대적광전에 제일 먼저 오르기도 했다.

기온이 내려가면 자연히 불을 가까이 하기 마련이다. 예전엔 부싯돌이 있었다. 부싯돌 만으로 불을 만들 수 없으므로 부싯깃이 따르기 마련이다. 부시를 치는 데 불똥이 박혀서 불이 붙는 물건이다. 그 재료로는 쑥 잎이나 수리취 따위를 볶아서 비벼 만들었다. 성냥을 그어대듯이 전방으로 힘껏 치기를 반복하다 보면 마침내 불이 붙게 된다. 그러면 곰방대를 입에 문 할아버지들은 불을 붙여 뻑뻑거려 빨아 불길을 살려낸다.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 바라 볼 뿐이다.

쑥이야 건국신화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퍽 오래 전부터 유용하게 쓰였던 먹거리이기도 하다. 수리취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 살이 풀이다. 산이나 들에 나는데 줄기의 높이는 1미터 가량이고 줄기에서 나온 길둥근 잎은 뒷면에 흰 털이 난다. 구시월이 되면 자색이나 백색 꽃이 가지 꼭대기에 핀다. 어린잎은 먹거리로 쓰이기도 한다. 개 구(狗)자, 혀 설(舌)자를 써 구설초라 부르기도 하는 풀이다.

성냥이 귀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상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부싯돌 붙이는 재간이야 없지만 성냥불 켜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다. 이마저도 요즘 젊은이들은 겁이 나는 모양이다. 성냥통을 드는 품세부터 어설퍼 보이니.

요사이 법당에서 촛불 공양을 올릴 때 성냥보다 많이 쓰이는 것이 있다. 주둥이가 길게 나온 가스 라이타를 쓴다. 정성이 덜 한 것 같기도 하고, 점화 할 때 탁탁 거리는 소리가 마음에 거슬리기도 하여 쓰지 않는다.

원통형 성냥갑에 마치 콩나물 시루 테를 갓 넘어 빼곡이 올라온 콩나물마냥 머리를 마주하고 있는 붉은 성냥을 뽑아 쓰고 있다. 불붙은 성냥 한 개비로 양 쪽 초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 보면 사달이 나기도 한다.

불꽃이 닿아 엄지손가락 끝이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한 지점이 생기 잃은 창백한 얼굴마냥 흰색으로 변하기도 한다. 따끔거리는 화기를 가시려고 찬물에 씻어 내기도 해본다. 그 뿐이랴. 깜부기불이 될 때까지 쓰다가 겪는 아쉬움도 있다. 바닥에 성냥 머리쪽이 떨어져 금세 주우려 들면 엄지와 검지에 덥석 붙는다. 사그라들도록 바닥에 굴려보기도 한다. 이런 일을 겪는 일이 다반사이고 보니 바닥은 어느새 검은 점박이가 제법 늘어났다.

근검의 표상이라 해야 할지, 아니면 우치함의 징표쯤으로 여겨야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근검도 어린 시절에 습득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저 깜부기불을 보아라. 성냥 머리 쪽에 몇 초 살았다가 죽어가면서도 흔적을 남기다니. 순간에서 영원을 노래하고 있구나. 깜부기불은 제흥에 겨워 사는 것만 같다. 그러니까 독락(獨樂)인 것이다. 누가 무엇을 하건 자기 소관이 아니다. 누가 뭐라 하건 알 바 아니라는 것쯤은 체득되어 있는 듯 하다.

그렇다면 진정한 즐거움이란 무엇일까. 여럿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상승시켜주는 잉걸불은 아름답다. 이글이글 핀 숯불을 잉걸불이라 하기도 하고 불잉걸이라고도 한다. 잉걸불 하면 사람마다 연상되는 생각은 각양각색일 것이다. 광주 5.18을 ‘잉걸불’로 노래한 오대교 시인이 있다.

이 것 좀 봐
아직도 덜 탓나 봐
흰머리를 날리며 벌겋게 달아 오른 게

인간은 무지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해 본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이 한 개인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도시 모르고 있으니. 활짝 핀 숯불이 이기주의가 발동하여 홀로 빛과 열량을 뽐내려고 한다면 얼마나 무모한 일이 될 것인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쉼 없는 외침이 잔잔한 파도가 되어 내면세계에 밀려온다. 그 거역할 수 없는 외침은 스스로 초래한 것이 아니더냐고 반문하기까지 할 것이다.

서로를 상승시켜주는 ‘잉걸불’
함께 즐거워 하는 삶 살아야

성인들은 강조하는 말이 있다. 습관이 무섭다고. 본성이란 별반 차이가 없지만 습관에 따라 차츰차츰 멀어진다(性相近 習相遠)고 하였다. 훈습 또한 그렇다.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가시지 않고, 생선을 싸던 종이는 비린내가 가시지 않더라는 가르침은 훈습의 중요성을 역설한 내용이다. 종이야 재질이 똑 같지만 어느 용도로 쓰였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 삶도 매 한가지가 아니겠는가.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홍복이 아닐까 한다. 남의 입길에나 오르내리는 사람을 누구인들 친구로 사귀고 싶어 하겠는가. 좋은 친구란 불변하는 친구여야 한다. 유행도 타지 않아야 한다. 시류에 영합하지도 않을 것이다. 영악스런 세상에 그런 친구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나는 금세 대답할 수 있다. 양서라고.

오늘도 옛 벗의 체온을 느끼며 책상을 마주한다.





英 캠브리지, 불교 사원 건설 서원 '꿈틀'

11월 5일 '붓다 메타 캠브리지' 창립법회 봉행
영국계, 태국계, 티벳계 등 대거 참여 범종파 불교단체 결성

불교 사원 보다는 명상 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던 영국 캠브리지 불교계가 도심 한복판에 사원 건설을 서원하고 나섰다.

온라인 매체인 캠브리지뉴스(cambridge-news.co.uk)는 지난 5일 "캠브리지에서 불교 사원을 세우자는 켐페인이 시작됐다"고 보도하고, "캠브리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국·스리랑카·베트남·버마·티벳계 등은 물론 영국계 출·재가들이 니더홀(Netherhall)에 모여 범종파 불교단체인 '붓다 메타 캠브리지(Buddha Metta Cambridge)' 창립법회를 봉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시 당국으로부터 비영리·자선단체로의 지위를 획득한 붓다 메타 캠브리지는 이 자리에서 루앙 포 수디로(Luang Poh Sudiro·태국) 스님을 대표로 추대하고, 캠브리지 대학과 지역 사회에서 수행과 신행의 중심이 될 사원 건설의 포부를 밝혔다.

붓다 메타 캠브리지는 창립법회를 봉행한 데 이어, 우기 안거 해제를 기념해 '시바라 자선모금 행사(Civara Dana ceremony)'를 열고, 대학생과 지역 주민 4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서원 실현의 대장정의 길을 나섰다.

캠브리지뉴스는 "시바라 자선모금 행사에는 폴 사운덜스(Paul Saunders) 캠브리지 부시장 등 지역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캠브리지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전하며 "이러한 지역의 관심은 1930년대부터 움트기 시작한 캠브리지 불교가 그동안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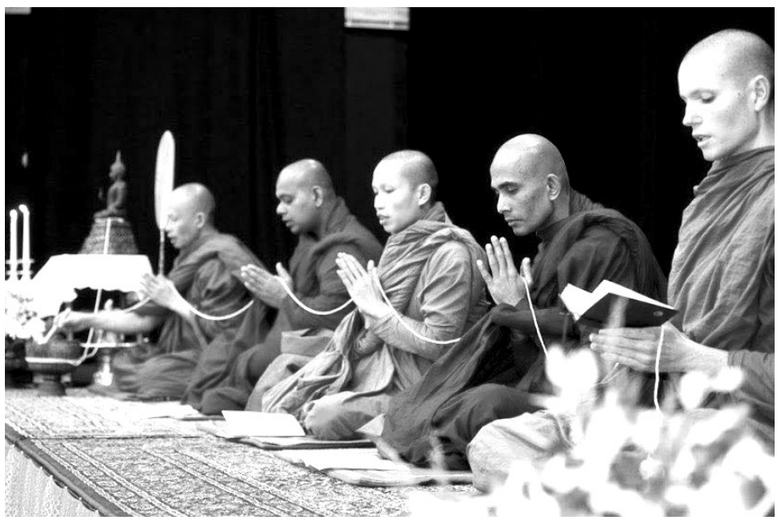
루앙 포 수디로 스님은 "8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캠브리지 불교계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며 "앞으로 세워질 불교 사원은 캠브리지 지역 주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캠브리지, 1930년부터 불교 성장

"불교 배우고 실천하는 공간 될 것"

않고 불교를 배우고, 실천하는 열린 공간으로서 그 위상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캠브리지에 불교 사원을 세우자'는 생각의 단초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태국 왕립 사찰인 '라마 9 사원(Abbot of Rama 9)'의 스님들이 캠브리지에서 합동법회를 봉행했을 때, "캠브리지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센터를 중심으로 명상을 배우고 있는 이 지역 불자들의 역동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런 곳에 불교 사원이 없어 안타깝다"는 말에서 시작됐다.


캠브리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국·스리랑카·베트남·버마·티벳계 등은 물론 영국계 출·재가들이 니더홀(Netherhall)에 모여 범종파 불교단체인 '붓다 메타 캠브리지(Buddha Metta Cambridge)'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뒤이어 2011년 뉴질랜드(New Zealand)에서 명상 센터를 운영하던 루앙 포 수디로 스님이 캠브리지를 방문, 지역 불교계는 물론 영국 각지에서 포교에 나서고 있던 아시아계 스님들을 만나 사원 건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했다.

그 결과 태국불교 공동체와 영국계 출·재가자들이 나서 붓다 메타 캠브리지 창립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스리랑카계, 미얀마계, 베트남계, 중국계 불교공통체가 속속 동참했다. 여기에 캠브리지대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레이첼 해리스(Dr. Rachael Harris) 박사와 캠브리지 재학생들이 가세해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번 첫 모금행사에 지역 주민은 물론 캠브리지와 이웃하고 있는 앙글리아(Anglia)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 놀랐다"는 레이체 해리스 박사는 "창립법회와 모금행사에 참여한 400여 명 대부분 40~50만 파운드의 기부금을 쾌척하는 등 캠브리지 지역 불교계의 서원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었다"며 분위기를 전하고 "사원 건설이라는 대장정의 여정이 뜻깊고 아름답게 회향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중국 당대회 기간 티베트스님 등 6명 분신

당대회 탄원서 든 노인 공안에 끌려나가

중국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개막한 11월 8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안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정치개혁과 인민 민주주의 확대를 역설했지만 밖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탄원서를 들고 온 시민들이 공안에 끌려나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났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당 대회가 열리는 인민대회당 맞은편의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는 탄원서를 들고 대표들을 만나려고 했던 두 노인이 공안의 제지로 당 대회장 인근에는 가지도 못하고 끌려나갔다.

한 노인은 울면서 호소했지만 가지고 있던 서류를 모두 빼앗긴 채 경찰차에 실려 연행됐다. 인근 지하철역에서 역시 탄원을 하려던 사람들도 공안에 에워싸여 있다가 결국 버스에 실려 어디론가 연행됐다. 중국 당국은 당 대회를 앞두고 반체제 인사 수백 명을 가택연금에 처하거나 체포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웨이보(微博)에 대한 검열도 강화해 민감한 시기에 당과 지도부에 대한 비판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쓰촨(四川)성 아바(阿)현의 공안 건물 밖에서 15세 1명, 16세 2명 등 10대 티베트 승려 3명이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귀환과 티베트의 자유를 요구하며 분신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대회 개막 전날인 7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 동안 티베트인 6명이 독립을 요구하며 잇따라 분신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자유티베트는 "11월 7일과 8일 칭하이(青海)성에서 20대 티베트인 여성과 남성이 각각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거대한 돌의 비밀은 '운하'

앙코르와트 사원 미스터리 밝혀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구성하는 거대 돌의 미스터리가 밝혀졌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과 CBS 등 해외언론은 11월 1일(현지시간) 앙코르와트 사원의 비밀을 "크메르왕국을 건설한 크메르족이 운하로 사원을 건설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12세기 크메르족이 지은 거대한 석재 건축물 사원인 앙코르와트의 외벽은 동서 1500m, 남북 1300m의 직사각형으로 웅장한 규모이며, 높이는 100m에 이른다. 건축에 사용한 벽돌은 500만~1000만개에 달하며, 한 개의 무게가 1.5t에 달하기도 한다. 때문에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거대한 건축물을 누가, 어떻게 지었는지를 두고 수수께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 와세대대학의 에츠코 우치다 교수 연구팀은 "이 왕국의 미스터리한 거대 돌들이 수 백 개의 운하를 통해 운반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앙코르와트 사원

건축에 쓰인 돌들은 대부분 사원 인근의 쿨렌산(Mount of Kulen) 채석장에서 운반됐으며, 연구팀이 위성영상분석 시스템을 이용해 쿨렌산 아래에 위치한 채석장 5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채석장과 사원을 연결하는 운하를 발견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고대 건축가들이 앙코르와트를 빠르게 건축할 수 있었던 '비밀'은 운하에 있었다"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불교-중국철학사 교섭 연구 대가

세계의 불교학자(40)

광리티엔 중국 인민대학 종신교수



광리티엔(方立天·79) 중국 인민대학 종신교수는 불교사와 철학사의 교섭 양상에 주목한 학자다. 그는 연구 초기부터 두 사상체계를 어떻게 하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방법 개발에 관심을 두었다.

1933년 3월 저지앙성(浙江省) 용캉(永康) 출생한 광리티엔 교수는 네 시기의 학술 활동을 거쳐 자신만의 학문세계를 구축해왔다.

첫 번째 시기는 북경대에 입학해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던 해까지라 할 수 있다. 1956~1961년 북경대에서 수학하던 팡 교수는 펑요우란(馮友蘭), 탕용통(湯用), 런지위(任繼愈) 등의 대학자들에게 학문적으로 지도를 받으면서 그들에게서 철학적 학풍의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1961년 대학졸업을 졸업하자마자 중국인민대 철학계에서 교학 연구를 시작했다. 위진남북조시대와 수당시대의 문화적 중요성에 주목하던 그는 철학과 불교 두 분야를 연구했다.

이때 그는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철학 사회 문화 예술 풍습 등에 변화가 일어났으며 불교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없이는 중국 철학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 통합적이고 상호 관련성의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유불도(儒佛道) 교섭양상과 사상체계에 위대한 학문적 공헌을 남겼다.

당시 법존(法尊) 스님과 정과(正果) 대사 등에게 가르침을 받은 팡리티엔 교수는 스스로 불교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껴 중국불교협회에서 주관하는 중국불학원에서 8개월 동안 생활하기도 했다.

1967년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연구 분위기는 침체됐다. 당시 지식인들을 천시하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학문에 매진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때 그는 동료 교수들과 농장에서 노동을 할 정도로 힘겨운 시기를 보냈지만 〈노신전집〉을 읽으며 학문에 대한 열정은 식히지 않았다.

팡 교수는 1978~1987년 〈위진남북조불교논총(魏晋南北朝佛教論叢, 1982)〉를 저술했다. 이 책은 초판을 지금까지 수차례 판을 거듭할 정도 불교학의 명저로 손꼽힐 만큼 좋은 평가를 받는 명저다.

이 시기에 팡 교수는 불교 전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중국불교사상사료선편(中國佛教思想史料選編, 4권 10책)〉을 편집해서 간행했다.

또한 뛰어난 저서로 평가되는 〈불교철학(佛教哲學)〉을 1986년에 펴냈는데, 중국도서영예상(1986년), 중국인민대학도서우수상(1988년) 등 상을 받으면서 불교입문서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1988년 펴낸 〈중국불교여전통문화(中國佛教與傳統文化)〉는 불교와 중국문화의 관계에 주목한 책이다. 이 책에서 그는 윤리 문학 예술 등 각 방면에 걸쳐 불교와 전통문화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1990년에 간행된 〈중국고대철학문제발전사(中國古代哲學問題發展史)〉는 장다이니엔(張岱年) 선생의 연구 성과를 계승해 우주관 시공관 도덕관 천인관 지행관 등 12가지 분야의 성과를 총망라했다. 이때 팡 교수는 불교사와 철학사의 두 방면

인문학 분야에 조예 깊어

수많은 저술활동으로 학문적 공헌

〈불교철학〉은 인기 불교입문서

중국불교 독창성 규명

의 전문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1988년 이후 지금까지 그는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중국불교철학을 연구했는데 이 성과를 집대성해 엮은 책이 〈중국불교철학요의(中國佛教哲學要義)〉다.

그는 연구주제의 발굴과 체계적인 연구방법의 개발, 기초 지식의 배양을 통해 중국불교사와 철학사의 관련 양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의 연구 방법론은 불교사상의 중국적 변용과 그 관련 양상을 탐구하는 데서 찾고 있으며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강조한다.

팡 교수는 중국불교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심성론(心性論)과 실천론(實踐論)이 그것이다. 그는 중국불교의 사상이 시대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수많은 종파가 형성됐고 그에 따라 인간심성을 보는 시각도 모두 달랐다는 사실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교가 중국문화에 맞게 변화하게 된 원리를 찾는 것도 그의 주요 연구주제다.

이렇듯 왕성한 연구 활동과 저작을 간행하는 팡리티엔 교수의 모습은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현불샵 추천 상품 대잔치

다향정 캐릭터 차걸이 핸드폰걸이


부엉이걸이

다향정 제품은 100% 수공에 작품이고,
모든제품을
다향정에서 직접 제작합니다.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구매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옴자차걸이 4종류

종 류	가 격	제 조
옴자차걸이(4색)	33,000원	국내제작
부엉이걸이(大)	20,000원	국내제작
부엉이걸이(中)	15,000원	국내제작
부엉이걸이(小)	10,000원	국내제작
목어걸이	15,000원	국내제작
부엉이 향낭	15,000원	국내제작

[계좌 : 053-01-269062 농협.(주)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지구 환경을 해치는 종이컵 대신 이제부터 (법어가 담긴 에코컵) 을 사용하세요. 늘 곁에 두고 음미하고픈 대행스님의 법어!

도자기 법어가 담긴 에코컵



종 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십장생 福 포대화상 도자기



십장생 복 포대화상 도자기를 모셔둔 家에는 언제나 밝은 웃음이 그치지 않고 하는일 마다 만사형통하여 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매산 김선원


청곡 이한동

천하를 다 포용하고도 남을 큰배와 언제나 밝게 웃는 모습으로 포대자루 속에든 복을 꺼내어 중생에게 나누어 주시는 포대화상 (앞면)

도자기 옆면과 뒷면은 십장생 그림으로 사슴이 불로초를 물어다가 거북에게 건네주는 신비한 장면이며 아래위 여백을 살려 시원하게 처리 하였습니다.

「KBS 진품명품」에서 해박한 지식으로 서예 감정을 하여 그 이름을 떨치신 **매산 김선원 교수**님의 글씨와 한국 화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미술원장을 맡고 계신 **청곡 이한동 화백**의 그림으로 합작하신 십장생 포대화상 도자기

※ (높이 37Cm× 둘레 100Cm 제조원 여주 다양도예 최고급 여주 백자
(손으로 일일이 만든 작품이라 약간씩 차이가 있음)

도자기 선물 SET

도자기 외 사은품 6종 가격
할인가 ₩ 99,800원

1 십장생 장수 반상기 세트 6P (밥그릇, 뚜껑, 국그릇, 2벌)



세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이 천가지 보약보다 낮다고 합니다.

중요한 시사를 하는 반상기(밥그릇, 뚜껑, 국그릇) 또한 소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2 소품 연화 다기 5P



짙은 약이나 차를 따라 드실 때 편리한 소품으로 된 약찻잔 5피를 청곡화백의 작품으로 연꽃이 들어간 예쁜 잔입니다.

3 용달마 순금카드 1점



달마 순금카드를 남편 지갑에 넣고 다니게하면 늘 남편을 지켜 줄 것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계좌 : 053-01-269062 농협.(주)현대불교신문사]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 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초판 22쇄의 스테디 셀러!!

10,000원
A5 / 287쪽

삶은 고가 아니다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계송 • 선화의 집대성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거북이를 그려 넣은 이유

낙산사 불사를 하면서 특히 신경을 쓴 부분이 있는데, 스토리텔링을 위한 문양과 디자인 등이었다. 어른 스님들은 문화재에 대한 감각은 없으신지 기안을 내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들이 장인들을 설득해서 단청이나 석물들을 디자인을 조율했다.

특히 가장 많은 문양을 넣은 동물이 바로 거북이다. 원통보전을 들어가는 문을 금강문으로 만들어 사찰수호를 기원하려 할 때도 어른 스님들이 반대하셨는데, 당시 주지 스님이었던 정념 스님께서 승인하셔서 양 문짝에 밀적금강(密迹金剛, 부처님의 비밀한 사적을 모두 알고 있다는)과 나라연금강(那羅延金剛, 코끼리의 백만배의 힘을 가진)을 단청으로 그려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금강문의 하단에 작은 거북이를 그려 놓아 불을 방비하는 신령한 동물의 역할을 하도록 해놓았는데, 그걸 알고 신경써서 보고 가는 사람들은 아직 없는 것 같다. 그 외에도 사천왕각 앞에 설치한 백화수각(白花水閣)을 디자

용 · 거북은 불 막는 水神
목조건물 방재 의미 담아

인할 때도 불을 끄는 역할을 하도록 커다란 거북이를 조각해 놓아서 수신(水神)으로서 불을 끄는 역할을 다하도록 조각을 시켰다.

경북 울진의 아름다운 산천 속에 자리한 불영사 대웅보전(보물제 1201호)에는 다른 절에는 없는 특이한 조각이 있는데 바로 대웅보전을 떠받들고 있는 두 마리의 거북이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불이 나지 않도록 방재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거북이는 고대 인도의 설화에 뿌리를 둔 불전설화에도 많이 나온다. 자타카라고 불리우는 본생담에 보면, 하늘을 나는 두루미들과 친구가 된 거북이가 설산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거북이는 두 마리의 두루미가 입에 막대기를 물고 다시 그 막대기 중간을 거북이가 물고 하늘을 날아간다. 그러나 사람들이 희한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소리를 질러 놀려대자 분을 참지 못하고 욕을 하느라 입을 벌리는 순간 떨어져 박살이 나는 거북이의 이야기가 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경계하는 이야기다.

평강(平康) 채(蔡)씨의 시조도 사실은 거북이라고 한다. 강원도 평강군의 채씨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을 받치고 있는 돌거북

소(蔡氏沼) 전설에 의하면 어느 부잣집의 처녀가 밤마다 찾아와 자고 가는 푸른 옷 입은 남자의 아이를 배었다. 그의 정체를 알기 위해 바늘에 실을 꿰어 옷깃에 찔러 놓고 낮에 마을의 장정들이 모두 이 실을 따라가 보니 마암소라는 연못에 사는 큰 거북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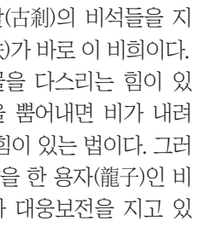
그런데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수신(水神)인 거북은 단순한 거북이는 아닌 것 같다. 십장생에도 등장하는 신령한 거북이는 용, 봉황, 학과 더불어 사령(四靈)에 속하는데, 본납의 생각으로는 용의 아홉 자식 중의 하나인 비희(贔屭)라고 봐야한다. 비희는 패하(覇下)라고도 하는데 그 모양은 거북이를 닮았고, 무거운 것 지기를 좋아한다. 신라시대 이후에 많은 고찰(古刹)의 비석들을 지고 있는 귀부(龜趺)가 바로 이 비희이다.

원래 용신이 물을 다스리는 힘이 있어서 입에서 물을 뿜어내면 비가 내려 불을 끌 수 있는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거북이 모양을 한 용자(龍子)인 비희가 바로 불영사 대웅보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납은 우연히 추사(秋史)가 남기고 간 주인 없는 이름 하나를 법호로 삼고 있는데, 구연(龜淵)이라고 한다. 낙산사 관음지 연못에 사는 거북이가 아무 때나 쉬고 노는 것을 보고 부러웠는데, 마침 그 이름을 보고 가끔 쓰고 있다.

비구는 원래 걸사(乞士)라 주워서 쓰는 것을 탓할 수 없는데, 어떤 이들은 허락 없이 이 법호를 가져다 쓴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기회를 빌어 강호(江湖)에 공지하고자 한다.

얼마 전 내장사 대웅전이 불탔다. 안타까운 일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사찰의 건물들은 거의 목조건물이라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당대의 명필이 물수자를 써서 붙이면 불이 피해 간다는 데 요즘은 그만한 명필도 없으니 뭘로 불을 방비해야 할까?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통도사에 매화 피니 삼라만상 거기 있네

차규선 작가 개인전

사찰 여행을 즐기는 작가는 통도사 앞 매화나무를 보고 환희심이 일었다. 오랜 시간 구상을 통해 단시간에 고도의 집중력으로 작품을 펼쳐내는 작가의 작업은 매화나무의 감동을 새기고 새겨 일필지하에 펼쳐냈다. 독특한 회화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차규선 작가의 분청사기 기법은 이렇게 통도사 매화나무를 화폭에 피워내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담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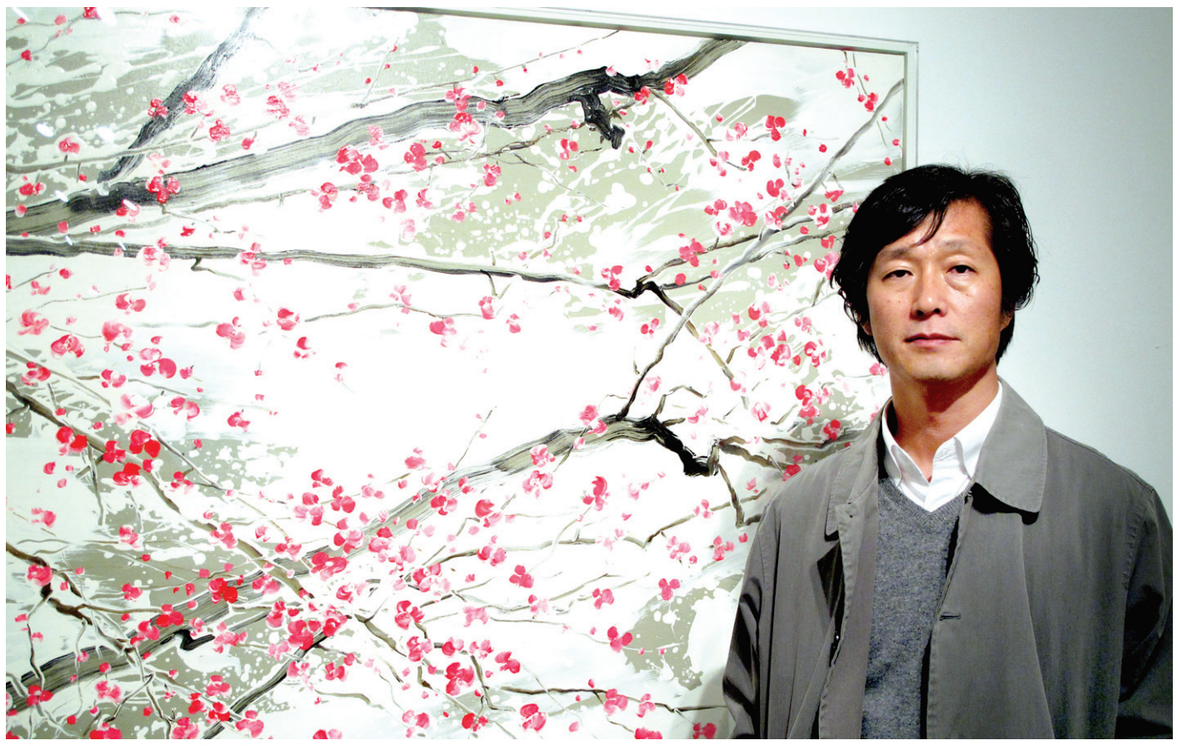
차규선 작가의 개인전이 21일까지 종로구 송현동 이화익갤러리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경주 남산의 소나무, 양산 통도사의 매화나무, 제주도의 잡목 등 자연의 향기를 담아냈다.

어렸을 적 어머니를 따라 남산에 위치한 백운암을 오르내리던 작가는 가늘고 긴 소나무를 감상하며 무한한 자연의 세계에 빠지기도 했다. 그에게 있어 자연은 만물의 근본이며 작품세계의 영원한 원천인 것이다.

"작가가 어렸을 적 어디에 자랐느냐는 그의 작품세계를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되죠. 제가 자란 곳이 천년고찰 경주이다 보니 그곳의 자연과 불교 문화는 제 일상 속에 스며들었고 제 작품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결국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들어 내듯이 제 취향 성향 이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01년부터 분청사기 기법을 응용해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차 씨는 지난 10여년간 수많은 방법들을 실험하며 다양한 작품을 탄생시켰다. 그렇다면 분청사기 기법으로 어떻게 회화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일까?

"일단 도자기 흙을 기본으로 다른 고착안료 등을 혼합합니다. 이를 캔버스 표면에 바른 다음 분청사기의 표면과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아크릴 물감과 같은 흰색 안료를 뿌리거나 큰 붓으로 화면 전체를 덧칠하죠. 이후 나무주걱이나 나뭇가지, 부러진 붓 등을 이용해 풍경이나 사물의 형상을 그리거나 긁어내서 작품을 완성시킵니다"


분청사기 기법으로 작업을 해온 차규선 작가의 개인전이 21일까지 종로구 송현동 이화익갤러리에서 열린다. 차규선 작가가 자신이 그린 통도사 매화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경주 남산 풍경 경이감
제주 자연 빛깔과 느낌
분청기법 20여점에 펼쳐
21일까지 이화익갤러리서

이렇게 작업한 작품 대부분은 동양적인 느낌이 물씬난다. 이는 동양문화를 좋아하고 이에 젖어 있는 작가의 성향과도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 "분청사기의 질박하고 자연스러운 표면 문양과 색채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분청사기의 귀얄문, 인화문, 덤벙 기법 등은 회화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재료의 특성 때문에 도자기에서는 표현이 불가능한 요소들을 회화에 끌어들여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작가는 1년 동안 제주도에 머물며 제주 곳곳의 색감과 느낌에 큰 영감을 얻었다. 제주의 잡목, 숲, 꽃, 바다는 작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오랜 시간 축적된 그 감동을 작품에 쏟아부었다. 이렇게 제주의 자연은 고스란히 캔버스에 옮겨졌다.

"자연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 자연이 갖고 있는 어떤 기운들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며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오로지 그림 그리기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작가는 세속적 욕망을 쫓기 보다는 자유로운 삶을 통한 예술적 표현을 인생의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긴다. "현실에 살면서 세속적 욕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명예나 부에 얽매이기 보다는 자유로운 삶을 통해 저의 존재를 느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림 작업은 저에게 있어 구도의 길과 같은 것이죠"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이매방-한영숙류 승무 한무대에

예술컴퍼니 춤매 창작 공연
11월 20일 남산국악당서

한국예술컴퍼니 춤매가 11월 20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남산국악당에서 제1회 창단공연 갖는다. 춤매는 이번 공연에서 쌍승무, 창작탈춤, 오살풀이춤, 교방살풀이춤, 춤매 북춤, 교방입춤, 태평무, 시나위춤 등을 선보인다. 또 이와 더불어 판소리, 가야금 병창, 25현금 공연도 진행한다.

관음보살 탱화를 향해 추는 쌍승무는 음양의 조화를 통해 자비로운 보살의 화현을 표현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중요 무형문화재 27호로 지정된 이매방류 승무와, 한영숙류 승무를 한 무대에 선보여 주목된다.

양혜정 대표는 "서로 성격이 다른 이매방류와 한영숙류가 한 무대에서 공연되는 경우는 매우 보기 드문 일이다. 이를 통해 화합과 조화를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자비의 뜻을 헤아려 천승의 법무를 관객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관세음보살의 무한자비를 통해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되는 의미도 함께 담아본다"며 취지를 전했다.

또한 춤매는 이번 무대에서 자신들의 예술적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전통춤을 재미있게 해석한 창작 판소리 'A형 이야기'는 스무 살이 넘도록 한번도 연애를 못해본 남자의 이야기를 판소로 표현했다.

양 대표는 "춤매는 춤삼매경의 줄임말을 뜻합니다. 악(樂) 가(歌) 무(舞)의 미적 가치를 담고자 하는 것이 춤매의 창단 취지죠. 전통 예술의 맥을 잇고자 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전통의 원형을 보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새롭게 펼쳐내고자 합니다. 각자 태어난 해도 성격도 성향도 다르지만 하나로 뭉쳐 전통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라고 전했다. 010-6501-1054

정혜숙 기자


춤매는 11월 20일 남산국악당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을 연다.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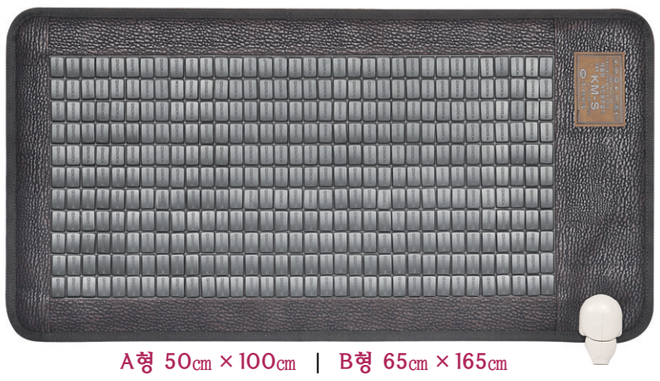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 09-651입니다.

인간의 기본 체온은 36.5℃인데 1℃ 떨어지면
저체온(冷氣)이 되어 면역력이 30%↓ 된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 두한족열(頭寒足熱) :
머리는 차갑게 (귀사문석 베게)
발은 뜻하게 (귀사문석 온열매트)
※ 낮에는 의자나 쇼파에,
밤에는 침대나 요 위에 놓고 하루 24시간 찜질을!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 × 100㎝ | B형 65㎝ × 165㎝

■ 제 조 원 : (주)국민메티컬 / 경기 양주시 율정동 115번지
■ 문의전화 : 02)2681-8122 선재생활건강(주)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305-50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 차단)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피부속 50㎜까지 침투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줍니다.

온열매트의 의학적 효과

건강한 사람의 평균 체온은 섭씨 36.5℃이다. 그런데 1℃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즉 냉증 또는 저체온이 되면, 자율신경중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줄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체온이 35℃로 내려가면 암세포가 증가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에선 매일 3천개-1만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면역력 덕분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 냉증(冷症) 즉 저체온이 되면, 그 증상으로 손과 발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다.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로 고생도 한다. 또한 당분, 지방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지구를 세바퀴나 돌 수 있는 9만km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적혈구가 엉기는 현상은 저체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세포 안에 충분히 열이 전달되도록 하면 적혈구의 엉김현상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실제로 원적외선을 이용해 신체 내부까지 골고루 열을 가하면 즉시 엉켜 있던 적혈구들이 원상회복 된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불교와 현대미술 만남…새 문화공간 탄생

전등사, 11월 5일 무설전 서운갤러리 개관

천년 고찰 강화도 전등사내에 현대 미술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가 들어서 눈길을 끈다.

전등사는 11월 5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 前 호계원장 법등 스님, 전등사 회주 장윤 스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설전 및 서운갤러리'의 개관식을 했다.

이번에 개원한 무설전과 서운 갤러리는 불교신행과 현대미술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이다. 불상과 불화는 물론 공간 구성이며 법당 활용까지 기존 사찰과는 완전히 다르다. 현대 미술 작가 중심의 창작단을 꾸려 법당 무설전을 현대적 공간으로 세웠으며, 이 무설전 내에 99㎡ 규모의 '서운갤러리'를 운영한다.

서운갤러리는 강화지역 포교에 큰 족적을 남긴 서운(1903~1995) 스님의 법호를 딴 것. 지난달 말 먼저 신축한 495㎡(150평) 규모의 법당 무설전(無說殿) 입구에 들어서자 가운데 불상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다.

이 불상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을 제작한 김영원 홍익대 명예교수가 현대인의 인체 비례를 반영해 조성했다.

주불인 석가모니불을 비롯해 지장 · 보현 · 문수 · 관음보살 등 4대 협시보살, 원불에 모두 개금(금칠)이 아닌 백색도료를 입힌 게 특징이다. 70여평의 법당 공간 위에는 설치미술작품인 999개의 연등을 달았다.

오원배 동국대교수가 그린 후불 벽화도 유럽 전통방식의 프레스코 기법을 사용했다. 벽화는 탱화에서 흔히 보는 문수, 보현보살 대신 석가모니의 제자 가섭, 아난을



왼쪽부터 이정교, 김영원, 오원배, 범우 스님, 윤범모 교수

불상… 금색 대신 백색도료 입어
불화… 서구식 프레스코기법 활용
김영원·윤범모 교수 등 거장 참여

중심인물로 삼았다는 점도 새롭다. 공간 디자인은 이정교 홍익대 교수가 담당했다. 한국 현대불교미술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욕적인 작업의 의의와 내용을 빠트리지 않고 기록해 출판물로 정리하는 작업은 윤범모 가천대 교수가 맡았다.

불상을 만든 김영원(65) 홍익대 명예교수는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의 제작자로 유명하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금과옥조였던 금빛 대신 청동 불상에 흰색의 무광 폴리우레탄 재료를 칠했다.

조각 작품을 닮은 주불 등 5개의 불상에서는 위압적인 권위를 느낄 수 없다. 석가모니불 양 옆의 문수, 보현, 관음, 지장 보살은 각각 아이돌 남녀 가수, 친근한 아줌마 아저씨의 얼굴을 형상화했다. 두상을 지나치게 크게 만들었던 기존의 불상과 달리 인체 비례도 균형을 잡았다.



백색도료를 사용한 석가모니불좌상 뒤로 프레스코화 기법을 활용한 불화가 보인다.

주불인 석가모니불 좌상 뒤의 불화는 서양화가인 오원배(59) 동국대 교수가 맡아 서구식 프레스코 기법을 활용해 그렸다. 프레스코 기법이란 회반죽으로 지은 벽이 마르기 전 아직 축축할 때 물에 녹인 안료로 벽화를 그리는 것을 뜻한다.

오 교수는 "프랑스 유학 시절 유럽 정통의 프레스코 기법을 배웠다"며 "국내 불교회화에서 프레스코 기법을 응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미술평론가인 윤범모(61) 가천대 교수는 "무설전과 서운갤러리는 불교와 미술의 만남, 종교와 예술의 공존을 상징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미술작품을 전시함으로서 끊임없이 새로운 면모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등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중 무료로 갤러리를 운영한다. 또 개관 기념으로 이만익 · 오경환 · 민정기 · 임옥상 화백 등 전등사가 소장중인 국내 중진 화가 작품을 연말까지 벽에 건다.

전등사 주지 범우 스님은 "불교와 예술성을 합쳐 스님과 신도, 일반인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복합신행문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문화강좌와 음악회, 결혼식 등의 용도로도 활용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강화 전등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초의 수묵담채 '다산초당' 눈길

다산 탄생 250주년 기념전

다산 정약용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학자 중 한 명이다. 그의 사상과 인품과 삶은 시대를 초월해 큰 감명을 주고 있다. 다산 탄생 250주년을 맞아 그의 일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테마전 '다산 정약용 · 하늘을 받들어 백성을 보듬다'를 12월 16일까지 박물관 중 · 근세관 테마전시실에서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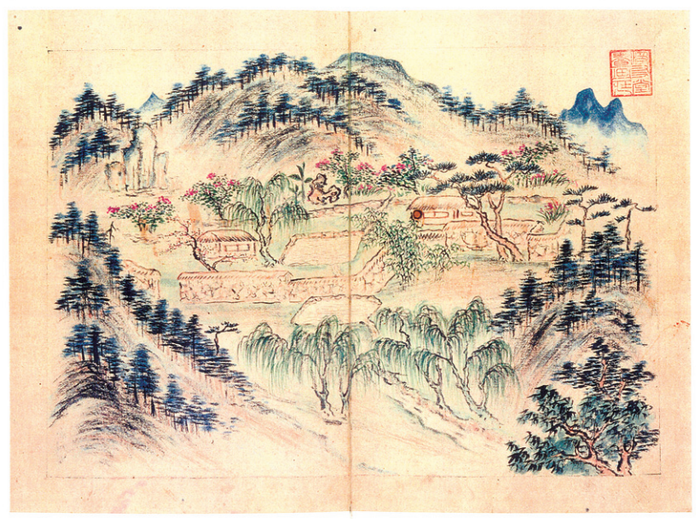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는 다산사경첩(茶山四景帖 · 보물 제1683호) 등 보물 2점을 비롯한 총 43건 142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이를 통해 역경 속에서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 고민했던 대학자 다산의 학문과 사상, 그리고 그 인간적인 면모를 살필 수 있다. 전시는 △고향, 그리고 한양의 새로운 공부-성군을 만나(정조와 정약용) △살아남아 세운 뜻, 학문의 길 △유배지 강진의 생활-고향 마재로 돌아와서 △정약용, 사후 재평가 등으로 나뉜다.

특히 초의선사가 그린 '다산초당도'는 눈길을 끈다. 이 작품은 다산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알 수 있으며 '유배지 강진의 생활'도 엿볼 수 있다.

여기에 △다산초당 주변 4곳의 경치를 다산 자신이 읊어 쓴 시를 모은 〈다산사경첩茶山四景帖〉(보물 제1683호) △선비 화

다산의 생애 관련유물 142점
12월 16일까지 국립박물관서

가인 외증조부 윤두서의 〈동국여지지도東國輿地之圖〉(보물 제481-3호) △흑산도로 유배를 간 형 정약전에 대한 걱정을 담은 편지와 승려 · 제자 등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 △부인 홍씨가 혼인 30주년 기념으로 보내온 빛바랜 치마폭에 다산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 넣은 '매조도' 등을 초상화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국립중앙박물관은 12월 16일까지 다산 탄생 250주년 기념 테마전을 연다. 그림은 초의선사가 그린 '다산 초당'

찬란한 광명 세상에 전하다

불상조각장 이진형 … '부처, 빛을 품다'展

대전무형문화재 제6호 불상조각장 이진형 작가가 '부처, 빛을 품다'전을 개최한다.

11월 18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서 관음보살상, 삼세불, 관음반가상 등 다양한 불상과 보살판화, 동자 및 달마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3년 여 작업 기간을 거쳐 완성된 불보살 작품은 부처님 세계의 광명을 표현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다양한 보석을 사용해 '찬란한 광명'을 표현했다.

이진형 작가는 "특히 관음보살은 조형적인 면을 많이 부각시켜 화관을 화려하게 장식, 보살의 의미를 되새겼다. 조선시대부터 우리 불상 조각들이 많이 단순해진 면이 없지 않다. 영락 장식을 통해 세상에 광명을 전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최대한 극대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윤 이재석 두 아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는 내년 하반기에 삼부자전을 계획하며 여진미술관 내 작업실에서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진형 작가는 임석정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으로부터 불교조각의 형태 · 비례 · 색채 등 불교조각 전반에 걸친 기능을 전수받았다. 이후 불상조각장으로 지정, 전문 불상 조각가의 길을 걷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이진형 作 '관세음보살상'

서울시, 전통공예문화 작품전…남산한옥마을서

사경·탑 등 공예품 40점 선보여

서울시가 '제17회 전통공예문화 작품전'을 11월 15일까지 남산한옥마을 전통공예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경, 탑, 사리함 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김경미 씨는 '문수사리문보리경' '불설대부모은중경' 등의 작품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김 씨는 "공예문화 작품전에서 사경 작품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 특히, 이번에 소개되는 작품은 고려시대 감지 은니 '문수사리문보리경'을 모본으로 하여 구성했다. 경의 말미부분에 828자가 결실되어 있어 고려대장경과, 건륭대장경을 저본으로 하고 대교작업을 하여 완결했다"고 밝혔다.



김경미作 '문수사리문보리경'

이밖에도 김학중의 '5층 금부탑', 윤기현의 '사리함', 황갑주의 사리구 등 불교공예품을 만날 수 있다. 또한 12개 분야 40여 점의 갓, 귀금속공예, 옥공예, 궁중자수, 사경, 선추 등의 공예품을도 선보인다.

서울시는 "현대생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전통문화 · 예술을 계승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문화 · 예술을 꾸준히 지켜오는 장인들을 지원해 우리 고유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신(편)입생모집
2013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학 및 지도자 과정 모집 안내(야간)

■ 모집학과 및 인원

학 과	불 교	차문화컨텐츠	불교사회복지	생사의례	명상심리상담
전 공	불교학, 선학	다도 · 제다	사 회 복 지	생사의례	명상심리상담
모집인원	00명				

■ 지원자격
석사과정
•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자 또는 2013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 국내 · 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지도자과정
• 조계종 대덕법계 품수 승려
• 각 종단의 간부
• 각 신행단체의 대표 및 간부
•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 전형일정

구 분	일 자	구 분
원서 교부 및 접수	2012.11.12(월)~11.30(금)	본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및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접수
전형일 및 장소	2012.12.8(토) 10:00~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 특 전
•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취득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생사의례전공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지도자과정 수료자(4학기 수료)는 총장명의의 상제례사 인증 응시자격 부여 및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 명상심리상담전공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지도자과정 수료자(4학기 수료)는 총장명의의 명상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적승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불교언론인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 본 대학교 출신자 진학시 입학금 면제

■ 문 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 및 학사운영실로 문의바랍니다.
• TEL 02-2260-3096,3097 • FAX 02-2260-8627
• http://gsbs.dongguk.edu

dongguk UNIVERSITY

불성의 광명과 긍정의 힘
계발하는 '천수다라니' 수행지침서



불교TV 방송강의 中

《다라니의 힘》
수지심시신통장
受持心是神通藏

일산법상 지음
신국판 | 부분컬러 | 448쪽 | 15,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참 행복을 위한 '무한능력' 일깨우는 신묘장구대다라니
법상스님 수행일기 · 법문 담은 '마음의 힘' 사용설명서

덕양선원장 일산(一山) 법상스님이 당신의 수행일기와 법문을 통해 자성(自性)을 깨닫는 다라니수행의 길을 체험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광명의 깃발이자 신통의 보물창고'로 불리우는 대비주를 통한 집중수행으로 불성의 무한능력을 일깨우는 불교적인 자기계발서이자 다라니수행 안내서가 되도록 편집했다.

일산 덕양선원 031-907-7172, 다음카페(cafe.daum.net/zeol)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 진(眞)참회문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 108 진참회문

☏ 031-534-3373

계정혜 참스승 지눌 스님 조명한 다큐소설



그대 마음이 부처라네
이정범 지음
강건기 감수
김영사 펴냄
1만2천원

이 책은 한국불교 사상 최대 결사인 '정혜결사'를 만들어 고려불교에 자정의 새바람을 일으킨 보조국사 지눌의 일대기를 그린 최초의 다큐소설이다. 원효와 함께 한국불교의 정오를 환하게 밝힌 중흥조로 평가되는 대선사 지눌. 그는 출가의 초발심을 잃고 승과 속의 경계마저 허물어진 불교계를 정화하고 부처님의 정법을 실현하고자 한 계정혜의 참스승이었다.

올여름 조계종 승려들의 도박사건으로 불교계는 큰 홍역을 치렀다.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청정한 삶을 지키며 용맹정진해야 할 조계종의 계율을 생각한다면 상상도 못 할 일이었다. 그렇다면 지눌 스님이 살았던 8백 년 전 고려 승단과 지금 승단은 크게 달라졌을까? 왕실의 비호를 받으며 행패를 일삼던 고려 승려들과, 계율을 쉽게 생각하고 지키지 않는 오늘날 일부 승려들의 모습 중 어느 것이 더 바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때일수록 근본을 생각하고,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결사의 정신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래서 수선사(송광사)를 중심으로 승려들의 수행 공동체인 정혜결사를 조직하여 오직 부처님이 정한 계율 속에서 계정혜 삼학에 힘쓰는 바른 수행을 강조했던 지눌 스님의 삶의 궤적이 오늘날 불교계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양날의 칼처럼 대립과 반목을 거듭하던 선종과 교종을 합일하고, 보조선(普照禪)을 창시하여 참된 수행은 마음 안에 있음을 강조했던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 이 책은 지눌의 일대기를 대중들 눈높이에 맞춰 다큐소설로 풀어 써서 독자들이 보조국사 지눌의 생애에 대해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첫 시도이다.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 어우러져 지눌의 행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지눌에 대한 최초의 소설이다.

조계종의 기틀을 마련한 보조국사 지눌에 대해 50여 편의 학위논문과 600여 편이 넘는 학술논문, 그리고 10여 권의 단행본이 출간되었으며, 보조사상 세미나 등의 학술 연구는 지금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눌 스님의 삶에 대해 대중에게 쉽게 알리고자 한 노력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이 책은 역사 교과서에 한 줄 정도 소개된 지눌의 일생을 더듬어 가상과 정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소설적 재미를 더하여 구성했다. 또한 학술적인 내용, 불교적인 지식 등도 놓치지 않아서 불교 독자, 역사 독자, 인문 독자 더 나아가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다큐소설이자 역사소설, 구도소설이다.

고려 중기인 1158년에 황해도 동주군(서흥)에서 국학 학정인 정광우의 아들로 태어난 지눌(아명 목우)은 몸이 몹시 허약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병세는 차도가 없었고, 부모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불법에 매달렸다. 그러자 병이 차츰 낫기 시작했고, 지눌은 8살 나이로 사굴산문(강릉시 굴산사에서 개창한 산문)의 종휘선사 문하로 출가한다.

열일곱에 비구계를 받고 사굴산에서 수행에 전념하던 지눌은 무신정권을 거치며 수행은 하지 않고 날로 혼탁해지는 불교계를 보며 번민에 휩싸인다. 결국 지눌은 스승 종휘 선사가 입적하자 굴산사에서



'정혜결사'를 일으킨 보조국사 지눌 스님 진영

의 인연이 다했음을 깨닫고 만행의 길을 떠난다.

경기도 광주 근방의 교종 사찰인 관음사에 머물게 된 지눌은 그곳에서 젊은 시절 종휘 선사와 함께 공부한 이안 노장을 만나게 된다. 그곳에 머물며 노장 권유로 많은 불서들을 접하게 된다.

1182년 25세의 지눌은 승과에 장원급제하여 대선이라는 법계에 올랐으며, 곧바로 개경 보제사에서 있었던 담선법회에 참석하여 많은 대중 앞에서 수행 공동체인 결사를 제안한다.

지눌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제안하였으나, 당장 함께할 결사의 장을 마련할 수 없어 각자 수행처로 돌아가 시절인연을 기다리기로 한다. 창평 청원사에서 사형인 만학, 득재와 함께 천 일 동안 용맹정진하던 지눌은 〈육조단경〉을 읽던 중 불현듯 깨닫게 된다. 첫 번째 깨달음이다.

선교 회통의 필요성을 절감한 지눌은 천일 결사를 마친 뒤 교종 사찰인 하가산 보문사에 주석하며 〈화엄경〉 〈반야경〉 등의 경론 읽기를 참선과 병행한다. 그러던 중 〈화엄경〉 여래품을 읽다가 두 번째 깨달음이 찾아오고, 선과 교의 근본이 같음을 확신한다.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세 번째 깨달음을 얻은 지눌은 1190년 〈권수정혜결사문〉을 작성하며 공산 거조사에서 정혜결사의 기틀을 다진다.

지눌은 이때 백장청규에 바탕을 둔 대중 규칙과 일과표를 만들어 도량 곳곳에 게시해놓았다. 그리고 새벽 예불에서부터 공양, 참선, 경전 읽기와 강의, 울력, 취침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과에 이르기까지 손수 모범을 보임으로써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수행의 근본정신을 익히며 실천하게 했다. 그 와중에 공동체 생활이 불편하고 이물스러워 슬며시 결사에서 이탈하는 사람도 있었고, 결사의 참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비구도 있었다.

지눌의 결사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스님이 계속 늘어나자, 지눌은 순천 송광산 길상사(송광사)로 정혜결사의 터를 옮긴다. 이곳에서 지눌은 초발심자들이 지켜야 할 경책을 담은 〈계초심학인문〉을 편찬했다. 이는 고려 승가 전체를 정화하는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정혜결사를 굳건히 하던 지눌은 1208년 3월 27일 수선사 선법당(지금의 송광사 설법전)에서 대중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마친 뒤 조용히 열반에 들었다. 이런 행장과 수행 이력들이 소설 형식으로 흥미진진하게 이 책에 펼쳐져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마음 본성 발견하는 방법 단계 및 상황별로 설명

티베트 린포체의 세상을 보는 지혜

욘게이 밍규르 린포체 | 이현 옮김 | 문학의 숲 펴냄
1만6800원



이 책에서 린포체는 마음의 본성을 발견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단계별 상황별로 다양한 강연과 명상 경험을 토대로 설명한다.

위대한 스승들은 말한다. "당신은 자비의 화신이며, 완전히 깨어 있는 사람이고, 당신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존재를 위해 최상의 선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라고. 그런데 정작 우리들 자신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린포체는 자신의 명상 수행과 전세계 최고의 신경과학 전문가들과의 오랜 대화를 통해 이 같은 문제는 습관적으로 형성된, 뉴런이 만들어 낸 이미지를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착각하는 데서 온다고 말한다. 이 이미지는 자신과 타인, 고통과 즐거움, 가짐과 못 가짐, 매력과 혐오처럼 이원론적 용어로 표현되는데, 마음이 이원론적 관점에 물들면 기쁨과 행복의 순간들조차도 불행 속에 갇혀 버린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늘 '하지만'이 잠복해 있다.

린포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같은 한계의 느낌을 극복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전한다. 한계, 불안, 두려움 같은 느낌은 그저 뉴런들의 수다일 뿐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그것은 습관일 뿐이고, 습관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불교 명상과 현대 과학의 사례를 함께 사용하며 설득력 있고 흥미롭게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내면 치유 하려면 정신적 소통 방식 익혀야"

힐링에너지 공명

조이스 위틀리 호크스 지음 | 이민정 옮김 | 불광 펴냄 | 1만5천원



"치유력이 우리 안에 내재된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기능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이 느껴지면 우리는 일단 내면의 치유 기능을 키우려고 한다. 이렇게 하려면 인체의 언어뿐 아니라 영혼의 언어, 즉 정신적 소통 방식을 익혀야만 한다."

조이스 위틀리 호크스 박사는 전문 치유가가 되기 전 약 20여 년 동안 세포 생물학과 생물 물리학자로서 성공적인 과학자의 삶을 살았다. 호크스 박사는 미 국립 해양수산국 산하의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전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들과 협력해 세포 차원의 치유와 공명 현상을 발견해 냈다.

온갖 환경적 오염 물질에 둘러싸인 세포의 놀라운 탄성에 대한 연구 업적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미 과학진흥회 선임연구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겪게 된 임사체험을 계기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게 되었다. 물리적 영역의 비밀뿐만 아니라 영적 영역에까지 관심을 넓히며 과학과 영적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성공적인 과학자의 삶에서 전문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기까지 호크스 박사가 밟아 온 놀랍고 감동적 여정을 자세히 담고 있다. 또한 임사체험의 경험과 파이어 워킹, 발리와 필리핀의 토착 주술 치유자들과 더불어 수행하며 겪은 신비로운 경험 등 저자의 영적 체험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도 스스로 각 단계별로 자신만의 치유 능력에 대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조이스 호크스 박사가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고유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물리적 영역과 영적 영역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인간이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 두 영역의 에너지가 서로 공명해야 한다고 호크스 박사는 이 책에서 주장한다.

이 책의 각 장에서는 우리 내면에 자리한, 육신과 영혼의 경계 지점에서 발현하고 심화되는 인간 본성의 다양한 측면과 신성함의 특징을 한 쌍으로 결합해서 제시하고 있다. 아홉 개의 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홉 쌍의 원리를 통해서 물리적 영역과 영적 영역 간의 에너지와 상호 작용을 살펴볼 수 있다.

감사와 인식, 직관과 행동, 근원 정신과 소통, 소통과 보호, 균형과 조화, 자비와 깨달음, 주의와 집중, 감성과 기쁨, 공명과 변화 등 이 아홉 쌍의 치유 원리를 이해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따라 읽으면서 독자들은 몸과 마음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기 위한 수행의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과 영성의 경계에서 발견한 치유 원리
신체에 활력 불어넣는 치유 적용 사례 소개

이 책에 소개된 아홉 쌍 원리를 지침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 장을 대표하는 요소들은 우리의 치유 본성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각 장마다 그러한 요소와 관련된 실제 치유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심각한 안구 질환으로 실명 위기에 처했지만 극적으로 시력을 회복한 사례, 정신분열증의 극복, 고위험군 전암 단계 세포의 소멸, 심각한 족저근막염에서 회복된 사례, 감사 기도로 사업적 성공을 이룬 사례 등 질병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유 원리이다.

또한 각 장의 사이사이에 '마음속 울림에 귀 기울이기'를 통해서 중심 내용과 수행방법을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고, 장의 마지막은 간단한 연습 과제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을 통해 독자가 생명 작용의 원리와 영성이라는 두 세계에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책에서 건강을 확고히 유지하는 한편 병에 걸리더라도 치유할 수 있도록 자신과 의식 상태를 훈련하는 수행법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이 책에서는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고유의 언어는 물론 세포들끼리 소통하고 결합하며 접촉하는 방식에 관한 최신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생물학적 지식을 토대로 몸과 마음의 본 모습을 바로 보고 통찰력을 발휘하여 나만의 치유법을 터득함으로써 심오한 내면의 여정에 오르게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조이스 위틀리 호크스는?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에서 생물물리학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미 국립 보건원을 거쳐 미국 해양대기관리처(NOAA) 산하 국립 해양수산국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미국 과학진흥협회 회원이기도 한 조이스 박사는 저명한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세포 차원의 치유와 공명 현상을 발견하여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84년도부터 전문 치유 지도자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3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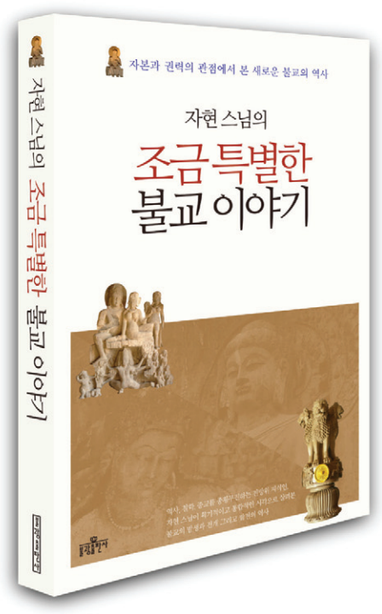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4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5	치유하는 불교 읽기	서광	불광출판사
6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7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8	영원에서 영원으로	불필	김영사
9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존 카밧진	불광출판사
10	맛지마 니까야	대림	초기불전연구원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역사, 철학, 종교를 종횡무진하는 전방위 지식인, 자현 스님이
획기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살펴본 불교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발전의 역사

경제사와 문화사, 사상사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불교 교양 인문서!



자본과 권력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불교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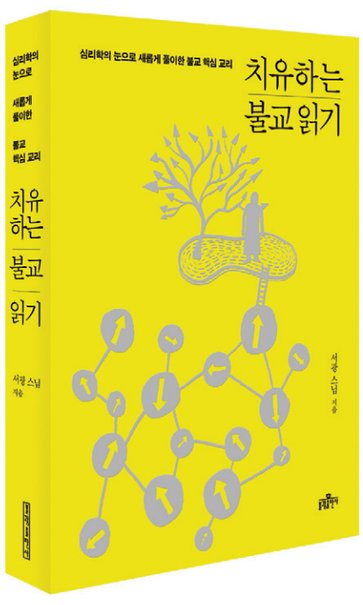
자현 스님의
조금 특별한
불교 이야기

"불교는 인류 문명 최초로 인도와 중국이라는 두 개의 거대 문명권에 걸쳐서 존재했다. 그러므로 불교는 상업자본이라는 단일한 잣대로 이해되는 동시에, 인도적인 보수와 진보 그리고 중국적인 인성론의 가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프롤로그」 중에서"

자현 스님 지음 / 320면 / 15,000원

사성제와 팔정도를 비롯하여 삼학, 삼독, 삼법인, 바라밀, 오정심관,
삼십칠조도품, 연기, 무상, 육도윤회까지

불교의 핵심 교리는 마음 치유와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결되는가?



심리학의 눈으로 새롭게 풀이한 불교 핵심 교리

치유하는
불교 읽기

"원래 의학에서 '치유(healing)'라는 말은 손상된 조직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하는 불교 읽기'가 우리가 타고난 본래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는 마음 치유 과정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그리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여는 글〉 중에서

서광 스님 지음 / 288면 / 14,000원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두 거장의 깊은 성찰 대담으로 풀어내



정신의 진보를 위하여

달라이라마 · 스테판 에셀 지음
임희근 옮김
돌베개 펴냄
7500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 간 소통, 그리고 여러 나라의 참여입니다. 전 세계를 위한 민주적 리더십, 비폭력과 공감을 계발하는, 종교와 무관한 정신 수련과 상통하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 〈스테판 에셀〉

"우리는 정신의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이런 지도가 있다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활동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일이 아닙니다." 〈달라이 라마〉

2010년 프랑스 출간 이래 다수의 언어로 번역돼 총 3,500만 부 이상 팔리는 폭발적 반응을 보인 〈분노하라〉의 저자 스테판 에셀은 올해 96세로 지팡이 없이도 다니는 노인장을 과시한다. 세계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텐진 가쵸)는 에셀보다 열여덟 살 연하인 1935년생이다. 이 두 인물은 큰 나이차 외에도 서양인과 동양인, 세속인과 종교인, 기혼자와 독신자 등 많은 차이점에도 서로의 삶과 인품에 매료돼 이 대담을 계기로 두 손을 맞잡았다.



2011년 8월 스테판 에셀(사진 왼쪽)과 달라이라마가 프랑스 툴루즈서 대담한 장면.

이 대담은 2011년 8월 프랑스 남부 도시 툴루즈에서 '행복의 기술'을 주제로 열린 달라이 라마의 강연에 스테판 에셀이 참석함으로써 첫 윤곽이 그려졌다. 이후 4개월 후인 2011년 12월 프라하에서 바츨라프 하벨 前 체코 대통령의 주도로 열린 동남아시아 인권에 관한 토론회 '포럼 2000'을 통해 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다.

1박 2일에 걸친 이 대담은 1948년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부터 지금까지 과연 새로운 보편적 가치들이 도출되었는가, '정신의 진보'가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 명시된 '과학의 진보'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비롯해 마음의 과학, 티베트의 분신 사태, 현대 교육의 문제, 비폭력의 가치, 좀더 높은 차원의 민주주의, 유엔의 개혁문제 등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다.

이 대담의 의의는 동서양 두 세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처음으로 '정신'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한 내용이라는 점에 있다. 특히 달라이 라마가 보여준 '세속 윤리'의 정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이 대담이 세계 시민들에게 보편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한다.

달라이 라마는 세속 윤리만이 보편적일 수 있으며, 동서양 두 세계의 많은 대표자들이 지구의 현재와 미래를 두고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으려면 이러한 세속 윤리가 먼저 정립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이에 화답하듯 스테판 에셀은 '정신적 민주주의'에 대해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으며, 달라이 라마는 가까운 정신과학자들과 함께 이루어낸 '정신의 지도'를 사용하자고 호소한다.

무엇보다 이 대담의 가장 큰 매력은 이 시대의 진정한 두 어른이 그들의 깊은 성찰을 더없이 두터운 체험이라는 토대 위에서 펼친 점이다. 예컨대 달라이 라마는 1959년 중국의 티베트 점령 이후 살해와 감금 및 아사자가 100만 명 이상이고 1959년 3월부터 1960년까지 라싸 지역서만 8만 7,000명이 사망하는 등 끔찍한 상황에서도 항상 비폭력을 택했고 차츰 그 결실도 맺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티베트인들이 강한 정신력을 지닌 결과라고 강조한다.

그런 강한 정신은 티베트 문화를 말살되지 않게 지키려는 노력으로 나타나 전 세계 의식 있는 사람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스테판 에셀의 경우, 제1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붙잡혀 죽음의 문턱 바로 직전까지 갔던 극한 상황에서도 적에 대해 전혀 증오심을 느끼지 않았던 것도 평소 그가 강한 정신과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지상에 굳건히 뿌리박은 두 현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올바른 선택에 대해 명확해진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명상 수행하면 통찰력 얻어

마음과 통찰

앨런 윌리스 지음 | 이창엽 옮김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4천원



이 책은 인간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현대 과학이 가진 허와 실을 명쾌하게 짚어준다. 또한 불교와 그리스도교를 비롯한 여러 명상 수행에 대한 권위 있는 지식에 기반해, 현대 과학적 사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이 모든 것을 독창적으로 엮어서 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 준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과학적 탐구를 배경으로 그리스도교와 불교 명상을 흥미롭게 분석한다. 그리고 인류 생존을 위해 영적 계발이 필수적인 오늘날,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 명상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도 설득력 있게 보여 준다. 여기서 명상 이론과 수행을 제시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불교로 개종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명상 이론을 익히고 명상 수행을 하면 마음의 본성과 세계에 대한 마음 관계의 본질에 대해 경험에 의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자원을 점점 더 잘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 균형잡히고 평화로워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 조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명상 수행이 현대 철학 및 과학의 이론들과 대화를 나누게 한다. 그 결과, 전혀 달라 보이는 불교와 그리스도교, 철학과 과학은 이론적 유사성이 있으며, 객관적 세계를 이해하는 통일된 접근법을 갖고 밝혀 준다.

저자는 먼저 불교와 그리스도교 명상 수행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부터 탐구한다.

이어서 독자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명상법을 알려 주며, 그에 따라 불교와 그리스도교가 명상이라는 인지적 탐구를 통해 의식의 본성과 기원에 대해서 유사한 통찰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이어서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수렴을 현대 인지과학, 양자역학, 마음의 철학으로 연결한다. 그는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관점을 힐러리 퍼트넘, 찰스 테일러, 바스 반 프라센의 도발적인 철학이론들과 연계한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 가르침 만화로 그려

생각나무2

기획 · 제작 스튜디오 돌 | 솔바람 펴냄 | 1만2천원



이 책에는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에서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귀 기울이면 문득 깨닫게 되는 삶의 지혜가 간결히 만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래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온 현대인들에게 생각의 쉼터를 마련해 준다. 만화 속 주인공들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들이 일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고 틀에 갇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준다.

특히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부처님과 옛 성현들의 가르침은 우리들로 하여금 무릎을 탁치게 만드는 통쾌한 깨달음과 더불어 내용의 깊이를 한층 더해준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말한다. "이 세상에 어느것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으며,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에 모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입니다."라고.

이 책은 이미 출간된 1권 〈생각나무〉에 이어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총 96편의 간결하고 짤막한 이야기들로 구성돼 있다. '티끌 속에 우주가 있다.'는 말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느 하나도 홀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이어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 각각 짧은 에피소드로 엮어져 있고 간단한 만화가 나온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전개와 그림체가 흥미를 돋운다.

예를들면 '마음의 고통' 편에서는 스승에게 제자가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을 묻자 스승은 말한다. "고통이란 피하려고만 하면 잠시 동안은 기쁠 수 있겠지만 영원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는 없다네. 인생이 맑은 날만 있는게 아니고 비오는 날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편안해 질 수 있네"라고 답한다. 짧은 대화속에서도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준다는게 이 책이 가진 강점이다.

김주일 기자

붓가는 대로 쓴 불교 · 문학 · 여행

외로운 존재는 자신을 즐긴다

문윤정 지음 | 바움 펴냄 | 1만2천원





작가 문윤정은 이미 우리 시대의 선지식 및 선승에 대한 인터뷰집, 인도 · 네팔 기행집, 그리고 선사들의 일화집 등을 꾸준히 출간한 바 있다. 그런 저자가 이번에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에세이집을 펴냈다.

사실 작가 문윤정에게 있어서 문학의 본향은 스스로 밝힌 대로 수필이다. 한 마디로 그녀에게 수필이란 구원과도 같은 것이다. 그녀는 수필을 통해서 마음속에 응어리진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고, 생(生)의 방향도 잡을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조지프 캠벨이 그랬던가? 지금 하는 일에 살아 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어쩌면 작가 문윤정은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영혼이 살아 있음을 몸소 확인한 것 같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돼있다. 1부는 작가 자신을 중심으로 한 글들이 실려 있고, 2부는 작가의 문학적 사유를, 3부는 여행을 통한 사유를, 4부는 작가의 불교적 사유를 다룬 글들이 실려 있다.

저자가 뿜어내는 글감 사유의 원천은 경주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반월성, 안압지, 계림을 놀이터인 양 열심히 쏘다녔다. 특히 미추왕릉은 저자에게 가장 신나는 놀이터중 하나였다. 철이 들어서는 원효대사가 지나다녔던 남천 다리를 오고가면서 인생에 대해 진중히 생각했다. 그래서일까? 1부와 2부의 글들 곳곳에서는 고향 경주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이 알알이 박혀 있다. 특히 2부의 글속에는 그와 동시에 문학을 통한 사유의 편린들도 함께 펼쳐져 있다.

3부의 글들에는 인도, 네팔, 파키스탄, 중국, 터키 등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고, 이해하고, 들은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녀의 이와 같은 다채로운 여행 경력은 그녀 생각의 지평을 국제적인 감각으로 확장시켜주었다.

또한 때로는 시공을 뛰어넘어 소크라테스를 만나는가 하면, 때로는 헤라클레이토스를 만나기도 한다. 동서고금 역사속 인물들과의 폭넓은 간접 대화도 바로 이런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이런 소중한 경험을 통해 저자의 외연도 넓혀졌음을 시인한다.

4부의 글들에는 불교적인 사유에 관한 것들이다. 아무래도 작가가 본지서 5년 넘게 객원기자 생활을 한 만큼 자연히 그쪽 방면의 글들을 많이 쓰게 되리란 건 자명한 일이다. 그런 만큼 4부의 글들 곳곳에서는 그녀가 승속(僧俗)을 넘나들면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들은 삶의 지혜와 가르침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그것은 그녀가 던지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답과 다를 바 없다.

글 창작 사유 원천은 고향 경주
선지식 인터뷰 · 인도기행 등 정리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좋은 글 나와"

작가 문윤정의 글들은 하나같이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길어진 것이다. 그녀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들을 즐긴다. 외로운 사람들은 자신을 만끽할 수밖에 없고, 홀로 즐기는 가운데서야 정제된 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철저히 고독해야만 좋은 글이 나온다'고 살아생전에 강조했던 박경리 선생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좋은 작가가 되기위해 고독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문 작가는 일찍히 그런 진리를 알아 채린 것 같다. 이 책 곳곳에는 바로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한 고독속에서 얻어진 사유들이 즐비하니까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책도 바로 그 고독의 한가운데서 빚어진 일종의 감로수인 셈이다.

김주일 기자

약사여래불의 가피로 몸을 살린다

약사여래불 치유도량
활 인 사



덕운스님은 질병치유의 중생구제에
영험하신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를 입었습니다.
수십년간 육신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위해 기도끝에 선몽하신
"활인 발효방"!
한약재를 첨가한 순수발효열
65℃로 체내독소배출! 건강증진! 면역강화! 질병예방!

건강 침술 강좌
초 · 중 · 고급반 (학인모집)
*장소관계로 예약 접수 받습니다.

활인사 주지 덕운 합장 02)3487-2311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강 화
고 려 사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 : 00 ~ 03 : 30
■ 내 용 : 법화경 전품 독송
■ 동 참 금 : 성의껏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한 가족 매일 축원 : 한 달 30,000 (전화/팩스 접수 가능)

■ 기도 · 요양 하실 분 환영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고려산에 소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3km 거리에 강화 해안도로가 있고, 15분 정도 절 뒤편의 산으로 오르면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법화경 독송 수행 도량입니다

■ 전화 032)932-3525 FAX : 032)934-3525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한 국토에 두 부처가 공존할 수 있을까?

미륵 · 아미타불 모두 현신성불 대변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설화가 전해지는 백월이산성. 신라인들은 현실정토의 아미타불, 현신성불의 미륵불을 신봉했다.

박박 스님은 아미타불염송
부득 스님은 미륵불 구해
금빛미륵 얼룩아미타불 변해
미륵은 현실 개혁의 의지 표출

1. 한 국토 한 부처

불교 경전에는 하나의 국토에는 한 분의 붓다가 설주(雪主)가 되어 있다. 하늘에 하나의 해가 떠 있는 것처럼, 나라에 하나의 통치자가 있는 것처럼, 한 국토에는 한 붓다만이 주재(主宰)의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역사적 붓다이자 천백억 화신인 석가모니불과 비역사적 붓다이자 청정법신인 비로자나불 그리고 역사적 붓다와 비역사적 붓다를 아우르는 원만보신인 아미타불 또는 노사나불 등처럼 말이다. 여러 경전에서는 한 국토에는 한 붓다만이 주재하고 교화하고 있다.

한편 밀교에서는 오방(五方)에다 오불(五佛)과 오지(五智)를 배대하고 있다. 금강계(金剛界)의 오불은 오지를 지니고 있어 동방 유리광 정토에 거주하는 아촉불은 대원경지, 남방 보생불은 평등성지, 중앙 대일여래는 법계체성지, 서방 아미타불은 묘관찰지, 북방 불공여래는 성소작지로 배대하였다. 반면 태장계의 오불은 동방의 보당불, 남방의 개부화왕불, 중앙의 대일여래, 서방의 무량수불, 북방의 천고뢰음불을 배당하였다. 이러한 배대는 입체성과 구상성이 강조된 밀교에서 특히 발견되지만 현교의 여러 경전에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붓다를 설주(說主)로 하는 경전과 달리 한국인의 경전인 『삼국유사』 「탑상」편 '노힐부득 달달박박' 조목에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경설에 입각하여 한 국토에 두 부처가 존재하는 진경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현신(現身) 그대로 성도(成道)한 두 부처를 미륵불과 미타불이라 한 역시 경전의 참뜻을 신라의 신앙으로 활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상남도 진주(강주)가 배경이 되어 있는 『백월산양성성도기』(白月山兩聖成道記)는 이 지역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기록이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옛날 당나라 황제가 일찍이 못을 하나 팠다. 매월 보른 전에 달빛이 밝으면 못 가운데 어떤 산 그림자가 하나 나타나며 사자 같은 바위가 꽃 사이로 어렴풋하게 보였다. 황제가 화공에게 명하여 그 모습을 그리게 하고, 사신을 시켜 천하에 이와같은 산을 찾으라 하였다. 사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백월산(白月山)을 보니 큰 사자바위가 있고, 그 바위에서 두 보쯤 되는 곳에 삼산(三山)이 있었다. 그 이름은 화산(花山)이며 그림을 꼭 빼닮았다. 하지만 바위가 진짜 그 바위인지를 알 수 없어 신발 한 짝을 사자바위 정상에 매달아 놓고 돌아가서 아뢰었더니 신발 그림자도 못 속에 나타났다. 황제가 기이하게 여겨 그 산 이름을 '백월산'이라고 지었더니, 그 뒤로는 못 가운데에 산 그림자가 없어졌다."

이 산 동남쪽으로 삼천 보쯤 가면 선천촌(仙川村)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은 월장(月藏)이요 어머니의 이름은 미승(味勝)인 노힐부득이었다. 또 한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은 수범(修梵)이요 어머니이 이름은 범마(梵摩)인 달달박박이었다. 두 사람의 풍채와 골격이 범상치 않고 세속을 벗어난 기상이 있어 둘은 서로의 좋은 벗이 되었다. 그들은 약관의 나이에 그 마을의 동북쪽 재 너머에 있는 법적방(法積房)에 의지하여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얼마 뒤 서남쪽 치산촌 법종곡(法宗谷) 승도촌(僧道村)에 옛절이 있어 수행할 만하다는 말을 듣고 함께 가서 대불전(大佛田), 소불전(小佛田)이란 두 마을에서 각각 살았다. 노힐부득은 회진암(懷眞庵) 일명 양사(壤寺)에 머물렀고, 달달박박은 유리광사(琉璃光寺)에 머물렀다. 이들은 모두 처자를 데리고 살면서 생계를 꾸릴 일로 서로 왕래하였다. 그러면서도 정신을 수양하고 속세를 떠날 생각을 잠시도 잊지 않고 세상의 덧없음을 보고 서로 말하였다.

2. 이타의 보살행과 자리의 소승독수

"기름진 밭과 풍년이 든 해에는 참으로 좋지만, 옷과 음식이 마음대로 생겨 저절로 배부르고 따뜻한 것만 못하고, 아내와 집이 정들어 좋기는 하지만, 연지화장(蓮池華藏) 세계에서 많은 성인들과 함께 놀며 앵무, 공작과 즐거워하는 것만 못하다. 하물며 불교를 배우면 부처가 되어야 하고, 참된 마음을 닦으면 진리를 얻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이미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으니 마땅히 이 굴레를 벗어버리고 위 없는[無上]의 도를 이루어야 할 것인데 어찌 세속[風塵]에 골몰하여 속물[俗輩]과 다름없이 지내려 하는가?" 드디어 인간 세상을 하직하고 깊은 산 속에 숨으려 하였다. 어느 날 밤 꿈에 백호의 빛[白毫光]이 서쪽에서 비쳐 오는데, 그 빛 속에서 금빛 팔이 내려와 두 사람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꿈을 깨니 두 사람의 꿈이 어김없이 꼭 같았다. 둘은 오래도록 감탄하다가 마침내 백월산 무등곡(無等谷)에 들어갔는데 박박스님은 북쪽 사자바위 터를 잡고 8자 크기로 판자집을 짓고서 판방(板房)이라 하였고, 부득스님은 동쪽 바위 및 물가에 방장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뇌장(磊房)이라고 하였다. 각각 암자에 살면서 부득은 부지런히 미륵불을 구하고, 박박은 아미타불을 염송하였다. 3년이 못되는 경룡(景龍) 3년 기유년(709) 4월 8일, 성덕왕 8년이었다. 해질 무렵에 20세쯤 되어 보이고 용모가 매우 아름다우며 난초와 사향 냄새를 풍기는 한 낭자가 북쪽 암자에 이르러 유숙하기를 청하며 노래를 불렀다. "길 가는 나그네 해지니 천 산이 저물고/ 길은 끊어지고 마을은 멀어 사방이 적막하네/ 오늘 밤 이 암자에 머물고자 하오니/ 자비하신 스님은 성가시다 하지 마오."

박박은 말하였다. "절이란 청정을 지키는 것을 근본으로 삼으니 당신이 가까이 할 곳이 못됩니다. 이곳에 머물지 말고 빨리 가시오." 박박은 문을 닫고 들어갔다. 낭자가 다시 남암으로 가서 또 여전히 청하자 부득이 말하였다. 그대는 이 밤에 어디서 오시었소?" 낭자가 대답하였다. "저의 고요함이 태허와 한 몸이 되어있는데 어찌 오고 감이 있으리까? 다만 어지신 어른께서 뜻이 심중하시고 덕행이 견고하다는 말을 듣고 장차 보리(菩提)를 성취하시는데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하고는 게송 하나를 주었다. "해는 지고 첩첩한 산길에/ 가도 가도 인가가 보이지 않네/ 소나무와 대나무의 그늘만 더더욱 깊고/ 시냇물 소리 오히려 새로워라/ 잘 곳을 청함은 길을 잃은 때문이 아니라/ 높으신 스님을 인도하려 함이네/ 바라건대 내 청만 들어 주시고/ 길손이 누구인지 묻지는 마오."

부득은 듣고 놀라면서 말하였다. "이곳은 부녀자와 함께 있을 곳이 아니지만, 중생의 뜻에 따르는 것도 보살행(菩薩行)의 하나인데 하물며 깊은 산 어두운 밤에 소홀히 할 수 있겠소?" 그리고는 암자로 낭자를 맞아들였다. 밤이 되자 부득은 더욱 마음을 맑게 하며 몸가짐을 가다듬어 희미한 등을 벽에 걸어 놓고 염송에만 전념하였다. 밤이 끝나갈 무렵 낭자가 불러 말하였다. "내가 불행하게도 방금 해산할 기미가 있으니, 스님께서는 거적(짚자리)이나 마련해 주세요." 부득은 가엾게 여겨 거역하지 않고 촛불을 은은히 밝혀 도와 주었다. 낭자가 해산을 하고는 또 목욕하기를 청하니 노힐부득은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가엾은 생각이 더하여 목욕통을 준비하여 낭자를 통 안에 앉히고 더운 물로 목욕을 시켰다. 목욕 통 속의 물에서 향기가 나며 물이 금빛으로 변하였다.

3. 미륵과 미타의 공존

부득이 크게 놀라자 낭자가 말하였다. "스님도 이 물에 목욕하십시오." 마지 못해 부득은 억지로 그 말에 따르니 홀연히 정신이 상쾌해지며 피부가 모두 금빛이 되고 그 옆에는 홀연히 연화대가 하나 생겼다. 낭자가 "거기에 앉으라"고 하면서 말을 이었다. "나는 관세음보살인데 대사를 도와 대보리(大菩提)를 이루게 하려고 이곳에 왔노라." 그런 뒤에 낭자는 간데 온데 없이 사라졌다. 한편 박박은 '노힐부득이 오는 밤에 파계했으리라' 생각하고 비웃어 주리라 하였다. 그리고는 부득의 처소로 와서 보자 노힐부득이 연화대좌 위에 앉아 미륵불이 되어 환한 빛을 뿜으며 몸은 금빛으로 채색되어 있었다. 박박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조아리고 예를 드리면서 말하였다. "어떻게 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노힐이 그 사연을 자세히 말해 주었다. "나는 마음이 막혀서 요행이 성인을 만나고도 오히려 예우하지 못했는데 대덕은 지극히 현명하시어 나보다 먼저 성불하였으니 바라건대 옛날 연분을 잊지 말고 도와 주소서."

노힐부득이 말하였다. "통에 아직 물이 남아 있으니 목욕할 수 있을 것이오." 달달박박이 목욕을 하니 부득처럼 무량수존상을 이루어 두 존상이 엄연하게 마주 대하게 되었다. 산 아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투어 와서 우러러보며 감탄하였다. "참으로 드물고 드문 일이다." 두 성인이 그들을 위하여 설법하고 나서 전신은 구름을 타고 가 버렸다. 천보 14년 을미년(755)에 신라 경덕왕이 즉위하여 이 소문을 듣고 정유년(747)에 사신을 보내 큰 절을 세우게 하고 백월산남사(白月山南寺)라고 편액을 내렸다. 광덕 2년 갑진년(764) 7월 15일에야 절이 낙성되자 다시 미륵존상을 조성하여 금당에 봉안하고 현판을 현신성도미륵지전(現身成道彌勒之殿)이라 하고, 또 아미타 불상을 강당에 봉안하였으나 목욕통에 남았던 물이 부족하여 골고루 바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아미타불상 역시 얼룩진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현신성도무량수전(現身成道無量壽殿)이라고 하였다.

신라인들은 신라를 불국토로 만들기 위해 미륵선화를 이땅에 내려오게 하였다. 그리고 국민들 역시 그렇게 믿고 실천하였다. 이 「백월산양성성도기」는 신라인들의 현실정토관과 현신성불관이 깊이 투영되어 있다. 여기에서 '달'이 '불법'이라면 '사자'는 '부처'를 상징하고 있다. 중국에 불법이 융성하여 달처럼 밝으면 부처의 상징인 사자가 그 못에 비치듯이 본질인 부처는 신라에 있고 그 그림자인 달빛은 중국에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불국토인 신라가 중국에 견주어 우월하며 자주성이 더 강함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신'[履]은 '부처의 발자국'을 상징하고 있다. 원시불교 이래 '불적'(佛跡)은 숭배의 대상으로 하였고 신발만을 남기고 떠나갔다는 달마대사의 설화도 여기에 연유하고 있다. 두 사람의 부모 이름이 불경의 미타와 미륵의 부모 이름과 같은 것은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미타와 미륵불로 성도할 수 있는 부모에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부처를 이루게 한 근원이 되었던 '불전'(佛田)은 성불(成佛)의 선후 개념으로 부득이 살던 대불전과 박박이 살던 소불전으로 부른 것이다.

'금색의 팔'은 '붓다의 팔'을 상징하며, '이마를 쓰다듬은 것'은 부처가 되기를 약속하는 이마에 수기를 주는 의식[摩頂授記]을 뜻한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무등'(無等)은 붓다의 존호 혹은 큰 깨달음을 상징하는 '무등정각'(無等正覺)을 의미한다. 미륵불은 현재는 보살이지만 도솔천의 천인을 위하여 설법하다가 56억 7천만년 뒤에 이 세상에 하생하여 성불하고 설법할 부처를 뜻한다. 아미타불은 현재 서방정토인 극락세계에서 대중을 위해 설법하고 있는 부처이다. 여기서 부득이 먼저 부처가 된 것은 당시 신라인들이 미륵신앙을 더 신봉했음을 암시한다. 또 금당에 미륵상을 모시고 강당에 아미타상을 모신 것은 신라인들의 정토관을 반영한다. 부득과 박박이 미륵과 미타가 되어 구름을 타고 갔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신라에서 성불하였으므로 신라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것은 두 성인을 법신화하여 온 신라에 가득 차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김영태, 『한국불교사정론』(불지사, 1992).
김영태, 『삼국유사의 불교신앙 연구』(신원문화사, 1975)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하)』(민족사, 2005; 2007).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가지지 말라.
남을 시켜 가지거나 남이 가지는 것을 묵인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서는 안 된다.
-숫 타 니 파 타-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무속 선, 앉은거리 장단
천도재 49재 접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정선문 미래연구소
사 작 택
주 명 일
직접상담합니다.
개인지도
02)733-8889
017-402-7848
종로 견지동 조계사 바로옆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마인드원)
032) 434-5990
010-8730-5690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051)721-6444

오랫동안 빙의로 고생
하시는 분. 천도재를 여러번
해도 효과가 없는 분.
각종 기도해도 안되는 분.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는 분.
상담 후 고쳐 드리겠습니다
(대원사)
010-4646-7633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천명리강의실
02)389-6597
www.beumchun.com

허리병 고치는 법
발명특허출원내용 : 뒤틀린 척추,
골반, 고관절각도, 다리길이 불균형을
바르게 하는 운동기법, 디스크,
협착증, 좌골신경통.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배울 분, 받을 분
상담대구 011-829-7582

번뇌의 굴레에서 해탈을 생활의 고통을 벗어나는 생명의 글문 비방
• 빙의(특히 신에게 고통받는 중생)
• 불치병상담(병명이 안나오는 병)
• 아토피 질환 해탈법
• 산소탈이나 풍수탈 해탈
• 사업성취, 소원성취 상담 • 가정사 상담
• 생활 속에 활력을 찾는 달마상
<작은곳에서 큰 희망의 기쁨을 안으시길>
대한불교 불정사 도정스님
051)558-5585
010-4593-2918

청정한 남해바다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멸치와
멸치액젓(맑은 액젓)을 자신있게
불자님과 모든 분들께
소개하여 드립니다.
070-8838-3776

부전스님 모심
전통염불
배울 처사 구함
(마산)
010-3428-66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합천댐 부근)
010-9506-5706

법당 보살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영천 개원사)
010-2828-066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지리산 대원사)
055)972-806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귀포 정방사)
02)732-3920
010-5219-7021

공양주와 법당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전통사찰입니다.
가족처럼 함께 지내실
공양주와 법당보살님을 모십니다.
보시는 상담 후 결정합니다.
상담전화 033)682-8100
(야간) 010-8879-840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향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심 와 기 도
• 삼생에서 쌓인 업을 씻어내는 기도며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50대 후반 비구승입니다.
스님이 계시지
않거나 보살님이
운영하는 사찰에
상주하고자 합니다.
010-4668-1284

적은 보시금으로
도심산사 작은 절에서
기도하시면서 사실
스님 모십니다
(경기 부천)
011-9707-3490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해광 하순천 지음 .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값 15,000원 / 410면 / 전화 063)643-7285
◉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웰강 황토, 상황 氣 훈증 좌훈 침대
누워서 허리 뜸,
배에는 단전 뜸, 앉아서 좌훈 뜸.
특허번호 제10-2011-011722호
상표번호 제40-2011-0070302호
디자인번호 제30-2011-0053572호
www.wellgang.co.kr
가맹점 개설문의
011-573-4438

부전자리 구합니다
(동국대 대학원졸, 전직교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상담하여
제 절처럼 관리하겠습니다.
서울 010-5012-5279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3)474-8228, 010-9562-8228

청동 비로자나부처님

[금강계, 태장계]
두분 (각 10자)
모실 수 있는 인연,
연락 부탁드립니다.
010-3562-5556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킵시다
항암에 상황버섯과 + 불로초의 +
영지버섯이 + 숙취제거의 인진쑥과 +
소화력의 칡이 만났을 때
완성품(1팩= 1500원)
1박스 = 50팩(봉) => 75,000원
1박스 = 100팩(봉) => 150,000원
상황버섯 1kg = 12만원 (이메일 2880367@hanmail.net)
010-5615-0367
010-5669-0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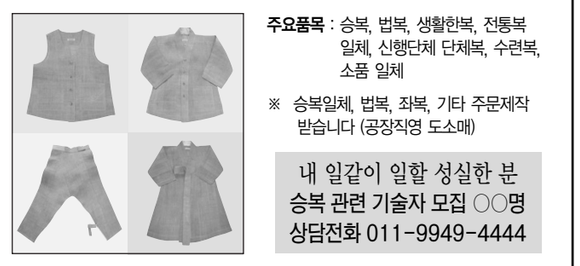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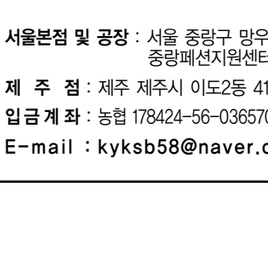
계룡산 천황사
보각스님의 신비한 기치유
빙의, 무병, 정신병, 중풍,
불치병, 암 현대의학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탁월한 효과 "신분 절대 보장"
011-673-0492
010-3565-0492
041)855-3492

탈종 확인 공고
대한불교법화본종 화원사
(경남 통영시 도천동 소재)는
대한불교법화종에 의거 이미
탈종되었음을 확인하고
추후 본사에 대한 소속 종단
오류가 없기를 공고함.
불기2556(2012)년 11월 10일
대한불교법화본종 화 원 사 주지 합장
대한불교법화본종 총무원장 휴 암 합장
(총무원: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121번지 마애사)
전화 : 011-883-6866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김윤경 승복
since 1980
김윤경
승복 · 우리옷
www.kyksb.co.kr
◎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기능성이 잘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신행단체복, 템플스테이 수련복, 소품 일체 등
◎ 공장 직영 도소매,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고객님들께 신뢰를 지키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듯이, 앞으로도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어울리는 좋은 옷을 제작 · 보급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주요품목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일체
※ 승복일체, 법복, 좌복, 기타 주문제작 받습니다 (공장직영 도소매)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 서울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페션지원센터 801호, 903호 / 전화 02)495-7779
제 주 점 : 제주 제주시 이도2동 416-2 / 전화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국민은행 057-21-0932-817 (예금주 김윤경)
E-mail : kyksb58@naver.com

불자정보 26 | 914호 | 전면광고

2012년 11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부지 : 390평
- 가액 : 7억5천
  응자3억포함
  주차 수십대 가능

- 위치 : 경남
- 법당 : 12평
- 요사 : 30평
- 부지 : 440평
- 가액 : 2억

- 위치 : 경기도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극락전 : 60평
- 부지 : 740평
- 가액 : 1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온천장 사찰

- 대지: 235평
- 법당(2층) 30평, 요사채(2층) 80평
- 주지실 25평
- 부산의 주산 금정산 솔밭 자락
- 가액 : 6억 3천만원

울산 근교 아름다운 사찰

- 총부지 : 2,400평(관리지역)
- 법당 및 요사 50평
- 산세, 계곡물 최고, 주차장 200평
- 총금액 : 6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 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도심안의 산중사찰

- 부산 (구 보림극자 위)
- 대: 97평(계단 약간 있음)
- 1층65평(법당 및 공양간)
- 2층 35평 (큰법당)
- 텃밭(20평)
- 급양도가: 2억9천만원

- 8m 옆 나대지
- 평당 240만(36평)
- 현재 유료주차장
- 부산 범일동 (지분등기)
  (부산진 시장 10분거리)
- 가액 : 8700만원

부산 동구 범일동 010-5511-7000 스님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지리산
- 면적 2,100평, 대웅전 30평
- 요사채 각 80평, 30평
- 산과 강이 잘 어울어 아름다운 사찰
- 가액: 6억 5천만원

010-2610-999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진구 법천동 중앙시장(조방앞) 지하철 1호선 범일역 12번출구(5분) 버스는 중앙시장 앞 하차 (1분)
- 4층건물 중 2층(25평)
- 전세 : 5백만원, 월30만원
  시설비 : 1천만원(절충가능)
- 법당내부 : 삼존불과 신중탱화, 산신, 용왕탱화, 영단, 인등
- 기도, 법회, 상담의 최적지입니다.
- 몸만 오시면 모든 물품 그대로 인수 (시설비에 포함)

010-2848-3633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고전면 소재 금오산자락입
- 교통 : (구)남해고속도로 인접부지 2차선 도로이며 도로에서 차량이 바로 진입 가능함
- 면적: 실면적 634평(2,095㎡)
  가용면적 약 1,000평(도로부지 포함)
- 특징: 인근에 (구)고속도로 전망대가 설치 되어 있음
- 현부지에서 지리산 천왕봉 자락이 맑은 날 육안으로 보임
- 광양만경제특구 진입도로 예정지로 유동인구 증가예상
- 가액: 6억 5천만원(가격절충가능)-원매자 직접 매도

010-7145-1083
010-6255-24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칠원 IC 칠서 5분거리
- 평수 72평, 요사채 35평
- 법당 20평 (2층)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 가액: 2억 2천만원 (가액절충)
- 확장이전 관계로 양도함

010-6317-3222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 큰 대로변 상가 3층
- 평수 30평, 등 200개, 인등 200개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벽

010-2126-2526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 주차 40대가능
- 가액 : 4억 5천만원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응암3동 대림시장 맞은편
- 버스 정류장 앞, 4층건물 3층, 25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칠성, 독성탱
- 에어컨 2대 포함 집기 일체,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800만원 / 월 6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010-3209-040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시 면 소재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대지: 도지료 연 35만
- 사용대지 공용 약 100평, 관련대지 368평
- 건물 : 단층 독채 약 32평.
- 개인 등기 필
- 내용: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 시내 중심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 법당 넓고 생활 편리함, 현대식 시설
- 가액 : 6천 5백만원 (시설비 포함)

010-7295-1259

사찰(급)안내

- 부산시 금정구 지하철 10분 이내 거리
- 1층 요사채(화장실 2개, 방4개, 거실), 2층 법당
- 신축개조, 법당, 단청일체
- 삼존불 은행목불, 원목불단, 108소불 있음
- 1층 약사불, 포대화상
- 2층 산신, 용왕, 독성 별도
- 위치좋고 옆 공원 산세 좋음
- 스님 건강 관계로 7억 5천

010-2503-0776

포교원안내

- 대구 도청옆 대구역 5분거리
- 평수: 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개)
- 보증금 1500만원, 월 120
- 불교대학 최적지
- A/V有. 냉난방시설, 시설비 답사후 절충
- 아미타삼존불, 지장, 삼성, 신중
- 사천왕탱화, 500인등, 영가단
-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 갖춘 법당

010-9598-9117

사찰 터 안내

- 위치: 충남 공주시 오곡동
- 시내버스 도로 인접
- 도로 있음. 입구와 도로 접
- 도심 사찰 및 요양원 적합
- 평수: 724평

010-4741-415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함안군 칠원 IC 칠서 5분거리
- 평수 72평, 요사채 35평
- 법당 20평 (2층)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 가액: 2억 2천만원 (가액절충)
- 확장이전 관계로 양도함

010-6317-3222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 큰 대로변 상가 3층
- 평수 30평, 등 200개, 인등 200개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벽

010-2126-2526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 주차 40대가능
- 가액 : 4억 5천만원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응암3동 대림시장 맞은편
- 버스 정류장 앞, 4층건물 3층, 25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칠성, 독성탱
- 에어컨 2대 포함 집기 일체,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800만원 / 월 6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010-3209-0408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송현동
- 3층 건물 중 2층, 50평
- 방3, 거실, 법당, 욕실, 화장실 2칸
  (방3칸, 보일러시설완비)
- 보증금 : 1천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 2천2백만원

010-4056-5677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2동
  (하이마트 건너편)
- 독채: 법당(18평) 방 4개, 창고 1
- 아미타불(동불석자),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영가단탱화, 산신각, 용왕당, 법당집기 일체
- 지하철, 시내버스 1분거리(교통편리)
- 현재 법회중
- 시설비 : 이천오백만원
- 보증금 : 천오백만원 월 35만원

010-3783-3606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1동 4층건물 중 3층전체
- 평수 : 100평, 방4개, 화장실, 남 여 스님용 공양실 등
- 시설: 아미타4자, 관음, 지장, 순금개금, 삼존불 및, 법당닷찝
- 800년된 김교각스님상(350년된 좌우협시동자동녀상)
- 200+150=고, 신중탱화, 산신각 , 350년된 동자상
- 에어컨 80평, 용등 3대, 온풍기 80평 용등난로다수
- 시설비 1억 2천만원
- 보증금 4천만원 월 85만원

010-4719-5388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가액 : 5억3천

- 위치 : 경남전통사찰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14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및 산 168-2
- 종교부지: 5,577㎡, 산 168-2 : 13, 640㎡
  합계 19,217㎡ (5,830평)
- 건물 4개동 : 대웅전 1동, 요사채(2층) 1동, 부속건물 1동, 스님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 결정

010-4225-0012
02)403-3333 / 031)771-1816

납골공원 및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안성시 시내에서 10분거리
- 면적 2만평, 법당까지 도로포장
- 극락전 50평, 법당 45평, 요사채 50평 2동, 용궁 100평
- 종각 30평 -산신각 10평(목조단청), 연못, 폭포수
- 상황버섯 재배, 포고버섯 재배, 장뇌산삼 10년근 약 100만주
- 사회복지 법인 입불지장전 도량 약 300평, 농장 2천평, 백년송 소나무 경치좋음
- 가액 : 55억. 꼭 필요하실 분만 연락. 전월세 가능

011-1703-277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진구 법천동 중앙시장(조방앞) 지하철 1호선 범일역 12번출구(5분) 버스는 중앙시장 앞 하차 (1분)
- 4층건물 중 2층(25평)
- 전세 : 5백만원, 월30만원
  시설비 : 1천만원(절충가능)
- 법당내부 : 삼존불과 신중탱화, 산신, 용왕탱화, 영단, 인등
- 기도, 법회, 상담의 최적지입니다.
- 몸만 오시면 모든 물품 그대로 인수 (시설비에 포함)

010-2848-363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 군포역 부근
- 면적 6평, 방9개
- 시설비 1천만원
- 즉시입주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전출관계로 급 양도

031)406-4478

창건사찰안내

- 위치 : 전북 임실 섬진강 회문산
- 평수 : 법당 2동(대지 300평)
- 종교용지 허가 대지. 총 5000평 중 300평
- 부처님 세분 모셔져있음. 현대식 입식 한옥 목조 기와 시설. 섬진강 명당 위치
- 비구니 스님 환영(일체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 호남 최고의 명당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총 건축비 2억 1천만원 소요)

010-9647-07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2층 건물, 대지 200평
- 1층 요사채 방 3, 35평
- 2층 법당, 산신각 35평
- 황토방 15평 별도
- 정원 조경 및 시설일체 완비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4억 6천만원

010-4722-0362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남구
- 시장입구, 버스정류장앞
- 유동인구 많음. 건물 뒤 공용주차장
- 평수 : 2층 70평
- 요사채 및 굴법당 • 3층 70평
- 법당. 관음전, 산신각(단청되어 있음)
- 보증금 1500만원 월 120만원
- 시설비 현지답사 후 절충가능

010-4001-3949

종교시설안내

- 위치 : 광주 오포 신현리
- 분당에서 5분
- 대지 약 500평, 도로지분 80평 포함
- 건물 50평 2동 (합 100평)
- 용도: 종교시설, 기도원, 요양원, 회사연수원, 사무실, 주택
- 등산로 인접 ,정남향 전망터 최고
- 융자가능
- 가액: 시세에 절반가격

011-726-4711

포교원안내

- 위치 : 서대문 홍은동
- 3층 건물 중 3층, 50평, 옥상전체 사용
- 삼존불, 후불, 108불 소불, 산신각 방2, 접견실, 샤워실, 화장실
- 에어컨 2대포함,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7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10-9231-460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 군포역 부근
- 면적 6평, 방9개
- 시설비 1천만원
- 즉시입주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전출관계로 급 양도

031)406-4478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
- 평수 100평
- 법당 30평, 그 외 모든시설 잘 되어 있음, 아주 깨끗함
- 몸만 들어오셔도 됨
- 뒤에 야산 있고 하기 포행하기 좋음
- 전세 : 1억

010-9273-112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 군포역 부근
- 면적 6평, 방9개
- 시설비 1천만원
- 즉시입주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전출관계로 급 양도

031)406-4478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잠실
- 약 60평 • 포교원 최요지
- 삼존불, 탱화, 신중단, 소불 200불가량
- 총가액 7천만원
- 이민관계상 급 처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6889-5040

포교원(급)안내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 상가건물 3층 90평
- 4층 30평 요사, 옥상사용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내부시설완비, 15년 이상된 포교원, 납골사리 불사관계로 떠남
-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3679-108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 상가건물 4층 전체 약 42평
- 법당1, 방2, 화장실, 엘리베이터
- 시설 살림살이 일체 3500만원
- 보증금 1500만원, 75만원
- 최고시설
- 답사후 절충가능(시설비)

010-6674-1356

사찰요양터안내

- 위치 :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도로 접
- 마을 뒷산 (울타리 모양 대숲으로 이루어짐)
- 평수 약 1480평 (평당 45만원) 외 하천부지 약 700평

010-2794-5368
054)261-110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군포역 부근
- 평수 70평, 상가건물 2층, 시설 A급
- 대웅전, 삼존불, 방3, 주방
- 보증금 2,000만원, 월 14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시설 : 도시가스 아주 깨끗함
- 주지스님 건강 관계로 급 안내

010-5622-4589

사찰요양터안내

- 위치 :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도로 접
- 마을 뒷산 (울타리 모양 대숲으로 이루어짐)
- 평수 약 1480평 (평당 45만원) 외 하천부지 약 700평

010-2794-5368
054)261-1104

도심속의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청학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비구니 스님 적격임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 2층 : 법당과 스님방
- 가액: 3억5천만원(시설비 포함)

010-3732-5237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터미널에서 3분거리
- 대지 : 총 1320평
- 대웅전 1동, 요사채 3동,
- 부속건물 등등,관광버스6대 주차 충분
- 방10개,심야보일러, 경비시스템
- 가액: 3억 3천만원
  (대출 7500포함)

010-2775-337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부지 2,000평
- 법당 조립식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 2억 1천만원

010-7188-772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용호4동
- 종교부지 515평
- 2층건물, 건평 218평
- 뒤쪽은 산이고 앞쪽은 광안대교 보임. 전망좋음
- 가액: 15억(조절가능)

010-3523-2058

기 도 터 안 내

- 위치 : 제천시 수산면
- 대지 484평
- 주택 40평
- 앞뒤 산 산세좋음 절경최고
- 가액: 2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0-3170-8851

도심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운창동 (대전역에서 도보로 10분)
- 지하1층 60평, 큰법당 방2칸, 공양간 시설완벽
- 보증금 100만원 월 28만원
- 시설비 5백만원
- 상업지역, 아파트3천세대 최고요지
- 현 포교원 운영중,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9387-3679

암 자 안 내

국화꽃 향기

암자

몽땅 9천 5백만원

위치: 대구

010-8861-1785

사 찰 안 내

큰절 소임 관계로 사찰 양도합니다

- 위치: 부산
- 법당 40평(산신각 3평)
- 요사 65평
- 부지 400평. 주차장 20대 주차가능
- 가액: 7억 5천만원
  (은행 3억 대출가능)

051)266-0318

사찰부지안내

- 위치: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 내 천등산
- 지목 : 전
  10년전 4단식 계단 토목공사완료
- 산세수려, 청정계곡, 토굴이 있음
- 평수 2400평
- 양도가 2억 5천만원

010-6317-5863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가액 : 5억3천

- 위치 : 경남전통사찰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14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및 산 168-2
- 종교부지: 5,577㎡, 산 168-2 : 13, 640㎡
  합계 19,217㎡ (5,830평)
- 건물 4개동 : 대웅전 1동, 요사채(2층) 1동, 부속건물 1동, 스님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 결정

010-4225-0012
02)403-3333 / 031)771-1816

동굴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소재(대구시에서 15분거리)
- 총평수 10,500평 , 대지 2500평
- 맥반석 동굴법당 110평(약사여래불)
- 맥반석 동굴법당 70평 (오방불)
- 천연맥반석 와불상, 거북바위, 맥반석돌탑 108기
- 법당, 산신각, 요사채, 연못, 컨테이너1동, 팔각정 2동, 종무소
- 사철 계곡물이 사찰을 끼고 흐르는 청정도량
- 영화 촬영지로 선정된 도량
- 가격절충가 (대출도 가능)

011-809-7434(주인직접)

수행정토 • 터

- 위치 : 경북 영주 시내에서 15분 거리
- 산이지만 밭으로 관리지역임(금강송 천그루 식재)
- 산 정상까지 묘 등과 주변 송전 철탑 등이 전혀 없음
- 영구포란형(靈龜抱卵形)으로 전망 경치가 좋음
- 도로(주차장포함), 전기, 건립부지 정리 완료
- 총 5,300평(평당 63,000원)(명당지 방문 요망)

016 - 573 - 2032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동두천시
- 대지 400평
- 건평 70평(입법당 20평, 방 6개, 화장실 3, 공양간 2)
- 신축과 같음
- 텃밭 200평, 주차 10대 • 전철 온천 근접
- 주변 산, 대로변 버스정류장, 도보 2분거리
- 보증금 5천만원 / 월 50만원

010-6559-0913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염포동
- 상가, 시장, 주거지 밀집지역
- 4층 43평, 옥상이용, 창고 1 별도있음
- 보증금 포함 시설비 총 2500만원 월 40만원, 답사 후 절충

052)287-8180

사찰요양터안내

- 위치 :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도로 접
- 마을 뒷산 (울타리 모양 대숲으로 이루어짐)
- 평수 약 1480평 (평당 45만원) 외 하천부지 약 700평

010-2794-5368
054)261-110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40평(산신각 3평)
- 요사 65평
- 부지 400평. 주차장 20대 주차가능
- 가액: 7억 5천만원
  (은행 3억 대출가능)

051)266-0318

멋진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사상역 시외터미널 건너편
- 건평 56평, 시설 멋짐
- 전세 1800만원, 월 45만원
- 비품대 1500만원 4층건물에 2층

010-3590-6329
010-8548-8608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배움이 적은 사람은 몸집은 불어나지만 지혜는 불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식이 많고 진리의 가르침을 잘 지켜 지혜로우며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 장로게경 –

행복한 명상

티베트 로종 자비명상의 과학

고통 원인 제거하는 '자비' … 명상 통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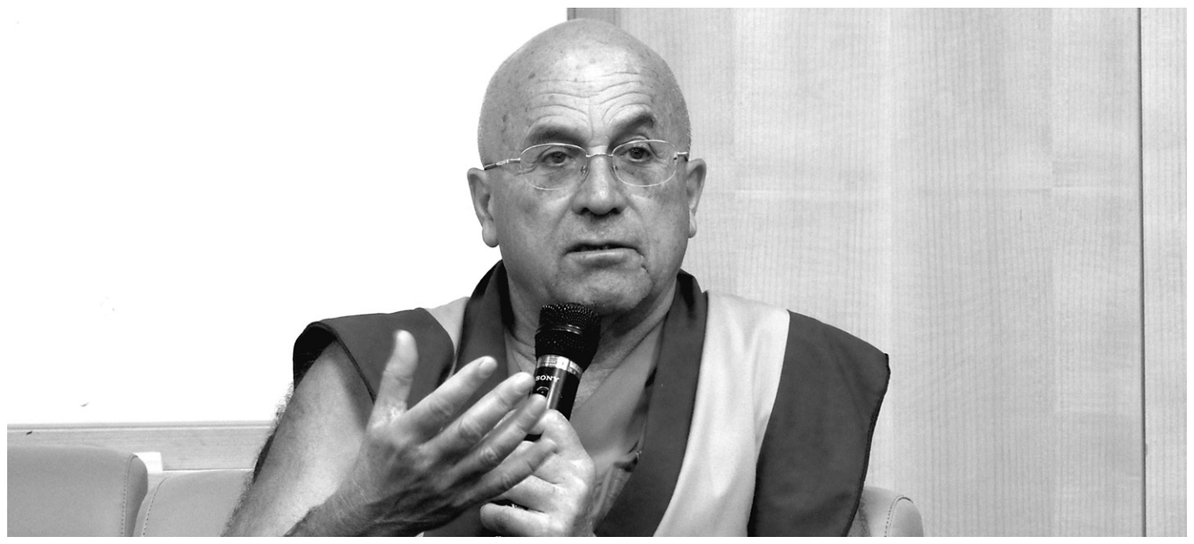
마티유 리카르 스님 고려대서 특별법문

한국명상치유학회(회장 김완석)는 11월 1일 고려대학교 운초교육관 강당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마티유 리카르(Matthieu Richard) 스님을 초청, '행복한 명상-티베트 로종 자비명상의 과학'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리카르 스님은 강연에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긍정적이고 행복한 뇌를 만들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법문의 요지다. 정리= 이나은 기자

티베트 로종 자비명상

티베트 로종 자비명상에서 로(lo)는 마음을, 종(jong)은 닦기 또는 변형이란 뜻이다. 즉 로종은 마음을 닦는 7가지 요점이라고 해석하는 티베트 명상으로 마음을 보살의 방식으로 친절, 사랑, 자비, 인내, 지혜를 일으키는 수행이다.



마티유 리카르 스님은 11월 1일 고려대 운초교육관에서 열린 특별법문을 통해 "불교수행자들은 자애·자비명상을 수천 년 동안 해왔다. 이런 명상을 계속 한다면 자신의 삶에도 좋지만 타인과 함께 행복할 수 있어 좋다"고 강조했다.

마티유 리카르 스님은 …

1946년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26세에 분자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고, 노벨상 수상자인 생물학자 프랑수아 쟈콥의 지도 아래 연구활동을 하던 촉망받는 과학자였던 그는, 어느 날 자신의 미래와 문명을 벗어던지고 티베트로 떠나 33세에 승려가 됐다. 현재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불교 전문가가 돼 히말라야에 기거하며 달라이 라마의 통역, 사진작가, 불교 경전의 번역 활동을 하고 있다. 부친은 철학자인 장 프랑스와 르벨로 아버지와 대담을 나눈 〈승려와 철학자〉는 프랑스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2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됐다. 대표 저서로는 〈티베트의 정신〉〈춤추는 티베트 승려〉 등 사진집과 〈행복을 위한 변명〉 등 다수가 있다.

잠재된 자비심 닦아 중생 제도해야

우리는 마음자세를 갖기 위해 네 가지를 닦아야 한다.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과 미혹을 없애주는 자(慈)·비(悲)·희(喜)·사(捨)의 네 가지 무량심을 먼저 닦아야 한다.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자무량심(慈無量心)과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 주려는 마음인 비무량심(悲無量心), 중생이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얻으면 기뻐하려는 마음인 희무량심(喜無量心), 그리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려는 마음인 사무량심(捨無量心)이다.

우리가 자비심이라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감정적인 측면, 또 하나는 인지적 측면이다.

감정적 측면이란 고통 받는 사람을 봤을 때 감정이입이 돼 똑같이 느끼는 것을 말한다. 감정적 공감이 커질 때는 타인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그런데 감정적 공감을 할 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깊게 생각하지, 당사자가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보고 이타적 사랑이나 남을 도우려는 동기로 발전시키지 못한다.

자기 자신의 감정적 배려가 타인에게 미칠 때 결국 이타적 동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감정적 자비심이라는 것은 주변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고통 받는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다.

자비심의 인지적 측면을 보도록 하자.

부처님의 사성제에서 첫 번째 진리 고(苦)가 있다는 고제는 감정적 자비로 가는 첫 번째 단계다. 부처님께서 고통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을 때 부처님은 분명한 고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 대학살이 일어날 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어도 그것이 고통임을 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한 고통의 원인은 그것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것이다. 우리가 평소 고통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이것은 무지를 근거로 해 일어나는 가장 깊은 차원의 고통이다.

무지(無知)라는 것은 정보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현실을 왜곡되게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굳건한 것이 없는데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느끼는 게 고통이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존재하는데 독립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통이다. 또한 역동적인 의식의 흐름이 있을 뿐인데 나라는 존재가 탄탄히 있다고 믿는 것도 고통이다.

자비의 인지적 측면은 바로 이런 근본적인 무지를 향한 것이다. 자비의 다양한 측면을 개론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자애와 자비 모두를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닦지 않는다면 낮은 차원에 그대로 있게 된다. 읽고 쓰고 악기를 연주하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을 연습하고 닦지 않으면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것과 같다. 물론 어린아이처럼 피아노를 아무렇게 칠 수 있지만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자애와 자비도 자연적으로 발현되는 능력이 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체험한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부모의 사랑과 어머니가 자식에게 쏟는 사랑은 아주 자연스럽고 타고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랑은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몇 사람에게만 한정돼 있다. 그리고 이런 한정적인 것은 우리가 아끼는 사람에게만 제한돼 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잠재된 생물학적 사랑을 좀 더 넓게 깊이 펼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중생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펼칠 수 있다.

자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선행을 했다고 보상 받는 것도, 악행해서 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단지 자비의 대상이 언제 어디에 있든 그것의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주는 것이 자비다.

2500년의 전통을 가진 불교에서는 자비·자애심을 계속 닦아 모든 중생에게 펼친다. 이러한 마음공부는 명상을 통해서 가능하다.

명상과 과학 접목 연구 활발
자비명상자 긍정적 감마파 증가
이타행 할때 행복감 높아져

명상…나도 좋고 남도 좋은 수행

명상은 산스크리트어로 드야나(Dhyana)인데 이것은 닦는 다는 것으로 품성이나 기술, 새롭게 인식하는 방법을 말하며, 티베트어로 곰(Gom)이라 하는데 무엇에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명상은 마음의 본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두는 것도 좋다. 현상계를 바라볼 때 이것은 좋다 나쁘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도 명상이다.

명상에는 자애나 자비처럼 특별한 성품을 닦고 기르는 명상이 있다. 불교 수행자들은 이런 명상을 수천 년 동안 해왔다. 이런 자애·자비명상을 한다면 자기의 삶에도 좋겠지만 타인에게 이타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남들도 좋아한다.

금세기 들어 과학이 눈부신 발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신뢰하게 됐다. 자애·자비심을 닦는 수행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 연구를 통해 밝혀준다면 현재 사람들은 더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5년 전 이런 마음을 갖고 달라이 라마가 주도하고 신경과학자 프란시스코 바렐라가 참여해 '마음과 삶 연구소(Mind and Life)'를 설립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모임이었다. 달라이 라마와 양자역학, 뇌과학, 물리학, 심리학 분야의 소수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 마음의 본질과 자연이란 무엇인지를 토의했다. 그러다 2000년 대 초 이 연구소는 명상이 생리학, 뇌,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20~30년간 명상을 해온 수행자와 2~3주간 명상해온 명상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연구했다. 과학과 명상을 접목한 연구와 움직임이 일어나기 전에는 소량의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긴 했지만 타당한 데이터로 간주되지 않았다.

'마음과 삶 연구소'가 해마다 이런 세미나를 개최했고, 드디어 2000년에 美 위스콘신대의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가 감정과 뇌를 연결하는 연구를 가장 처음 시도했다. 미국 임상심리학 전문가인 폴 에크먼 박사는 감정이 얼굴 표정에 미치는 영향을, 프란시스코 바렐라의 제자들도 이러한 주제들을 토대로 연구했다.

초기연구에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오자 과학계의 다른 연구소에서도 명상의 장·단기적 효과를 연구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명상과 과학을 접목한 연구가 퍼져나간 결과 프린스턴·하버드· 예일대 등을 비롯해 홍콩까지 30개 주요 연구소에서 명상-뇌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대학 연구소들을 많이 방문하면서 자기공명영상(FMRI)실험에 피실험자로 많이 참여하기도 했다.

연구소들은 처음에 정확하고 신빙성있는 과학적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평생 동안 1만~6만시간을 명상한 고도의 명상수행자를 실험대상자로 선정해 연구했다. 딜고켄체 린포체·칸규르 린포체의 제자들을 선정해 실험했다.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는 초보자와 고도의 명상수행자를 대상으로 뇌파계를 측정하는 전극을 머리에 부착하고 휴식상태, 명상상태를 측정하고, 숙련명상자와 초보명상자들의 뇌파 상태를 비교했다.

데이비슨 박사는 일주일동안 명상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자애·자비명상을 하라고 지시하고, 장기 명상자들에게는 휴식을 취하다 명상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뇌의 여러 부분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이 조합돼 인지작용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감마파(γ)가 급격히 증가했다. 감마파는 뇌의 긍정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이다.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타냐라는 연구원이 자애명상을 통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연구를 했다.

그 결과 몸 안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명상을 하기 전과 후 다르게 나타났다. 명상을 한 후의 통증 강도가 낮게 느껴진 것이다. 이런 과학적 연구결과는 명상자가 뇌의 감정적 측면 등 어떤 측면이든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타인에 친절 베푸는 일은 행복한 일

장기 명상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주의·집중력 테스트도 했다. 이들에게 컴퓨터 화면의 숫자를 계속 바꾸면서 보여주다 중간에 숫자 '0'을 보면 버튼을 누르게 하는 시험이었다. 45분간 실험이 진행됐는데 명상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15분만 지나도 금방 지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 정확도도 점점 떨어졌다. 그러나 장기명상자의 경우는 변화가 별로 없다. 그리고 45분이 될 때까지 실수도 없었고 지치지도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 명상수행자들이 무엇인가를 쉽게, 그리고 집중을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는 긴장 하고 잘 못타지만 능숙하게 잘 타면 두손을 놓고 앞으로 나가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 밖에 위스컨신대학은 4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명상실험을 실시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범죄와 문제가 있는 가난한 지역의 아동들이었다. 아동들과 담당 교사에게 10주간 하루 30분, 일주일에 3회 명상을 하도록 했다. 5주는 알아차림 명상을, 나머지 5주는 자애명상을 시켰다. 곰인형을 가슴에 얹고 숨을 쉴 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느껴보는 방식으로 알아차림 명상을,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기 등을 느끼는 자애명상으로 진행했다.

이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아이들에게 제일 친한 친구,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 모르는 친구, 반창고를 붙인 고통을 느끼는 아이의 사진 네 개를 보여주고 원하는 사진에 스티커를 붙이게 했다. 실험 전 아이들 대부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에게만 스티커를 붙였으나, 10주 훈련이 끝난 후 네 사진 모두에 똑같이 스티커를 붙였다. 타인에게 자비심을 갖게 된 것이다. 아이들은 10주간 이 명상체험을 즐거워했다.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훈련으로도 효과가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스컨신대는 또한 많은 학생들에게 친절함과 긍정적 감정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다.

학생들에게 하루에 한번 씩만 친절한 행동을 하게 한 것이다. 일주일이 지난 뒤 소감을 조사했다. 매일 하나씩 5회의 친절한 행동을 했을 때는 별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하루에 5회씩 자비심을 베푸는 행동을 했을 때는 이들의 만족감·행복감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은 "상대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이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연계성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타인과 감정적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이 곧 행복한 사람이라 말 할 수 있다. 사회적 연대감, 즉 우리가 얼마나 남들에게 의지할 수 있고 그들도 우리에게 의지하는 것은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온다. 정신건강이 좋아지고 치매와 심장병 줄어들며 마약·알코올 중독을 해결하고 면역성이 늘어난다. 단명하게 되고 건강을 악화시키는 이유가 사회적 고립에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양도 중요하지만 몇 사람과 깊게 교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914호 | 불자정보

TEL 02)2004-8215(直) FAX 02)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3층 약 50평
- 모든시설 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 시설비:2000만원

051)506-40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양산 북부동
- 전세 5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합해서 5,500만원
- 평수 90평, 3층 건물 중 3층
- 아미타, 지장, 관음, 삼존불, 신중탱화산신, 용궁, 후불 등 부처님 모셔져 있음
- 법당 외 방 5개, 소불 200불

011-9556-8413
010-8384-7754

사 찰 안 내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부근
- 현재 임법당 55평, 5존불
- 대지 1,356평에 280평 건축 허가 났음
- 착공계 진행중, 사찰요양원, 납골 근린시설
- 일체 가능함. 바로 지을 수 있음
- 가액 : 10억(절충가능)

011-771-7575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현우경' 이야기 (46)

아버지와 아들

연로한 아버지를 실수로 죽게 한 인연

한 노인이 일찍이 아내를 잃고 아들과 단 둘이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맛본 노인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날 노인은 아들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갔다.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출가하려고 하느냐?"

"윤회의 고리를 끊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노인의 결심을 듣고 출가를 허락해 비구가 되었다. 이때 부처님을 뵌 노인의 아들 역시 출가를 결심했고 아직은 나이가 어려 사미가 되었다. 이제 둘은 부자의 관계를 넘어서 스승과 제자가 되었다.

둘은 함께 마을에 들어가 걸식하고 수행자로 살아갔다. 아버지는 한 손은 지팡이를 짚고 다른 한 손은 아들의 팔을 잡고 마을을 오갔다. 둘은 수행자의 삶이 행복하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그날도 역시 둘은 궁벽한 마을에 가서 걸식하고 저물어서야 발길을 돌렸다. 돌이 험한 산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다. 뒤로는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들은 아버지를 일단 앞세웠다. 아버지에게 지팡이를 짚게 하고 아들은 뒤에서 아버지를 붙잡고 따라갔다.

하지만 뒤의 맹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결국 아들은 급하게 걷다가 앞의 아버지를 밀고 말았다. 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며 산길로 굴러 넘어떨어지고 말았다. 아버지는 불행하게도 머리를 돌에 부딪혀 죽고 말았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를 죽인 꼴이 되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아들은 부처님을 찾아갔다. 망연자실한 아들이 들어서자 입구에 있던 비구들이 사미에게 물었다.

"도대체 내 표정이 왜 이런 것이냐? 너와 함께 나갔던 스승님(아버지)은 어디 간 것이냐?"

아들은 그 자리에 앉아 엉엉 울고 말았다. 한참을 울고서야 아들은 자초지종을 말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비구들은 아들을 나무랐다.

"넌 참으로 나쁜 놈이로구나. 어찌 네 아버지이자 스승을 죽일 수 있느냐!!"

비구들은 부처님께 가 이에 대해 알렸다.

"그 스승이 죽었지만 그것은 악의에서 온 행동은 아니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사미에게 물었다.



삽화 · 강병호

"너는 네 스승을 죽였느냐?"

"네, 제가 부주의해 스승님(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진정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사미야,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네게는 악의가 없었다. 지나간 세상에는 네가 지금과 같이 악의 없이 죽은 일이 있었느니라"

그때에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내 물었다.

"알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지나간 세상에 이 두 부자에게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서로 죽였습니까?"

"자세히 들어라. 너희를 위해 내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리라"

아주 오랜 옛날 한 부자가 있었다. 아버지는 병들어 몸져누워 있는 아버지를 간호하며 살고 있었다. 아들은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간호해 마을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나 있었다.

어느날이었다. 아버지가 잠들려 하면 파리가 날아와 얼굴과 손발을 간지럽히며 괴롭게 했다. 너무나 짜증이 났던 아버지는 아들을 시켜 파리를 쫓게 했다.

하지만 파리는 끊임없이 계속 달려들었기에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괴롭히는 파리를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랐다.

욱하는 감정에 자기도 모르게 몽둥이를 찾아들었다. 그리고 달려드는 파리를 향해 거침없이 몽둥이를 날렸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파리를 친다는 것이 실수로 아버지의 머리를 때리고 만 것이다. 아버지 머리에 피가 철철 났다. 아들은 아버지를 안으며 오열했지만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야기를 마친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아 그때의 아버지는 바로 이 사미요. 그때의 몽둥이로 아버지의 이마를 때린 아들이 바로 지금 죽은 저 비구니라. 그때에 그 아들은 몽둥이로 아버지를 죽였으나 악의가 아니었다. 때문에 지금의 사미의 일도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니라"

그때에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마음으로 믿고 이해했다. 그리고 사미를 진정으로 위로했다.

사미 역시 자신의 행위가 전생과 관련된 인연과보에서 온 것임을 크게 깨달았다. 그렇게 인연과보의 원리를 깨우친 사미는 게으름을 피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다.

구성=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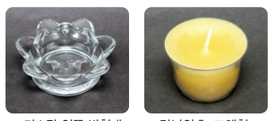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ø ×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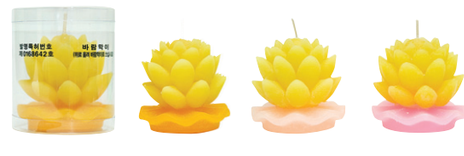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ø × 34㎝



육각초 7.0ø × 34



연화 大 9.5ø × 11㎝, 연화 中 9ø × 10㎝, 연화 小 7ø × 6.5㎝



밀납연화 小 7ø × 6.5㎝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향수림



백목향,목향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여러분 한 생각에 부처도 중생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이 마음 하나가 벌레라고 합시다. 그 마음 하나의 벌레가 악이라 하면 악의 씨가 수천수만 마리가 나올 수 있고 선의 씨다 하면 선의 씨대로 수천수만 마리가 나올 수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그러니까 약도 고정됨이 없고 병도 고정됨이 없다 이 소립니다. 아무리 연구해서 이것이 이 병의 약이라고 내놓아도 얼마 안 가면 그거는 벌써 무효가 됩니다. 또 거기에 맞게 달리 연구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병 증세는 연방 나오고, 그러니 약을 자꾸 달리 연구를 해야 하는데 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를 연구할 때 열 가지가 나오니까요. 이게 보이지 않는 데의 무서운 이치라고 볼 때 이 도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내 몸을 건강하게 끌고 다닐 수도 없거니와 내 가정을 내 사회를 내 국가를 세계를 우주를, 이 모든 거를 우리가 극난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들이 다 필요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일단 들어 놓으면 때에 따라서 급하면 생각납니다, 급하면. 평상시에는 생각이 안 났다가 자기한테 급한 일이 닥쳐오면 '아이구!' 하고 그때 그 생각이 납니다. '아이구, 내가 이렇게 해 봐야지.' 하고요. 그러니까 들어 두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 내가 여기에서 가르치는 거는, 안되고 되는 것을 어떻게 놓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카세트에서 나오는 거 자기 카세트에다 되놔라. 안되는 거는 '아,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나를 다지기 위한 과정이다. 이건 고가 아니다. 나한테 부딪쳐 오는 이것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물리를 터지게 해서 지혜를 얻게 해 주는 과정이다.'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감사할 거고, 또 '거기서 일체 만법을 다 해 나가니 감사하고, 또 잘됐으니 감사하고 이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해.' 그렇게 그 감사함을 알고 가는 겁니다. 또 그렇게 감사하더라도 이 내 마음 깊은 속에 감사함을 놓고, 바로 맡겨 놓고 사신다면 나가서 일을 해도 편안하고 또 집에 들어와도 편안하고 따뜻하고 또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니까 뭐든지 좋죠. 몸 건강하니 좋고 내 마음 편안하니 남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고,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말도 편안하게 나오고 또 말이 편안하게 나가니까 화목을 도모하고, 이러니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이 절간 살림이나 바깥의 살림이나 살림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스님네들은 결코 절을 운영하고 살림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바로 원심력을 얻어서 그 원의 항아리를 굴리고, 여러분의 살림살이와 자기 살림살이가 둘이 아니게끔 보고 둘이 아니게 나투고, 둘이 아니게 나투는 까닭에 둘이 아니게 모든 일을 해 나가고, 죽은 세상 산 세상을 같이 껴잡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손은 이 '공' 안에 꽉 찼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관세음보살의 진짜 손입니까? 또 여기 눈들이 참 많습니다, 눈! 여기 여러분의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백 명이 있다면 백 명의 눈이 또 있는데 그 백 명의 눈이 수천수만 가지의 눈으로 되어 있으니 눈이 그렇게 많다면 어떤 것이 진짜 눈일까요? 또 다른 걸 얘기해 볼까요? 지금 저, (화분을 가리키시며) 이파리가 많습니다. 이게 소나무 이파리라면 어떤 것이 진짜 이파리겠습니까? 내가 여직껏 말씀드린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도 그 의미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는 뿌리와 이파리와 가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파리들은 말입니다, 자기 뿌리를 못 보거든요, 흙에 가려서. 인간이 무명에 가려서 자기의 참자기를, 자기 뿌리를 못 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음미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에 가 보십시오. 남녀노소를 막론해 놓고 모든 물질은 없어져 버렸죠. 사대(四大)로 태어났다가 사대로 흩어지고 말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남았을까요? 보니까 전부 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애가 죽었으니까 천도를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천도를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천도라는 거는 내 밥 먹을 때도 천도가 되니까요. 이 도리를 알면 뭐 떠놓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모두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애가 죽었거나 한다면 애라고 업신여기죠. 그런데 그 애는 먼저 늙었기 때문에 애가 됐다는 걸 아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대의적으로 본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자가 남자로 될 수도 있고 남자가 여자로 될 수도 있고 짐승이 사람으로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짐승으로 될 수도 있으니, 또 어른이 애가 되고 애가 어른이 될 수 있으니 어떤 거를 세워서 어른이라고 하며 어떤 거를 세워서 애라고 할 수 있으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몸이라는 집이, 물질이 다 없어졌다면 그대로 물이자 흙이고 흙이자 바람이고 바람이자 바로 불입니다. 그렇다면 다 늙었죠. 백(白)이에요. 흙이에요. 그냥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뭐가 남았느냐구요? 우리 지금 마음을 내놓으시라면 내놓으실 수 없겠죠? 그 내놓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이 뿌리죠. 우리 마음, 내놓을 수 없는 거, 볼 수 없는 거….

그런데 여러분은 꿈에, 꿈이자 생시고 생시이자 꿈인데, 자기 몸을 뉘어 놓고 나가서 온통 다니다가 오거든요. 지금도 여기 앉으셔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집에 지금 뭐를 내려놓지 않고 왔거나 올려놓지 않고 왔거나 뭐 세워 놓지 않고 왔거나, 하여튼 뭐 급한 일을 안 해 놓고 왔다면 집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벌써 집에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오고 온통 야단난 거죠, 마음이 말입니다. 체가 없으니까 마음만 갔다가 왔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체 있는 놈을 붙들어다가 그거를 치우게 하거든요. 내가 걱정을 하면 자연적으로 벌써 딴 식구가 와서 그걸 해 놔요. 그러니 그 몸이 내 몸이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이렇게 에너지가 그냥 자가발전소에서 가설이 된 데로 전력이 다 나가서, 여러분이 가정마다 회사마다 모두가 용도대로 다 쓰는 그 전력과 같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광대무변한 겁니다. 여러분도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을 충만하게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도리를 배우셔서 가정에 이익 되고 공덕이 되고 복덕이 되고, 여러분의 우환과 가환을 다 자기 스스로 없애고 화목을 도모하면서 정답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십시오. 죽 한 그릇을 놓고 숟가락을 셋이든 넷이든 같이 꽂아 놓고 먹어도 그렇게 즐겁고 좋을 수가 없는 그러한 넓은 마음으로, 이 손을 쫙 벌리면 우주가 다 담겨 올 수 있는 그런 심력(心力)을 가지고 보람 있게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문하실 분은 없을까요? 없다면요, 우스운 얘기 한마디 하죠. 지난번에 앵커리지에 갔거든요. 거기를 들러서 산호세로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왔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은 거 같아서 우스운 얘기 하나 하는 겁니다. 거기서 세미나를 한다니까 미국 사람들이 달려들었죠. 한국 사람보다도 미국 사람이 더 살발이 들어섰는데, 타의에서 구하는 것에 환멸을 느끼고 자의에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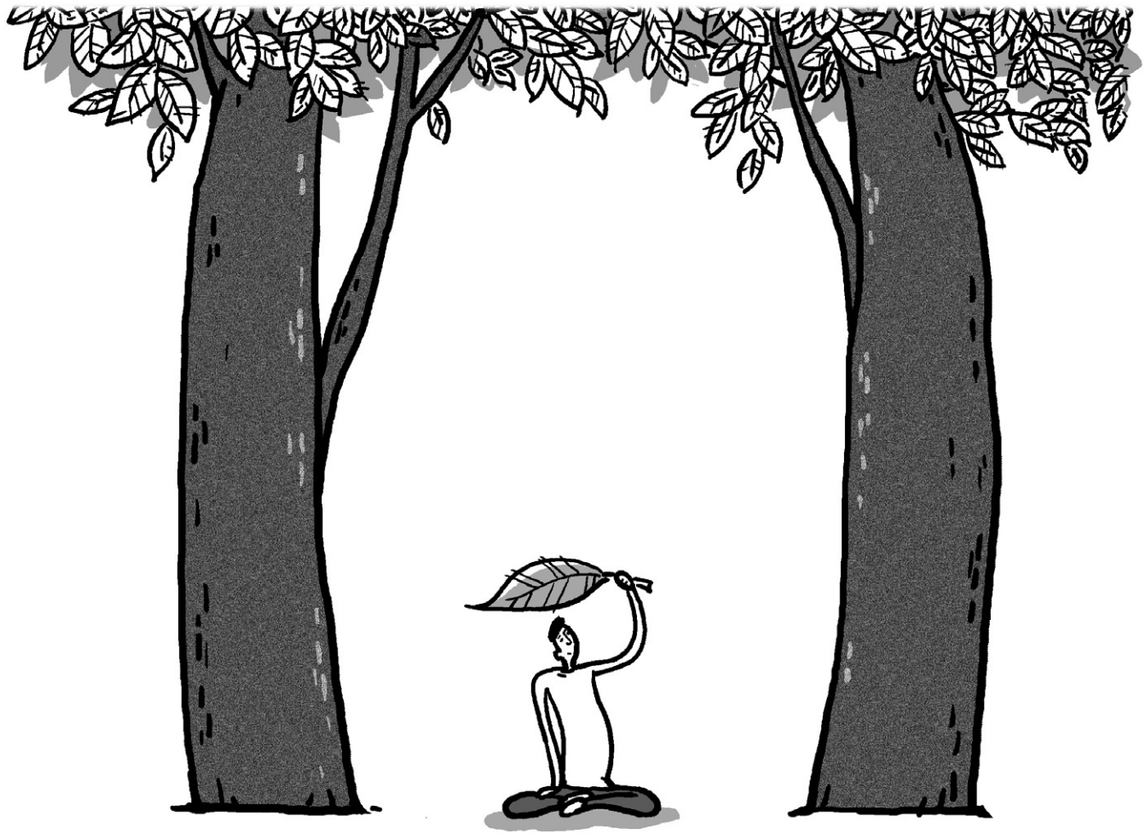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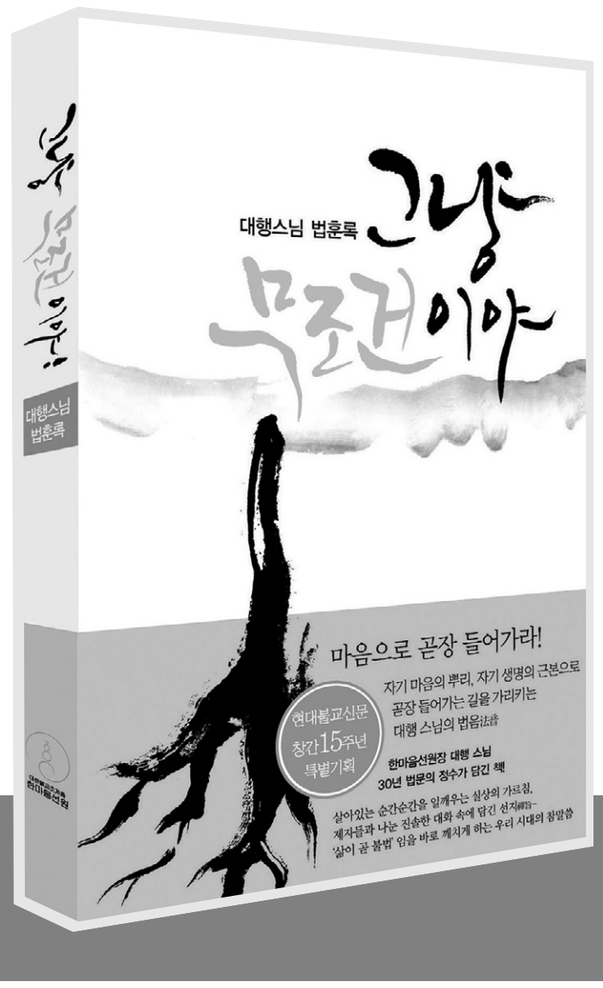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하나를 알면 그대로 그 하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9면에서 계속

서 구하는 것을 배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닥터 웨버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다리는 기-다란 사람이 배우려고 왔는데, 30분 동안 아침에 좌선을 하라고 하니까 날더러 "그대로, 그대로 참선이라면서 어째서 이렇게 30분 동안 앉아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것 보시오. 그대로 참선이라 그랬으면 마음먹고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다 참선이지. 또, 좀 틈을 내서 앉았다면 이게 참선이다 저게 참선이다 분별하지 말고 참선을 하랬지 누가 그게 아니라고 그랬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때에 따라 좌선을 할 때 틈을 내서 앉았으면 명상도 되고 참선도 되고 좌선도 되고 그런 거죠. 그것이 마음을 좀 쉬어 볼 수도 있고 관(觀)해 볼 수도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부지런히 일할 때는 일하는 것도 참선이고요. 그래서 이 우주 진리가 돌아가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나 좌선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고런 생각을 하고 좌선을 했다면 그건 좌선이 아닙니다. 그냥 좌선일 뿐이지 참선이 될 수가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왜 참선이 될 수 없느냐? 내가 앉는다고 생각하고 앉고 선다고 생각하고 서니까, 그 나머지는 다 끊어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누우나 모든 게 참선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좀 관하면서 앉아 있는 시간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간도 없다면 그걸 어떻게 정립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하고 어떻게 그 만 가지의 맛을 알겠습니까? 내 자가발전소가 만 가지 생산을 해낼 수 있는 바로 그 생산처니까, 내가 바로 그 맛을 안다면 그 생산처에서는 만 가지의 맛을 낼 수 있고 바로 만 가지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가지의 생산을 해서 남에게 만 가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심력과 원심력을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엊그저께도 보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불교 믿는 사람을 전부 마구니로 돌리는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든 어떠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각자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 있고 행하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남을 아프게만 하고 전달을 해도 못쓰게만 전달을 하고,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게 나쁘게만 해 나간다면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게 마구니죠. 사람이 마구니짓을 안 하는데 어찌 마구니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마구니짓을 한다면 마구니가 있을 거고 사람이 마구니짓을 안 한다면 마구니가 없겠죠. 우리가 전부, 여러분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는 한생각에 부처가 될 수 있는가 하면 한생각에 중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구보리(上求菩提)' 하면 '하화중생(下化衆生)'이 거기 따라붙고 또 '하화중생' 하면 '상구보리'가 따라붙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다 부처라면 여러분 속에는 다 중생들이 있는 거죠. 이 몸 자체로 인해서 다 중생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는 다 중생들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거죽은 부처라고 보더라도.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중생들이 다 한마음을 깨치게 되면 이 중생들의 마음이 한마음으로 다 깨쳐져서 인간으로 환토를 할 텐데요. 아니, 짐승들이라면 인간으로 환토를 하고 사람이라면 부처로 환토를 한다 이겁니다. 진화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도리를 하나하나 검토해 가면서, 들었던 거 다시 듣고 다시 듣고 해서 실천을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말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책도 반드시 백지가 있기 때문에 글씨를 쓴 것이고 글씨를 썼기 때문에 그 글자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백지가 아니었더라면 글씨는 쓰지도 못하고 그 글자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삼위일체로 돌아가는데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백지가 진짜입니까, 글이 진짜입니까, 글을 보는 게 진짜입니까? 어떤 거 하나 빼 버릴 게 없는 것이니, 바로 한데 합쳐서 부처라고 했고 그게 길이라고 했고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전처럼 그렇게 기복으로만 야단법석할 게 아니라, 하나를 알면 그 하나를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서 자기가 지켜보고 익히면서 체험하고, 체험하면서 자기는 자기를 다지고 다지며 자꾸 걸어 나가야 하는 거죠. 놓고 놓고 걷고, 놓고 걷고…. 우리 살아나가는 게 바로 카세트와 같습니다. 거기다가 노래를 넣었다가 또 다른 노래를 넣으면 앞서 것은 없어지면서 채워지고, 또 넣으면 채워지면서 없어지고 채워지면 없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진리요 지금 살림살이입니다. 그러니 거기 무슨 업보가 붙어 있겠습니까, 채워지면 없어지고 없어지면 채워지는데. 그러니 업보가 있다고 집착을 하거나 이런다면 그게 정말 업보가 되는 겁니다. 또 인과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인과가 되는 것이고, 전자의 조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되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마음 하나가 말입니다.

언젠가 한번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님, 제가 꼭 개를 잡아서 약으로 써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습니다. 딴 약은 먹기 싫고 개를 폭 삶아서 먹으면 자기 병이 낫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님으로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옳을까요? 어떻게 말을 했겠습니까? 잡아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잡아먹게 했을까요?

대중 가운데서: 잡아먹게 했을 겁니다.

큰스님: 잡아먹게 하긴요. 허허허…. 난 잡아먹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못 잡아먹게도 안 합니다. 단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소의 그 모습이, 그 살이, 그 고기가 내 고기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 생명이 내 생명이라면, 그거는 먹은 것도 없고 안 먹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역력하게 먹어서 그건 약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겠죠? 만약에 고기 한 점을 놓고 말입니다, 고기 한 점을 놓고 이게 소 한 마리라고 그런다면 누가 곧이듣겠습니까? 곧이 안 듣죠? 곧이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대중 가운데서: 안 듣습니다.

큰스님: 안 듣죠? 그런데 이 몸뚱이가 큰데…,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구가 몸뚱이라면 마음이, 그 지구도 탁 내놓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니까 말입니다, 지구가 콩 알갱이만도 못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고기 한 점이 어째서 소 한 마리가 아니 된다는 얘깁니까? 마음은 체가 없다고 그랬죠? 그 마음 하나가 수십 마리의 마음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수십 마리를 낳을 수도 있어요. 쓰레기통에 따뜻한 기가 도니까 생명들이 우루루 쏟아져 나오는 걸 보시죠?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 같은데 나 말할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허허허. 소 한 마리가 한 점도 될 수 있고 한 점이 소 한 마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도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정말 인간으로서 큰소리하고 다닐 수 있는데, 또 큰소릴 해서 큰소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큰소리를 할 사람은 큰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자비라는 건 뭘 자비라고 하는가! 이거 들떼기로 쬐끔쬐끔 얘기하는 것 잘 들으세요. 자비라는 건 악하고 선하고, 더럽고 깨끗하고, 낮고 높고, 평전하고 평전치 않고, 가난하고 가난치 않고, 못나고 잘나고가 둘이 아니고, 남과 여, 동서남북이 둘이 아닌 까닭에 바로 자비입니다. 저 강물이 구정물이든 핏물이든 똥물이든 고름물이든 수많은 물이 다 들어와도 여여하게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흐르죠? 마음은 그와 같은 겁니다. 마음 쓰기에 달렸습니다.

여기 제주도에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을 수술하든 생선을 칼로 자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생선을 갖다가, 펄펄 뛰는 거를 한번 칼로다가 탁 잘라 보십시오. 그 탁 자르는 순간 모든 혈맥의 피는 그 곳으로 뭉칩니다. 피만 뭉치는 게 아닙니다. 거기 피가 뭉침으로써 이 마음, 의식이라는 자체가 딱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었다 하면 병나는 거예요. 언제나 탁 자른 그 자리는 제거해 버리고 다 씻어 버리고 피를 다 긁어 버리고 요렇게 해서 먹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한 점! 한 점도 없는 게 마음인데 어찌 고기 한 점이 소 한 마리가 안 된다는 얘깁니까? 마음이라는 이 자체가 물 한 방울도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째서 소 한 마리가 안 되느냐 이겁니다, 한 점이! 그래도 한 점이나 되는데요.

또 건너뛰어서 알래스카로 가야 됩니다, 지금. 한 번 웃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닥터 웨버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말을 통하게 할 수가 있어야죠. (물컵을 기울여 보이시며) 이거를 이렇게 다 따라 내고서는 또 물을 붓고 또 따라 내고 또 물을 붓고 또 따라 냈습니다. 그러니까 찬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렇게 끄덕끄덕하거든요. 그렇게 고개짓을 하니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몸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시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호-, 호오-" 하면서 '아, 그렇게 비우라는 그거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랬죠. (고개를 끄덕이시며)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아, 좋다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좌선하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죠.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면 난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한 40명 오고, 한국 사람이 한 30, 40명쯤 돼서 한 70, 80명이 법회에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사람이 그렇게 모이는 게 아주 기적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통역을 해 줄 사람이 있나요, 또?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 불교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통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받아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나요? 나는 한국 사람만 들으라고 얘기하고 또 외국 사람한테는 또 딴 사람이 영어로 쓴 것을 읽어 주고 그랬으니까 우습죠, 그게.

그랬는데 그 소릴 듣더니 말입니다, 그 중에 한국말도 알아듣고 외국말도 할 줄 아는 중국 사람이 일어서서 대충 얘기를 몇 마디 해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좋다고 손바닥을 치면서, 내가 끝나고 나오니까요 그 사람들이 제가끔들 일어서서 뽀뽀를 하는데 글쎄, 어디다 할 것 같습니까? 하하하…. 뽀뽀를 어디다 하겠습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뒤쪽 머리를 짚으시며) 여기다 할 수밖에 없죠? 나는 키가 자그마하죠? 그 사람들은 키가 외이대같이 크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글쎄. 꼼짝없이 밑에서 뽀뽀를 당하고 말았죠, 뭐. 하하 참,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좀 기분도 나쁘겠지만 기분나쁘다고 할 것도 없죠. 그 사람네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력해서 거기까지 오게 된 거니까 오히려 감사해야죠. 그렇게 그런 일 저런 일 다 봐 가면서 다니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우리는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처지인데도 이 도리를 배우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그건 참….

부처님의 그 뜻,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책을 본다면 그 뜻을 봐야 하고 그 백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백지를 알고 그 뜻을 알고 글자를 알고 그래야만이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아는 거죠. 마음이 있다면 마음 내는 게 있고, 육신이 있다면 보고 말하고 하는 이것이 교(敎)가 아닌가요? 불교 말입니다.

오늘은 그냥 도떼기로 이렇게, 나는 무슨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 만나니까 쪼끔 하고 또 넘어가고, 쪼끔 하고 또 넘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그러해요. (잔 받침을 들어 보이시며) 여기에 가설을 한다면 사방팔방으로 많이 할 수 있듯이 골목이 많아요. 마음이라는 게 체가 없으니까 어디로 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요렇게 생각을 했다가 저렇게 생각을 했다가 하는 것이, 이 골목으로 들어가서 기웃거리고 저 골목으로 들어가서 기웃거리고 요 골목으로 가서 기웃거리고 이런 거니까 양해해 주세요.

※위 법문은 1987년 11월 19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자비라는 건 악하고 선하고, 더럽고 깨끗하고
> 낮고 높고, 평전하고 평전치 않고,
> 가난하고 가난치 않고, 못나고 잘나고가 둘이 아니고
> 남과 여, 동서남북이 둘이 아닌 까닭에 자비입니다.
> 저 강물이 구정물이든 핏물이든, 똥물이든 고름물이든
> 수많은 물이 다 들어와도 여여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흐르죠?
> 마음은 그와 같은 겁니다. 마음 쓰기에 달렸습니다.

최초로 정리된 극락왕생과 현세이익을 위한 아미타 수행법!

독송용 원문 및 우리말 아미타경 수록
원문 이해를 위한 정확한 번역과 상세한 주석

아미타경과 아미타 수행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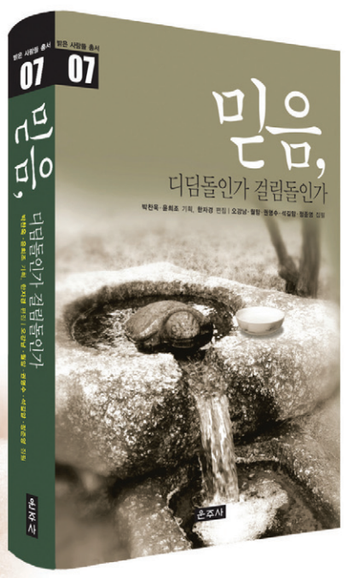


법성 편역/사륙판/90쪽/5,000원

믿음은 영적 성숙의 토대인가 장애물인가

종교적 믿음의 내용과 작동원리에 대한 불교(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와 종교심리학, 비교종교학에서의 성찰!

07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믿음은 종교를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다. 따라서 무엇을, 왜,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는 종교의 성격과 개인의 신행생활 혹은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 속에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종교들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규명한 책이다.

오강남 외 집필/신국판양장/300쪽/18,000원

밝은사람들총서

01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 정준영 외 / 396쪽 | 20,000원

02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 권석만 외 / 504쪽 | 23,000원

03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 미산 외 / 400쪽 | 20,000원

04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 우희종 외 / 424쪽 | 20,000원

05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 미산 외 / 348쪽 | 18,000원

06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 안성두 외 / 416쪽 | 20,000원

2012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불자 세상보기

오염된 정보바다 불교앱이 정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스마트폰은 현대사회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대표하는 소통도구가 되었다.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이 개발, 보급되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앱(App)들이 제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 영어불교 교재인 '헬로우 달마스쿨'이 배포된데 이어서 '반야심경 독송' 앱들도 개발되었다.

또한 전국의 사찰 정보를 검색하고 법회 실황을 볼 수도 있는 '야단법석'도 관심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전과 불교 음악 관련 앱들도 소개되고 있다. 수원 봉녕사에서는 사찰을 소개하는 앱을 직접 제작하여 영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불교 응용프로그램들은 불자들의 신행활동과 포교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 생활화되고 있다. 때문에 스마트폰의 응용프로그램 사용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세대에 비해서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를 손안에 들고 다니는 것과 같다. 문자, 소리, 사진, 동영상 등 어떤 정보도 손쉽게 전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도 공유할 수 있다. 즉 스마트 폰은 정보의 세계화, 소통의 보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보매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세계(世界)'라는 용어는 과거·현재·미래의 삼세와 욕계·색계·무색계의 삼계가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간적으로 무한하게 전파되고, 공간적으로도 어디든 닿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을 세계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불교사상이 아미타불 서방정토 극락세계이다. 무량수불은 시간적으로 영원함을 말하고, 무량광불은 공간적으로 무한함을 상징하는 부처님의 사무량심을 상징화한 것이다.

스마트폰의 보급은 정보이용의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정보 제공과 공유의 공간적 제약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다. 그것은 쓰레기와 같은 정보들이 넘쳐나면서 진실과 진리가 묻혀버리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각종 정보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잘못된 정보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감각적 정보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갖기 쉽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고도정보사회의 역기능들이 나타나고 있다. 게임에 중독되는 청소년들, 전화기 없이는 마음이 불안해지는 강박 증세의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폭력적 언어사용과 비도덕적 행위들, 심지어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 악행들도 부수적으로 나타나서 심각한 역기능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불교계에서 각종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덕행과 지혜행을 이끌어 주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일이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를 축적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의 한 과정이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해지기 보다는 오히려 불행과 갈등을 조장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가 아닐 수 없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거센 물결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불교 앱들은 쓰레기로 오염된 정보바다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력, 그리고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마음이 정화되고 인생의 참다운 법연이 형성될 수 있는 많은 스마트 앱이 개발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초기에 개발하여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정보의 양도 축적하여 흥미와 관심이 유발될 수 있도록 교계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발 언 대

경산시가 10월 29일 팔공산 선본사가 연등을 달기 위해 설치한 가설물을 두고 불법 시설물이므로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내 연등을 달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은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물이므로 철거하라는 것. 이에 교계 인사들의 의견을 모았다.

"철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 있어야"



정웅기
불교시민네트워크 위원장

팔공산 갓바위는 성보이자 불교 문화재다. 매년 설치해왔던 연등 시설물을 돌연 불법으로 규정한 배경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불자들이 불교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배는 물론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갓바위는 불교계 대표적인 성보이자 문화재라는 점에서 충분히 불자들이 그곳에서 종교활동을 할 이유가 있으며 특별한 행사를 위해 임시 구조물도 설치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전제해야 할 것은 문화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산시는 상설구조물도 아닌 이 기둥을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설치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며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 경산시는 종교편향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상식선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그 공문은 설득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경산시의 타당 이유를 하루 듣고 싶다.

"외부 연등 설치 자체 기준 만들자"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경산시가 10월 29일 팔공산 선본사에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내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과도한 행정조치인 것이 맞다.

하지만 불교계도 냉철하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내에 연등을 달고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노천에 있는 마애불이나 석탑, 부도 등에는 외경을 생각해 가설물 설치를 지양하는 것이 좋다.

더군다나 연등은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인 만큼 더욱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이번 내장사 대웅전 화재 사고에서도 끊임없이 아크가 발생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아크가 발생했을 시 누전장치는 별 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제는 불교계 내부적으로 외부 연등 등 시설물에 대한 자체 설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성보 문화재가 가지는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서 종교적 예경 공간을 바로 살릴 기준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제2,3의 내장사 사태를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경산시 행정조치 국민 공분 살 것"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경산 선본사 갓바위는 연 참배객 700만 명이 찾는 기도처이다. 이들이 모두 불자일까. 갓바위를 참배하는 이들의 구성은 무종교인들부터 기독교인들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불교를 넘어 갓바위에 초를 올리고 기도하고 등을 달며 각자 소원을 남긴다.

경산시가 매년 선본사에서 설치해 온 갓바위 등 구조물을 불법으로 규정한 그 배경과 이유가 오히려 의아해지는 부분이다. 당장 경산시에만 가보아도 불법광고 등 불법가설물이 넘쳐난다. 참배객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은 국민안녕을 기하는 또 다른 일이다.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번 경산시의 조치는 종교편향의 의혹마저 지니게 한다. 수 년간 설치돼 온 연등구조물을 제거하라는 그 저의가 심히 궁금하다. 갓바위를 관리하는 선본사와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노마저 일으키게 한다. 과도한 법해석에 의한 행정조치, 충분한 소통이 없는 이번 경산시의 행위는 불자를 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살 것이다.

社說

여법한 '총림 만들기' 숙의 필요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제14교구본사 범어사가 조계종 중앙종회 제192차 정기회에서 총림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조계종 총림은 해인총림 해인사, 조계총림 송광사, 영축총림, 덕숭총림 수덕사, 고불총림 백양사와 더불어 8개로 늘어나게 됐다.

조계종 종헌과 총림법에 따르면 총림은 종합수행도량의 의미를 가진다. 선원, 강원(승가대학 또는 승가대학원), 율원(율학전문대학원), 염불원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총림 지정 확대 움직임은 승가교육 발전과 교구본사 주지 선거로 빚어지는 내홍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타종교의 교세 확장에 맞서 지역 종교내 위상을 바로 세우는 기대도 예상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계 일각에서는 총림 지정 확대 움직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실제 조계종 총무부가 파악한 기존 5대 총림 운영현황에 따르면 이들 모두 염불원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덕숭총림 수덕사의 경우 율원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새로 지정된 3개 총림도 다르지 않다.

총림의 모든 실권을 가진 방장 스님에 대한 견제 장치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내년 3월 종회에서 개정될 총림법에 담겨야 할 내용들이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11월 7일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가 개최한 7차 야단법석에서 "총림의 방장이 주지 후보추천권을 가짐으로서 사중 내 이해관계에 얽혀버릴 우려가 크다"며 "방장이 이해관계에 얽히면 공부하는 스님을 모시지 못한다. 방장 권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총림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총림 지정 확대'라는 주사위는 이미 굴러졌다. 이제는 현대 사회에서 총림이 가지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종단적 논의와 이에 따른 정립이 필요하다.

공명 선거와 불교특보들의 활약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 정도 남았다. 그래서인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화제의 대부분이 대통령 선거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누구를 지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과정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종교지도자들도 깨끗하고 바른 선거실현과 국민의 선거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자승)는 11월 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종교지도자들은 이날 국민들에게 대통령선거는 국민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며, 국민이 꿈과 희망을 갖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적 순간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지도자들은 이어 민주정치 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 선거에 동참할 것과 올바른 선택을 위해 정당·후보자 정책·공약을 세심히 살펴 결정할 것, 선거법을 위반한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자세를 가질 것도 주문했다.

지금 세 대통령후보 캠프에는 불교특보라는 직책을 맡아 불교계 인재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과 불교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인 불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지금 그들이 얼마나 성실성을 갖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뛰느냐에 따라 당선 뒤 불교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가가 판가름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불교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단순히 대선캠프의 선거운동 뿐만 아니라 불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뛴다는 자부심도 함께 가져야 할 것이다. 자신들이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바로 한국불교의 미래라는 마음 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사찰이미지 200% UP!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法 법과 果

"이제는 사찰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사찰이벤트와 만나십시오"



법과활용(Application)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법과 이벤트(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감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사찰 홍보·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봉 부처님오신날 축
대한불교 조계종 신광사 주지일광
www.kidobal.com 051)442-6556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02)2603-1005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한국불교태고종 수정암
010-9334-3967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암
053)743-7070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덕림사 062-362-2091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명부전 건립 불사 동참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달음산 정관암 017-571-0097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여연선원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대한불교조계종 오등선원
064-744-0808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www.bssw.or.kr
법수선원 02)445-9911, 3411-1139
봉 부처님오신날 축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봉 점등식 축
봉 부산연등축제
소원성취
인등기도 하십시오
신중기도를 간절히 하십시오
대광명사
대한불교조계종 신광사
대한불교조계종 절 어린왕자
"나는 부처님의 제자다"
051-783-3037
부산포교원 오세암
051) 751-6103
www.oseam.or.kr
대중불교
054)455-1068
나한불사도량 영축산 보현사
등명낙가사로 초대합니다
주지 청우 033) 644 5337
도솔암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도솔암
주지 지선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수정암
010-4732-7835
농협 172255-51-207049 예금주:유승호
부처님 품안 행복한 가정
부처님 사랑이 온누리 가득히
대한불교조계종 신광사
부처님 오신 날 축
가피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법보신문
ARS 회원 060-707-1032
대한불교조계종 덕림사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대한불교조계종 수정암
대한불교조계종 여연선원
대한불교조계종 오등선원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도솔암
대한불교조계종 신광사
대한불교조계종 덕림사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암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